





表紙説明 / 金씨住宅 設計 / 李起範 撮影 / 배병우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 번호	통권 제 150 호
구입년월일	196 + 100 .
대한건축시	首領 温光スト

編纂委員会

 $\{j\}$

// 洪 淳 寅// 黄 一 仁

刑建築士

U. D. C. 69 / 72(054 - 2) : 0612(519)

目 次

通巻150号 1981.

論 壇 / 協和音의 언저리	金枝泰2			
対談② 共同住居環境으로서 화談③ 住居環境으로서 화談③ 住居環境으로서 화談·論文/ 오늘의 建築에 対한 월나는 住宅設計를 이렇게 주택설계의 허와 실···································	본다 安英培26 			
会 員作品 □ 崔씨任宅 / 범양종합전축 / 劉圭成 □ 建築家의집 / 김전축연구소 / 金大植 □ 차씨任宅 / 유립건축연구소 / 俞鐵鉀 □ N교수대 / 건화사 / 李永熙 □ 남씨任宅 / 종합환경연구소일전 / 黄一仁 □ 임씨任宅 / 대우건축연구소 / 洪淳寅 □ K 씨任宅 / 건축연구소원일 / 李忠彦 □ 黄州任宅 / (주) 정립전축 / 金昶一 □ 남씨태양열任宅 / 완종합건축 (주) / 李康植 □ 长씨태양열任宅 / 원건축연구소 / 金孝一 □ 金씨任宅 / 도시건축공사 / 李起範 □ 金씨任宅 / 금 강 전 축 / 金守賢	- 本州住宅 / 진신건축연구소 / 權祥雲 - 本州住宅 / 三元엔지나어링 / 朴吉榮 -			
元老建築家探訪 / 金正秀州 ········· 紀行文 / 北欧紀行(Ⅱ)············· 建築講座/ 建築積算資料(시리즈				
□ 協会記事 ····································	□ 建築界			
□ 1981年度"優秀建築資材展示会	開館"(展示資材紹介(Ⅱ))… 117			
□ 発行所 大韓建築士協会 / 母音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 / 郵便番号 1 1 0 光化門郵逓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 - 9491~2, 723 - 4287, 724 - 1045 □ 発行人 兼 編輯人 具				

協和音의 언저리

大韓建築士協会 서울支部長 全枝泰三甲建築研究所 所 長



몇몇親友와 함께 茶한간 나누고자 茶房에 가본다. 침침한 불빛아래 용 기종기 모여서 対話를 나누는 소리와 出入에 따른 빈번한 소리와 함께 共 鳴하여 雜音으로 소란스럽기만하다. 이와 반대로 3백명을 넘는 合唱団의 메시아 한창이 웅장하고도 깊은 感動 을 느끼게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전자는 不協和音이고 후자는 協和 音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情緒生活을 淳化해 주는 芸術에 있어서 특히 音楽은 그 構成 의 3 要素中(和音,拍子,音程)和音 을 으뜸으로 삼고있다. 각양각색의 旋律과 拍子가 調和를 이를 때 잊을 수 없는 名曲으로서 우리들의 心琴 을 오래토록 울려주고 있다. 造形예술인 建築部門도 그 構成의 3 要素를 갖춘 建築美의 真面目을 対할 때 이는 바로 音楽의 和音과 調和의 理致 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

美術에 있어서도 構図의 均衡, 色調의 配合등이 훌륭하게 調合될 때했하게 이끌리는 소리없는 和音을볼수 있다. 마치 体育行事時에 巨大한 mass-game의 -糸不乱의 律動과調和의 美를보고 호문하게 느껴지는 거와 같다. 이와같이 모든現象의 極致는 和音과 調和에 의하여 이루워지기때문에 이를 위하여 人間은 有史이래 끊임없이 노력하여 찬란한文化遺産을 많이 남겨놓았다.

『和는 둘 이상의 数量 合하여서 나 은 数値』라 하는 辞典의 품이를 되 새겨보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것이 고르게 合하여 더 훌륭한 하나를 이 룬다는 뜻이라 하겠다. 따라서 『和』 의 참뜻을 알고 우리人間관계를 보 다 부드럽게, 알맞게, 사이좋게 하 기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 다. 작게는 한 家庭, 勤務하는 職場, 속해있는 団体, 크게는 한国家의 興 亡盛衰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있지 않 나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和睦한 家 庭우 삶의 風波를 출기롭게 克服하 여 집안에 훈훈한 바람과 웃음을 낳 계할 뿐더러 이웃파는 미소로서 밝 혀주어 共同生活의 윤활유 같은 활을 하고있는데 比하여 和合치 못한 家庭은 사소한 일에도 騷乱스러운데 다 이웃에 누를 끼칠뿐 아니라 어두 운그림자를 自招하고 있는것을 보아 온 것이다.

이는 어찌 家庭에 局限하라 職場. 団体 및 社会도 그러하다. 相扶相助하여 相互補完的인 바탕과 理解로서 人和団結을 가져올 때 그 職場이나 社会는 発展케되고 雜音과 紛糾가 지속되는한 退步 또는 滅亡의 根幹 임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例로 우리 記憶에도 생생한 1976년의 越南事態를 들수 있다. 国家存亡은 아랑곳없이 国論만 百家爭鳴式으로 분분하다가 끝내는 이 地球上에서 허무하게 消滅되어버린것은 結局 不協和音이 빚은 끔찍한 数訓이라 생각한다.

昨年의 우리建築界의 周辺은 公正 하고도 良識에 따른 業務処理가 되 지못하다보니 이에따른 不協和音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따금 건축 関係業務를 둘러싸고 社会에 物識 를 빚는 일들이 浮刻되곤한다. 快適한 都市環境과 造形空間의 構成을 위해 좋은 建築物을 創造(生産)하는데는 官民의 協同精神과 使命感없이는 作 品을 期待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 나 이러한 共同目標達成過程에서 惹 起되는 諸問題処理에 利害相反된 各 自의 立場만을 固守하다보니 騒音이 나올뿐만아니라 社会의 指彈対象이 되어 화살을 피할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騷音의 震源은 어디에서 - 비 롯되는지 생각해 볼일이 아닐 수 없 다. 듣기좋은 協和音이 演奏되기 위 해서는、音楽的与件이 先行되어야하 듯이 社会的協和音의 바람은 그 社会 의 精神的風土改善이 先行되므로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즉 서로 信賴 하고 責任은 分明하하며 誠実과 最 善을 다하고 서로 情이 通하고 脈이 호르는 対話와 社会에 奉仕하는 정 신적 바탕을 기조로 하고 또한 建全 한 社会俱現을 위하여 끊임없는 온 갓努力이 充溢되어야 하겠다.

바라건데 不信風潮없는 참신한 社 会風土를 속히 成熟시켜 和音의 메 아리로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여야한 다.

우리나라도 経済成長에 힘입어 모 문分野에 걸쳐 刮目할만한 発展을 이 룩하였는데 이는 國民모두가 総和団 結(協和音)하여 얻은結果인것이다. 이 成果를 바탕으로 中進国에서 先 進國으로의 도약을 目標로 늠능하게 前進하고 있는중이나 이를 狙害하는 要因中에서 不協和音의 除去도 시급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속담에「빈양 철그릇이 시끄럽다」란 말이 있다. 이 것은 不協和音속에서 얻는것 보다 잃 는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뜻 이리라. (*)

定期理事会 개최



제1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9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稅會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감 사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 의에서 具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국민적노력 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청탁 및 정화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본 회 회원들도 본회를 구심점으로 솔 선수범할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사회정화국민운동본 회 추진위 설치운영규정안 심의 를 비롯해서 자율정화자문위원 및 중앙협외회 위원위촉, 자금배정심 외,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조치, 윤리위결정사항승인건, 82년도 사 업계획 및 예산안심외건 등이 논 외되었다.

그밖에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개 정안에 관한 심의와 아울러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심외의건 등을 다뤘다.

한편 경기지부로부터 승인요청 해온 동지부산하 부천분소장 職務 代理승인전을 원안대로 徐洛奎(내 외건축·부천시 원미동92) 회원을 分所長職務代理로 승인했다.

報酬기준 研究小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연구 소 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지난4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외에서는 설계감리 보수 액 산출에 있어서 공사비 총액을 설계완료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서 산출한 공사비 예산액으로 결 정한다는 것과 보수액의 단계별구 분에 있어서 설계감리보수 비율을 재조정하고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 시설계를 한사람의 설계사가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요율을 가산시 키도록 결정하는 등 기타 개정 항 목을 수정보완했다.

그밖에 보수요울표에서 건물종 류별구분과 공사비요율구분을 재 조정할것과 공사감리에 대한 요율 의 초안작성검토 및 보수기준에대 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키로했다.

회원간담회개최 현행문제점제기



서울支部소속 회원간담회가 지 난 2일 본회회외실에서 열렸다.

具稅會회장 주제로 열린이날간 담회에는 서울支部에 소속되어있 는 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원의 활동현황을 비롯해서 본회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교환등이 있었다. 특히 이자리에서 참석회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① 비위회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촉구와 ② 행정처

벌의 모순점시정강구 ③ 허가제도 개선연구 ④ 회원간의 유대강화등 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아 쉽다고 지적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비 위회원에 대한 응징조치와 소급적 용으로 행정처벌을 받는 모순점에 대해서는 회원각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처할것과 게도적장치 로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명문화규 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점이 많은 허가제도에대

한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현 실에 맞는 제도개선에 착수해야한 다고 말했다.

福祉年金研究委 邓최

福祉年金制度연구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지난달 21일개최되었다. 이날 회외에서는 새로 마련키로 한 福祉年金規程案가운데 施行細 則을 비롯해서 特別会計 규정, 特 別会計施行규칙등을 補完해서 次 期 小委員会를 갖기로 했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本会 정관에 年金規程을 明文化할것과 名稱의 통일화를 위해 앞으로는 「祉福年 金」으로 하기로 했다. 또 年金의 基金조성을 위해 향후 5개년간설 계비에서 1%씩을 징수토록한데 이어 運営의 정상화를 꾀하기위해 자체감사외에 公認会計上등의 監 查를 받도록하는 監査機能의 強化 要件등을 정관에 삽입할것을 결의 했다.

조찬 간담회 가져 日人건축물해체기술자참석



본회는 지난 11일 정부초청으로 來韓한 日本 (株) 日建設計 소속 의 건축물해체기술자 矢野 克巴씨 와 山崎武志씨를 초청, 조찬 간담 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건축물해 체에 관한 강연을 하기위해 한국 에 온 이들은 이날 조찬 간담회에 서 현재 日本에서는 새로운 施工 技術에 관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기존건축물에 대한 처 리연구 즉 해체공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한일간 외 기술교류를 통해 건축물의 해 체공법기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具稅會 화장을 비롯한회원 및 관계인사등이 참석했다.

MBC통해 3 백만원 수재의연금전달

태풍「애그니스」호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호남지역 이 재민을 위한 성금을 지난 11일 전 달했다.

V %

본회 회원이름으로 문화방송국을 통해 천달된 의연금은 모두 3 백만원으로, 많은 농토와 집을 앓고 실의에 빠진 이들지역의 주민들이 하루속히 농경지를 복구해서 새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다소나마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다.

建設部 감사실시

自体감사도 26 일부터

금년도 定期감사가 지난 21일부 터 建設部 특별감사반에 의해 실 시되었다.

총무. 기획, 출판, 기술등 본회 전 반적인 운영사항에 관례 감사를 실 시하는 이번 建設部 감사는 会員 業務에 대한 보다 원활한 업무수 행과 효율적인 協会業務추진을 위 한 것이다.

한편 본회 정기自体감사도 지난 달 26일부터 実施되었다.

경북支部에서부터 실시되는 이번 자체감사는 協会업무전반에 걸쳐 집행되며 업무의 조직화와 등등 동화 내지 효율화를 폐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支部別 감사 日程은 다음파같다. △경북 8.26~28일 △부산 8. 28~30일 △경남 8.30~9.1일 △ 전남 1~3일 △전북 3~5일 △ 충남 6~8일 △충북 8~10일 △ 경기 10~12일 △강원 14~16일 △제주 17~19일 △서울지부 21 ~23일 △본부 24~26일.

정화 및 청탁배격운동전개

정화 및 청탁배격운동이 지난 8 월에도 본회를 비롯한 산하 각 시 도 支部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정화운동에 입각한 対民봉사를 통해 건축행정상담 68건과 회원에 대한 정화운동실천 교육의일환으로 회장 친서를 받송 새로운 윤리관 확립에 발전을 기할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사무소를 순회, 업무질서확립과 비위원회적발,명의대여, 덤핑행위등을 근절토록지도했으며 정신교육을 통한 정화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밖에 총 5회에 결친 정화위 원회를 열고 동운동의생활화에 노 력했다.

한편 청탁배격운동전개를 위해 서는 회원업무와 연관되는 행정부 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한을 발 송한데이어 간담회 등을 열어 이 외 적극화에 주력했다.

請託明격 自体教育 込ん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 탁배격 및 정화운동을 실생활화하고 나아가 계몽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이 있었다.

지난 8일 본회를 비롯한 서울 지부임직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 서는 스라이드를 통한 시청각교육 으로 청탁풍조로 인한 인격적 손 실과 나아가 사회적 문제점을 제 시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정신자 세정법의 방향을 집중교육 받았다.

본화는 동운동의 활성화와 실천 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할 계 획이다.

海外시참당 構成키로

새로운 建築技術의 습득과 建築 文化活動을 위해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海外시찰단에 합류할 會員들 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10월중에 出國할 예정으로 구성하는 이번 시찰단은 15명 한 정으로 14일간 外國에 체류하면서 ① 海外先進技術習得과 國內 建築 技術의 소개 ② 韓日 建築土제 5 차 간담회 ③ 亜洲 國際機構 구성 에 따른 준비 ④ 外國団体와의교 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다.

이번 시찰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본회 會員과 資料 및 情報수집에 필요하다고 認定된 자 로 되어있다.

타이페이, 방콕, 싱가폴, 홍콩, 오사카, 교또, 도교 등지를 돌아볼 이번 海外旅行은 본회 출판사업부 에서 일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허증교부결과보고 ③ 정관·제규 정개정작업 ④ 支部長회의준비 ⑤ 회원현황과악 ⑥ 各 市道支部도서 신고필인 변경사용시달 ⑦ 支部조 례·예규집발간준비 ⑧ 감사 수감 ⑨ 총회준비

□ 기획조사실 : ① 정화운동 핵심위원임명 ②淨化委설치 · 運営規程제정 ③ 82年度예산편성④도서신고분석 ⑤ 청탁점검반활동 ⑥ 회원정화교육실시계획 ⑦ 수지보고서현황분석 ⑧ 세입세출현황 분

□기술부:①設計보수요율 개정위개최 ② 윤리위자료준비 ③ 전축행정개선방안연구 ④ 건설부와 보수요율협의 ⑤ 건축관계법령 가제분검토 ⑥ 건축연구위준비

倫理委員会 개최



올들어 첫번째로 倫理委員会(위 원장 閔栄基)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본회회의실에서 열 린 이번 윤리위원회에는 閔委員長 을 비롯한 위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会議에서는 명의대여 행위 와 품위훼손으로 제소된회원에 대 한 십사와 제반 倫理委規約에 위 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에 대한 전반적인 論議가 있었다.

9월중 업무계획

본회 각 부서별업무계획은 다음 과 같다.

□ 총무부: ① 理事會준비 ② 면

□ 출판사업부: 會員간당회개최② 주택특집대담개최③ 광고 미수

금수금 ① 會員海外旅行業務 추진 ⑤ 編輯関係資料정리 ⑥ 會員作品 展準備 ⑦ 편찬위 개최 ⑧10월會 誌編輯計酬樹立

日,建築士일행 서울支部방문



日本人 建築士일행이 서울 支部 를 방문, 金枝泰支部長을 비롯한 同支部幹事 등과 환당을 나눴다.

지난달 16일 서울支部를 방문한 日本人 건축사 일행은 日本 静岡 県建築士会 浜松支部소속 회원들 로 加藤英明씨를 비롯한 市州進씨 그리고 松井昇씨 등 3명이다. 日本 一級建築士들인 이들은 특히「하마마쓰」支部의 任員들로서, 우리나라 建築士들의 활약상과 協 会산하 組織현황등을 알아보기 위 해 建設部 주선으로 이날 서울 支 部를 방문한 것이다.

여들은 현재 日本에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建築土들이 있다고전 하고 이 가운데 40%정도가 등록, 作品設計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 다. 또 하마마쓰에는 모두 5백50 명의 건축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상 차이점으로 日本에는 보수 요율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金 서울支部長은 建築文化 의 相互교류를 위해 양국 所体間 의 유대를 맺고 정기적인 会合등 제기마련에 힘쓰자고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日本 하마마쓰支部 業務委 員長으로 있는 가또씨도 이를 위 해 귀국후 努力을 아끼지 않을 것 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支部를 방문하고 돌아 간 이들 일행은 귀국후 하마마쓰 支部長 명의로 된 書信을 통해 지 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 상호 노 력을 하자고 전해왔다.

教育및 결의대회개최 釜山支部 全 회원및 임직원



釜山支部는 지난달 8일 부산은 행 범일동지점 8층에서 회원및 임 직원 풍토쇄신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백79명의 화원 및 임직원이참 석한 이날 大会에서 張起秀지부장 은 대회사를 통해 "청탁 및정화운 동의 솔선수범을 통해 건축계의 각 종부조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정신 자세확립으로 정의사회구현에 노 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부조리 척결 및 청탁배 격에 관한 건설부장관훈시 내용및 공직풍토쇄신을 위한 특별감사 활 동강화계획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또 이날 大숲에서는 정의로운 사 회건설에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결 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身障者위한 誠品기탁 :

江原支部, 자매결연도

江原支部는 자연보호운동을 비롯한 자매결연, 심신장애자돕기동을 전개 지역사회개발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同 支部는 지난달 22일과 29일 수원지 오염방지및 환경정화 운동 을 위해 회원 61명동이 참석해서 의암호주변을 청소했다.

한편 31일에는 춘천시 우두동 5 통과 자배결연을 맺고 각종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지난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춘천시립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동양화전시회 수익금을 신체장 애자돕기에 쓰기로하고 되아노 1대(80만원) 오르간 1대(20만원) 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가탁했다.

새마을촉진대회 개최 忠北支部 会員 등 참석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한 새로 운 価値観 定立과 正義로운 民主 福祉사회건설을 다짐하는 건설인 새마을활성화 축진대회가 지난달 28일 忠北세무서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大会에는 충북지부소속회원 및 직원 41명을 비롯해서 建協충 북지부회원 30여명이 참석해서 세 마을운동의 새로운 方向모색을 동 한 활성화 방안과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세부계획등 指針을 마련하고 적극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資材展示会 연장키로

建築資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건축물의 質的向上 을 꾀합과 동시에 資材메이커의 생 산의욕고취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본회주최로 열리고 있는 「'81우수 건축자재전시회」를 계획기간보다 2개월 더 연장해서 전시키로 했다.

지난 12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장키로한 이번전시회의 당초 기 간은 오는 10월20일까지였으나 참 가업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천시제품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 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기 간 연장을 요청해움에 따라 그 기 간을 2개월 더 연장해서 오는 12 월2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의연금품전달 忠北支部 20만원

忠北支部는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단 될 수재의연금을 충북도청에 기탁

천선낚시대회개최 全南北会員·간담회도



소속支部가 다른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친선낚시大会가 열렸다. 全兩北支部회원 80여명은 지난달 29일 전남장성읍에 위치한 장성호 했다.

지난 1일 同文部는 20만원의 외 연금을 마련해서 태풍「애그니스」 호의 영향으로 큰 손실을 입은 수 재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 어넣는데 써달라는 뜻에서 의연금 을 전달했다.

에서 낚시大숲를 갖고 우의를 다지 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낚시대회는 오후 4시에 막을 내렸으며 이어서 8개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특히이날 대회는 낚시 뿐만아니라 간담회를 곁들여 개최해서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낚시대회에서 입상한 회원 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전남지부 △ 대어상 / 이수회원·전남 △ 일동상 /홍종식 ·전남 / △ 이동상 /현준철·전남△ 삼등상 / 유철갑·전북 △ 행운상 / 김상준·전남 △ 다북상 / 주형신 · 전남 △ 애석상 / 최낙우·저북

建築學會 입회안내

대한건축학회(尹張燮)는 会勢확 장을 위한 회원 입회를 적극 촉구 하고 있다.

창법 30여년이 되는 同学会는현재 2천여명의 회원들이 加入되어 있으며 国内外에 걸친 学術研究활동 및 支援과 정부에 대한 政策的 전의 및 자문활동 그리고 건축기 출서적 発刊등을 통해 建築分野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同 学会는 本会소속회원 가운데 아직 学会에 加入하지 않은 회원 에 대해 入会를 촉구하고 学会活 動을 통한 建築界発展에 이바지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入会절차는 다음과 같다..

□入会願書 1通(本会에 備置) □学会正会員二人의 추천 □出身 学校卒業証明書 1通 □問議処 (776) 0809 · 3124.

設計用品구입처선정

設計作業에 필요한 각종 설계용 품을 市中価格보다 싼값에 購入항 수 있는 去来線을 마련했다.

본회는 지난달 20일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事業의 일확으로 設 計作業에 많이쓰이는 각종 設計用 品의 購買窓口를 指定해서 우수한 제품을 싼값에 일괄구입할 수 있 도록 했다.

본회가 指定한 業所는 서울 중 구 다동 109번지에 위치한 한일기 계상사(전화 774-0784, 4784, 2450 음자로입구)로 同業所는 **国内에서** 생산되는 우수 설계용품뿐만 아니 라 外国의 유수한 회사에서 생산

되는 유명한 제품들도 직접 수입. 공급상 차질이 없도록 구비해놓고 있다.

특히 본회소속 会員에 한해 製 品에 따라 20%~25%가량을 할인 판매키로 했으며 去来上의 번거로 응을 피하기 위해 설계用品이 필 요한 会員이 직접 同社와 직거래 하도록 했다.

/ 건설부・제1차 國土綜合開發計劃案 發表 /

成長에서 安定으로…

다음은 지난달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案)(82年~91 年)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본 것이다.

앞으로 이 試案은 공청회와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겠으나 根幹이되는 計 劃율 우선 알아보기로 하자. /편집자/

지나달 24일 건설부는 國土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인구의 地方정착을 유도 하기 위한 제 2 차 國土綜合開發 10개 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82년~91년까지 추진될 10개년 개 발계획안의 주안점은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주창되어온 80年代福祉 사회구현의 長期布石으로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자연환경보천에 촛점을맞 추고 있다.

이에따라 人口의 地方정착유도 產 業기반시절의 전국적확대 國民生活환 경개선, 국토부존자원의 개발과 환경 보전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으며, 지 나 72년~81년까지의 1차 國土綜合 開發計劃이 高度經濟成長을 위주로 경제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한 擴點開發에 주력했던 것에 비하면 모든 國民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國土를 개발하려는 계획인것으 로 評価되고 있다.

되 成果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

□ 福祉社会 구현을 위한 장기 布石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계획은 - 成長일변도에서 安定으로 전환한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도 일 백상통하는 것이다.

> 서울과 釜山의 양극화를 막고 연구 의 분산과 全國土의 利用度를 높힌다. 는 점에서 大田・光州・大邱를 비롯 한 14개도시를 成長爆點도시로 지정 하고 全國을 28개지역 생활권으로 구 분한 것이 이번 계획안의 근간이 되 고 있다.

□ 14개 성장거점도시 육성

성장거점도시에는 적정한 산업과 住居地域을 배치해서 인구의 도서유 입을 막아 安住케 했으며 수도권은 5개로 나누어(정비촉진지역·개발억 제지역 · 개발유도지역 · 자연보호지역 •개발보류지역)정비하는 반면 大田 ・光州・大邱를 현재 서울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原州 江陵 淸州 天安 全 州 南原 木浦 順天 安東 晋州 濟州曼 따라서 國土는 生產的으로 개발하 지금의 大田수준으로 키워 대학 의 - 료・백화점・체육시설등을 갖춘 地域

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人口分散策률 겨냥하고 있다.

이같은 計劃으로 오는 91년까지 首 都圈人口를 총인구의 34%(現在35.6 %) 인 1천 5 백72만명 (기간중人口增 加 1백18만 6천명), 釜山圈은 6백 93만 3천명(1백46만명)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택보급률 81.3%로 올려

또한 일반의 관심이 되는 住宅문 제에 있어서는 期間중에 住宅보급율 올 81.3%(現在 74.5%)로 끌어올리 기로 해서 社會福祉增進과 人本 중심 의 가치관 확립에 큰 몫을 할것으로 기대되며 住宅보급율과 아울려 上水 道 보급율81%(55%) 下水道처리율 41%(6%)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아울려 대단위 신규공업단지는 가 급적 막고 성장거정도시와 지방도시 에 노동집약적 도시형 공업을유지해 서 환경개선과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다.

그밖에 期間중에 개간·간척으로 9백 44평방미터를 농경지로 개발하고

- 狹川 住岩 洪川 등 10개의 多目的 댐건실로 75억m³에 달하는 각종 用 水를 공급하며 서울 부산간의고속電 鉄산설등 에너지절약적 교통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案)의 개 본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부산의 人口,產業集中억 제 🙎 成長據點도시 개발 촉진 🗿 특 정지역의 國家支援개발 4 首都圈 정

国土計劃 심의위원위촉

정부는 국토계획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건설 종합계 획심의회 위원에 金満堤 한국개발 연구원 원장 등 19명을 위촉했다.

임기가 4년인 위원들의 명단인 다음과 같다.

金満堤(한국개발연구원원장),權關杓(연세대교수),金甫校(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金東煥(변호사),金成斗(조선일보논설위원)金壽根(국민대조형대학장),金宜三(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사장),金樟洙(高大교수)羅相紀(홍익대환경대학원장) 廬貞鉉(延大행정대학원장) 柳根튀(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차魯植(경회대교수) 朴炳柱(홍익대교수)潘柄吉(서강대교수)李燦(서울대교수)李熙大(국토개발연구원부원장)朱顯(한국국토 회학회명예회장) 崔榮博(수원공전학장)

서울시 住宅국장등 발령

서울市는 8월18일자로 住宅局 長에 李元鍾 竜山区庁長, 竜山区庁 長에는 姜德基地下鉄建設本部次長 을 各各 内定했다.

서울市는 또 住宅行政課長에 柳 東柱住宅整備課長, 住宅行政 係長 에는 金在宗運輸 1 課 1 係長을 各 各 転補発令했다.

文教部 국장급인사이동

정부는 4일 오후 문교부국장급 이상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중 건축관계관 이 동은 아래와 같다.

△ 서울대시설국장--魚彰秀 △ 교육시설국건설관 - 孔榮睦

学・芸術院회원 신규任命

정부는 지난4월 개정된 문화보 호법에따라 공석으로 남아있던 학 예술원정회원64명(학술원44명 예술원 20명)을 신규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임명된 학예술원 정회원은 문화보호법 개정당시 정회원으로 재임명됐던 78명(학술원 52명예술원26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대한 신규임명이며 이로써 학예술원 정회원정원 1백50명(학술원 1백명예술원 50명)중 1백42명이 임명된 것이다.

학술원 회원중 건축계인사는 다음과 같다.

自然科学 3分科 元老会員 - 李均相(現会員) 正会員 - 尹張燮(新規・서울大 교수)

大韓建設協会各委員 위촉

대한건설협회는 各級委員会 委員 을 위촉하였는데 어들위원중 建築 界人士는 아래와 같다.

△技術審議委員 12명중-慎武 (서한건축기술연구소장)/尹張燮 (대한건축학회장)/辛鉉楠(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建築施工分科委員 10명중-張起仁(삼성건축설계사무소장)/金海鍵(건설연구소건축기준과장/박윤수(서울시교육위원회 시설과장)/魚彰秀(문교부교육시설국건설관)/曹浚鉉(건설부기술지도과장)

△ 瑕疵審議委員 19명중 - 慎武城 /尹張燮/咸性権(한양대건축공학과 교수)/姜奉辰(국보건설단회장)/金 永哲(국립건설연구소건축부장)

東大 吉正天 교수훈장수여

東国大学校 建築工学科 吉正天 教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 위원회 국제심사위원으로서의 활 약과 국외선양으로 정부로부터 7.1 일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전국 建設技術者 총29,878 **名** 建設部,8월21일현재免許상황集計

26일 建設部에 의하면 지난80년 末 現在 全国의 建設技街者는 모두 2 만7천 525명이었으나 8 월現 在 土木技術者가 827명 建築 1천 183명 機械 235명 造景 83명,地域 및 都市計劃 25명이 새로 技術者 免許를 取得했다.

8월21일 現在 우리나라 建設技 術者現況은 다음과 같다.

올등어 技術士를 包含 総 2.353 명의 建設技術者가 새로免許를받아 8월21일 現在 우리나라建設技 術者総数는 2만9천878명에 達하고 있다.

-	, t	X - X - X
区	分	단위 : 명
建	技術 士	745
	技士 1 級	5, 754
築	技士 2 級	9, 183
	小 計	15, 682
土	技 術 士	936
	技士 1 級	3, 785
木	技士 2 級	6, 833
7.0	小 計	11, 554
機	技術士	73
	技士 1級	680
械	技士2級	1, 304
	小 計	2, 057
造	技術士	8
	技士 1 級	216
景	技士2級	188
	小 計	412
都地	技術士	1
市域計	1 級	172
劃具	小 計	173
	計	29, 878

建設研에 耐火・防火시험 施設설치

建設部는 29일 防火火다 品質基準의 制定과 関聯,耐火 및 防火 試験施設을 国立建設研究所에 設 置했다.

建築界뉴스

建設部는 大規模建築物에 使用을 義務化하고 있는 不燃材料·防火門 및 自動防火산다의 品質管理 및 建築物의 耐火構造研究을 위해 国内最初로 耐火 및 防火試験施設을 갖추게 됐다.

3억7천만원을 들여 設置한 이施設은 建築物의 보·바닥·防火門 및 自動防火火다등 実物크기의 副材에 대해 試験할수 있는데 防火 삿다는 火災時 섭씨60~70度에 서自動으로 닫히며, 섭씨 1천10度에 2 시간以上 전기게 돼 있다.

그런데 防火区剛은 建物面積 約 300坪 (1 천㎡) 마다 義務的으로 設 置해야 한다.

建築자재品質검사 強化

各·市道서 年2回 定期검사실시

建設部는 建築資材의 品質向上을 위해 品質検査를 強化하는 한 편 不良資材에 対해서는 許可取消 등 強力한 行政措置을 取하기로 했다.

8월29일 建設部에 의하면 建築 資材品質検査運営에 関한 規程을 改正,各市·道知事는 建築資材를 年2回 定期検査토록하고 随時検 査는 分期別로 1回以上 実施,不 良資材의 使用을 根本的으로 防止 하게했다.

改正된 이 規程은 検査를 받은 業体는 地方長官이 指定하는 検査 機関에서 検査를 받아야하며 検査 때 手数料를 申請人이 負担하는것 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신축住宅 담장에 鉄条網 못쳐

서울市는 建築条例를 一部 改正 앞으로 새로짓는 建物의 담장위에 철조망이나 유리조각을 設置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붕의 構造와 색깔도 旣存 住宅과 調和를 이루도록 市가 指 定할 수 있게했다.

市는 이와함께 이미 住宅이나建 物에 設置된 철조망이나 유리조각 도 撤去토록 所有主들에게 慫慂하 기로 했다.

시는 또 담장의 높이도 地域에 따라 規制할수 있도록 細部施行方案을 마련중인데 現在 市가 適正線으로 보고있는 담장의 높이는既存住宅街가 2 m以内, 新開発地는 $1 \sim 1.5 \text{ mol ph}$.

담장의 모양도 新開発地와 高速 道路辺에는 나무판자등으로 엮어 만든 透視型이나 樹林담장만을 許 容할 方針이다.

이밖에 住宅街의 造景을 促進하기 위해 造景義務面積(総垈地의10%)에는 坪当 높이 3m以上, 지름 5 cm以上의 나무 1그루씩을 심도록 義務化하고 이중 切半은 速成樹를 심도록 했다.

太陽熱이용 첫 国民校 개교

서울, 道成国民学校

最初의 太陽熱을 利用한 教室을 갖춘 서울江南구 道谷동 개나리아 파트団地内 道成国民学校가 8월24 일 開校했다.



에너지節約施策의 一環으로 学校媛房에 太陽熱을 利用한 서울市内 첫国校가된 이 学校는 全体教室 28개室충 教室9개室과 便所4棟 宿直室・養護室등5개管理室의

媛房과 溫水供給이 太陽熱에 의해 可能케 된것.

4 層建物 屋上에 設置된 84개의 集熱板을 利用,地下室의 蓄熱槽에 太陽熱을 誘導, 2천400屯의 뜨거 운 물을 貯蔵하는 집탕設備와 南 向教室窓을 通해 太陽熱을 蓄積, 自然代流에 의한 空気循環式으로 室内援房을 할 수 있게 한것.

総 4 억 1 천900余만원의 工事費 를 들여 昨年 9 월에 着工한 이工事 는 世宗建設에서 施工을 担当했다.

住銀 汝矣島에本店 新築

韓国住宅銀行은 地上下 19층 規 模의 超現代式本店建物을 市内永 登浦区 汝矣島洞에 建設 나.

建蔽率초과 용도 變更허용

서울市는 9월 10일 既存建築物의 用途變更基準을 緩和,이미 建築된 既存建築物로서 建蔽率이 超過된 경우,지금까지는 用途變更이 規制돼왔으나 앞으로는 72년12월 以前에 分割된 垈地에 지은 建築物에 대해서는 用途變更을 許容해주기로 했다.

市의 이같은 措置는 垈地最小面 積以上으로 分割하는 規定이 없었 던 지난 72년 12월 31일以前에 지 은 建築物中 垈地가 分割됨으로써 建蔽率이 超過된 경우 現行 垈地 面積最小限度 및 用途變更基準 에 는 맞지 않으나 當時에는 適法 하 게 垈地가 分割돼 竣工處理된 것 임을 勘案 된것이다.

"理想的包 住宅設計의 條件"

설계자세 / 방향 / 시공 · 감리 /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

다음은 住宅設計作品 特賴과 연관된 対談으로 이번 특집이 平面的인 誌上作品展만으로 그치지 않고, 実際 住居환경을 돌아보고 깊숙히 投影해 봄으로해서 보다 좋은 計設作品活動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生活환경 造成에 이바지 한다는 뜻에서 이외 관련된 特賴対談을 세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그 첫번째가 ①住宅設計의 諸問題点、두번째가② 아파트 건립 이대로가 좋은가, 세번째 ③ 住居環境 으로서의 住宅등으로 분류해서 設計者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共同住宅환경으로서의 아파트의 実相, 그리고 設計者와 使用者와의 대화를 통해 알 아보는 住宅의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方向設定에 촛점을 맞춰보았다.

이 対談를 위해 学界 官界 業界 그리고 실제로 作品활동을 하는 본회숲員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보다 立体的으로 住宅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밝 혀주셨다. / 편집자/



- □ 사회/安箕泰〈동화건축 대표, 본회 이사〉 □ 대담/俞景哲〈주·종합건축대표·본회회원〉 劉圭成〈범양종합건축대표·본회회원〉 洪淳寅〈대우건축대표·본회회원〉
- □ 일시/1981 · 8 · 29일/본회 회의실

□ 住宅은 사용자에 대한 愛情을 갖고 設計해야.

□ 安 住宅作品誌上展이라고도 할 수 있는 本誌 9月 등 特輯과 곁들여 주택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 기계으로 다루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하나로 住宅設計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方向을 우선 建築主의 문제 그리고 設計作業,

이야기의 기미을 우선 建築土의 문제 그리고 設計作業, 工事監理문제 또 그밖에 과정별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 지요. 먼저 홍순인씨부터…

□ 洪 먼저 설계작업에 있어서 建築主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인데, 제 경우에는 건축주를 「오너」 즉 돈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치않고 使用者로서 평 가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건축주를 최종 사용자로서 여기고 건축가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애정에 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좋은 設計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設計를 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전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건축가가 사용자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고, 애정이 결핍된 세계는 결국 좋은 作品이 될 수 없지요. 이것이 건축주에 대한 문제고 다음에는 주택설계에 관한건데, 住宅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곳에만 촛점을 맞춰 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후래시빌리티」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처음 설계를 할 때는 가족이 5명이었으나 그후 그 이상이 되었고 더 지난후에는 또 그이하로 사용인원이 줄었거든요. 이런 경우 설계를 변경해서 구조를 고치려고 해도 당초의 설계가 「후랙시빌리

티」라는 문제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 읍니다. 때문에 좀더 융통성있는 주택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安 홍순인씨의 주택에 관한 지론은 상당히 経験이 바탕이 되어서 얻은 결론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다음은 유 규성씨께서 말씀해주시죠.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특히 주택설계의 방향 같은것 말입니다.

□ 劉 우리나라 주택의 설계방향이라고 할까요ㅡ. 개 념이 옛날부터 사랑병을 위주로한 주택이 세워졌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쇼,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 돼서「리빙・룸」에다 거실을 만들어서 활용성이 적으면 서도 값있는 것들을 장식해놓고 단지 손님접대용 공간을 마들어 놓고 있어요. 또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생자으로는 이런것을 지양하고 제일 먼저 改 造되어야 하는 곳이 食堂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가 운데 가장 버림을 받고 있는곳이 식당아닙니까?구석진곳 에 배치돼서 밥만먹고 마는 그런곳으로 전략되고 있잖아

8.

식당은 온가족이 모일 수 있는곳으로 하나의 家族室로서의 이용될 수 있도록 🛭 제가 設計한곳은 앞쪽으로배치해봤읍니 다. 그 결과 모두 좋아 하더군요. 좋은 마당과 화단을 두고 뒷쪽으로 식당을돌 려놓을 필요가 없는거죠. 평수가 작아도 거실과 식당을 한 「홀」로 만들어서 처 리해봤읍니다. 활용가치가 더 있고, 主 婦들의 作業室로서의 구실도 큰 것 같 았음니다.

근본적으로 볼때 주택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현재 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갸족구성 인원도 길어 야 5년정도면 변하게 되고, 또 상품가치도 배계할 수 없 는거죠.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流行에 너 무 민갑해서는 곤란하고 內部나 外部장식도 하나의 통일 된「톤」이 있어서 나름대로 韓国的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경우 주택설계의 기본방향이라고 하겠 유니다.

□ 未来指向的인 設計가 필요

□ 安 네, 아주 의욕적인 주택설계방향을 말씀해 주 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홍순인씨와, 일맥상통하는 면이었 는것 같군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未来指向的이고 공 개념으로서 設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유경철 씨께서 다음 말씀을 해주시지요.

□俞 저는 時代的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우리가 실제 주택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60년대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전에

도 있었읍니다만…, 그당시 우리나라 주택상황은 60년대 후반의 월남전쟁과 관련해서 所有慾 또는 과시욕으로 해 저 그리고 外国文物의 무비판적인 수용태세에서생겨난것... 이 후래도슬라브 주택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이 없는 造形美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서민층에서는 최소한 의 생활공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택과 소주택의 거리감이 없지않아 있었읍니다.

그나움 1970년대인데 이때는 혼미한 시기였다고생각합 니다. 국적불명의 전축불이 나오고 치장하고, 또 소비가 미덕이었던 시절로서 건축계가 혼란했던 시기였읍니다. ^ 곁들여서 그 무렵에 아파트붐이 일기 시작한것도 같은 시 기였죠. 이럴때에 우리건축가가 설계자로서 정확한 자기 좌표를 가지고「오너」를 설득하고「비젼」을 제시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렇게 못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제 80년대의「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건축가로/ 과연 이래야만 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스스로 반성 했야하겠고, 건축주를 계도하고, 또 전통문제에 대해서 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같읍니다. 그래서 時代的인 배

> 🦥 경을 전반, 후반, 그리고 현실을 나누어 말씀드려 봤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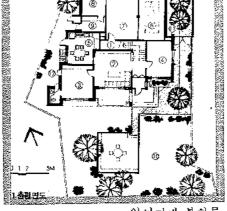
□ 安 유경철씨는 時代的으로 分析 해서 그동안의 경향을 발씀해 주셨음 니다. 그러면 주택설계에 있어서 어 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능면에 서 또는 외관면에서 과연 어떤 설계가 돼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읍니다. 아 울러 全体的인 면에서 주택과 환경의 - 조화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월여전에 본회를 방문한 대만건축사 일행가운데 젊은분이 우리나라 집단주택의 기와지붕에 원색칠한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칠해져 있는가, 그 까닭을 물어요. 어떤規制가 🦠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대답이 었읍니다만, 그 런건 아니고 하나의 유행같은 것이다.

다른집도 그러니까 그 옆집도 보기좋게 다른색으로 입힌 것이리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속 지만 국적불명의 건축물들, 주택들이 난립되고 있는 , 빨 아요. 또 상품으로서 주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설계자로서의 입장에서 이런 등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洪 잘못된 주지환경, 가능, 혹은 방향등을 바로잡 는것은 어려운것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쉬운면도 있 읍니다. 다른 商品(?) 과는 달라서 건축은 건축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해 도 결국 설계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축사들이 올바른 공개념과 「비젼」만 있다면 영동 뒷골목 의 해괴한 주택단지는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건축주들을 계몽해야겠고 건축사들의 자질이 _ 향



상된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비젼」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되는것은 일정 수준이하의 주택이 문제인 데, 예를들면 20坪이하의 주택이라든가 하는것 말인데요 이런것은 美国같은 나라도 마찬가지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은 전축사의 의도에 따라 세위지지만 그 이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전축사가 결국 하는일 인만큼 전축주를 설득, 계몽하고 스스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기능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능은 현실에 촛점을 맞춰 서는 곤란하다. 앞을 내다보고 유연성있게 설계되어야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관에 대해서는 기존주택군 (群), 환경에 대한 건축주나 설계자가 공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만 잘지으면 된다, 우리만 화려하게 만들어야겠다하는 철학은 곤란하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고 아직도 공동의식이 부족한것 같아요.

따라서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는 설계자의 자기철학과 건축주의 이해가 있다면 우리 주지 환경의 장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몽하는 것과 자질향상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劉 外觀문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주택외관에 어떤 연관이 있는것 같아요. 예를들면 청기와가 예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이다. 하니까 오늘날에 와서고 주택에 맞든 안맞든 청기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지어 놓으니까 저게좋다. 너도나도 모두 그렇게 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주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방을 해도 규모있는 모방, 조화있는 모조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 否定的으로만 볼 수 없어

□ 前 두분께서 말씀하신것이 연관되는 말씀이신데… 저는 부정적이나 비관적인 방향에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현재로 나누어 말씀드렸는데 전반기에 지었던 집 들이 근대에 와서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필요이 상으로 크거나 와우아파트 같이 적거나 해서 도시계획적 인 측면에서도 헐어버리는게 좋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결 국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전반기의 집들이 말 입니다. 문제는 후반기의 집들이 문제인데 색상이나 형 태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부만응이 나오고 있어요. 또 농촌의 개량주택이라는 것도 좋은점도 있지 난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 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부터 우리 건축사들이 이런것들 을 바탕으로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싯점에 와있다고 할수있지 않은가하는 겁니다. □ 安 상당히 개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젠가 유경철씨하고 새마을 시찰을 초청받아서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법개량주택을 봤어요.. 한데 주택이 그렇게 크고 한것이 과연 합당한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즉석에서 유경철씨가 평면과 지붕모양을 스켓치 해서 이런것이 진정한 주택의 개념이지 크고 호화스러운 것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그곳 군수에게 설명하는것을 들은바가 있음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읍니다만, 주택에 있어서의 단위면적문제 즉, 1인당 주거면적이 과연얼마면 적당한가 하는 겁니다. 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洪 자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주택의 1인당 주거면 적이 2.5평으로 되어있죠. 그러나 평수의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큰집을 짓고자하는 사람의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획정리를 하는 관청도 그 지역에는 어 떤 규모의 집이 들어와야 한다는 기본구상을 해야할 줄 압니다. 다른 집은 다 작은데 어느집만 필요이상으로 크 다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점은 의식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文物은 급속하게 변화했으나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설계에 있어서도 現实과 의식구조의 상충현상이 간혹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백설계도 전통적인 생활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같은것도 참조해서 우리고 유의 전통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劉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은 現実性에 따른 주거환경, 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적불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현실에 따르다 보면 어쩔수 없는 겁니다.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 안방만으로는 안돼서 식당을 만들고, 화장실을 마련하고, 또 거실도 만드는거지 우리의 전통의식구조만을 따라 그것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상품적 가치성도 가미해서 설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호화주택등으로 해서 계층간 의 위화감조성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이런것들은 건축 사들이 막아야하고 또 하나의 과업으로 생각해야될 겁니다.

□ 俞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설계의 기본방향은 과거에는 과시적인 것에서 오늘날에는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알맞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역시 변화의 요인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를 생각할때 제자신은 퍽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사람들도 공동의식이 높아지고 자기가 아닌 우리, 全体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겨깁니

다.

□ 安 그러면 앞으로의 設計方向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우리자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 前 제가 70년대초에 UIA총회에 참석한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당신이 살집을 지어봤느냐해요. 그래서 못지어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그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말이 맞아요 전축가의 책임도 스스로 살집을 지어보고 몸소 체득하므로서 느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전축수에 대한 전축가의 책임, 그리고 자기 作品에 대한 책임외식 같은것 발입니다.

□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

□洪 그분이 참 좋은 질문을 한것같읍니다. 건축가 스스로가 살집을 지어보았느냐하는 질문말이에요. 아주 섬 딱하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생 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활을 알아 야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집을 손수 짓고 살아봐야 한다는것은 생활을 아는 가장 적합한 방 법이 되겠죠.

사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감리를 해서 건축주가 입 주하면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 한 책임은 그후부터 책임질것이 더 많아요. 주택이 생활 을 구속하는, 즉 옷이 제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부자유스러우면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담는 그릇 은 생활을 아는 자가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책임을 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 집을 지어봐야 경제적인 면도 생 각하게 되거든요. 우리집을 지을 때 자재에 대한 경제성 을 퍽 많이 생각해서 설계를 한일이 있옵니다. 생활을 안 다는 외미라고 할까요.

□劉 저는 설계방향이라는 점에서 住宅의 規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택도 젊었을때, 중년때, 그리고 노년때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여전에 따라 어느 수준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이겠지만 국민주택같이 일률적으로 15평형 20평형식으로만 못박는것 말고 말입니다.

□ 安 그러면,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앞으로의 실제적인 설계방향에 대해서 유경철씨가 말씀 쫌 해주시지요.□ 俞 이미 주택의 기업화, 즉 업자가 대단위로 주택

의 세우는 시대에 와 있잖아요. 따라서 건축사들이 좀더 이부분에 손을 대서 나름대로 개연성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모방등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들이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돼야 하겠웁니다.

□安 실제적인 설계방향에 대한 말씀보다 개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모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건축자체가 모방의 반복이고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해요. 물론 창작이라는 개념상의 문제이겠지만 -. 이런 것은 건축뿐만 아니지만 말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모 방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 前 제 애기는 소위 철학이 결여된 유행건축가는 곤 란하다 이거죠. 재미있는 예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다 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집 할머니가 현관을 찾아나오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되 소화하고 받아드려 야 한다는 뜻이죠.

□安 비, 건축주도 문제이지만 건축사도 자기파시적 인 설계는 지양해야죠. 설계방향이라고 해서 평면 입면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꼬집어 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념 을 놓고 얘기하는것도 좋을 것같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 를 이끌어왔읍니다. 여러가지 좋은 발씀이 있었읍니다.다 음에는 施工과 監理에 관해 말씀을 나눠 주시죠.

□洪 施工에 관한 얘기인데, 전체주택에서 소위 작품이라고 꼽히는 주택은 1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속칭 "집 장사"가 지어파는 집이거든요. 이런집들의 監理는 거의 형식적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것을 어가지 않았나 정도만 보거든요. 이런것도 좀더 규정화해서 색깔이라든가 형태도 건축사들이 설계한대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집장사를 이무나 할 수 없게해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질이 높아질 줄 압니다. 그런 방법같은것은 없을까 생각되는군요.

□ 劉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것 같군요.

□安 네, 어렵죠.

□ 劉 왜그러냐하면 건축주자신들도 시공면에 임하게 되면 Cost문제인데, 집장사들은 같은 값이면 싼값에하려 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사람 이 관계되서 좌우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정' 도는 그런면도 있겠지만….

□ 質이나쁜 住宅 발못붙여

□ 俞 두분말씀 모두 좋으신 말씀인데, GNP가 높아 짐에 따라 소위 집장사 집 같은것은 발을 붙여지 못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천불시대로 접어들면 집장사 가 부지할 기반이 없어질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집장사가 없어졌어요. 수주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형적인 주택들이 왜 나왔느냐할것 같으면 다음에 얘기 가 나오겠지만 현행법상의 제반문제와도 깊은 연판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현실에 맞는 법개정등으로 고쳐나가면 올바른 주택이 세워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安 시공감리와 연관해서 집장사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장사의 개념은 개인 집장사에 한해서 겠죠. 때문에 이들의 존속여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될것 같고 따라서 이들이 짓는 집에 따른 시공 감리상의 제문제에 대해 말씀을….

□ 俞 네, 집장사와 연관돼서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하면 제가 집을 설계하고 감리한일이 있는데 그집이 1년도 못가서 물이새거든요. 이런것은 감리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읍니까. 그런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거든요. 이런것은 바로잡아야 될 줄 믿어요.

□劉 국민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것 같아요. 국민수준이, 특히 시공면에 있어 볼줄이는 수준이 높아지면 질이 낮은 집장사 집은 발붙일 수 없는 거겠죠. 요즘은 집장사 집도 예전하고 같지않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 安 주택시공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장사 타령(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곁들여서 주택파 관계되는 행정상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現実에 맞는 주택행정돼야

□劉 주택과 관계되는 행정, 문제가 많습니다. 준공과정 뿐만아니라 허가가 들어갈때부터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요즘 통신설비허가필증이라게 있는데 이런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또 하루 이들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수도 준공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소위 눈가리고 아용하는식으로 처리되기 쉽거든요. 정화조 필증도 같은데 그 자체는 좋은데, 사실은 대장균이 죽느냐 하는게 문제겨든요. 한데 단지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하려면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시멘트제품판매확인증인가 하는것도 왜 필요한지모 르겠어요~. 행정의 간소화라는 축면에서도 이런것은 다 론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洪 제 경우는 조금 意見을 달리합니다. 그런것들이 번거롭기는 해도 필요성은 있다는 겨죠. 문제는 행정관 네에서 그런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만큼 단자시설을 잘 하고 하수도를 제대로 묻고 또 정화조를 설치하면 좋겠 는데, 즉 상식적인 것이 제대로 이행되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것도 어쩔 수 없이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는 필요한것이 라고 여깁니다. 수준이 信用社会가 되면 이런제도는 저 절로 없어지겠죠.

□ 前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개연성을 갖고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혹은 예규 같은것 중에는 실 세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속박을 받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一例로서 허가보다 한평이 증축되면 건축사는 몇개월 정지다. 두평이 넘으면 몇년이다. 더 심하면 아주 폐업이다. 하는 것들은 지켜질수 없는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들이 건축사에게만 저축이되는 겁니다. 건축주에게는 아주 관대하거든요. 사실은 하수도 상수도, 배전같은 것들은 건축주가 어거려고 하는데 실제로 건축주를 처벌하는에는 없어요. 막연하게 3백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는 식이 거든요. 한데 아직 하찮은 주택에 있어 건축주를 처벌했다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애매하게 감리도장찍어준 전축사만 다치지 않습니까는, 차제에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 劉 그보다 먼저, 합동아니면 허가 낼 수 없다는 세계에도 없는 제도부터….

□ 俞 네, 말도안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선결문제 죠. 어디 나가서 챙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 형식적인 제도 빠른 개선 필요.

□ 洪 형식에 치우친 제도의 모순입니다.

□安 이렇게도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당국에서는 기준을 정해 줬는데 이걸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력 이 잘미칠수 있는 건축사를 처벌하는…. 또 우리스스로에 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법이생긴거라고 여깁니다. 반성할점이 있는 거라고….

□ 俞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담을 높이쌓았다고해서 왜 건축사를 처벌하느 냐 하는겁니다. 건축사가 그렇게 설계해줬을라도 없고그 건 건축주가 한건데…. 건축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상자 제가 문제라 이겁니다. 건축주를 처벌해야죠.

□洪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곁에 있던 예방을 위한 교통순경에게는 책임은 안물잖아요. 우리 경우도 건축주의 행위는 사실 건축사와는 별개 문제인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게 모순입니다.

□ 俞 공공의 질서를 파괴한 가해자는 건축주니까 당연히 책임도 건축주에게 물어야 하는데 건축사에게 책임이 전가돼서 처벌을 받거든요.

□ 安 방관한 책임은 있는거 아닙니까?

□ 洪 그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정도지 형사적인 책임 까지는 곤란한거죠.

□ 俞 그래서 책임의 限界 처벌대상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든 다음에 보다 발전적 으로 갑리공단이라든가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 洪 이런 대화기회가 더 많아서 우리끼리 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눠 어떤 문제해결과 나아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기회마련이 필요한것 같읍니다.

□ 安 오랜시간 좋은 말씀고맙습니다. 오늘의 대담이 본지 주택특집과 연관이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과트/연립주택 건립

/ 도입과정 / 주거환경 / 설계계획 / 그 방향 등 /



참석자

- □ 사회/黄一仁〈환경종합연구소 일건 대표·본지편찬위원〉
- □ 대담 /張起仁〈삼성건축대표 · 본회회원〉

/金錫澈〈김석철건축연구소대표·본회회원〉 /池 淳〈일양건축연구소 대표〉 /朴洋右〈주택공사 기술개발담당이사〉 /趙建鎬〈한양주택 건축담당이사〉

□ 일시/1981. 9. 일/본회회의실

□ 1920년대에 첫 아파트 건립

□ 黄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거방식인 아파트 후은 연립주택이 도입된 역사는 매우 짧은데 비하여 도시형주 거의 한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도입되고 개발된 연혁부터 말씀해 주시죠.

·□張 아파트가 세워지기는 일체시대부터 있었죠. 일 본인들이 살던 2, 3층짜리 아파트인결로 아는데…

아뭏든 우리나라에는 60년대부터인가 서울시에서 대량으로 건립했었죠. 그러나 설계나 계획면에서 실패작을 벗어나지 못한걸로 생각합니다. 그후에 자재나 기술면에서 크게 발전된 본격적인 아파트가 건립된 걸로 알고있읍니다.

□ 黄 들이켜보면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근 대아파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에서 보듯이 官 특히, 住公에서 주도해 나갔죠. ?

□ 朴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1920년부터 日人들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1941년경에 처음으로 충정로에 세워졌읍니다. 풍전아파트라고…. 그후 50년초에 지금의 서린호텔 자리에 서린아파트 가 있었고 그후 57년에는 중앙산업이 짓다가 그만둔것을 주택공사가 받아 분양한 종암아파트가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지 계획이나 규모에 있어서 근대적 외미의 아파트로 건립된것이 마포야파트죠.

대체로 보면 60년대는 주로 단독주택건설에 치중했고, 60년대 후반기부터 아파트, 연립주택이 세워졌으나 개념 도입단계에 불과했고, 70년대에 이르려 본격적인 설립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이무렵은 어디까지나 서구식 개념의 고층아파트를 본뜬정도라는게 한가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이제 80년대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고 본격적인 정착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 黄 70년대 부동산 투기의 선도 역할을 한 아파트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거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궁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공동주거방식이 생활을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파트건립의 타당성이 있다면 이면것이 되겠읍니까?

□ 생활형태의 변화에서 아파트 생겨나

□ 張 단적으로 말해서 생활형태가 아파트같은 규격화된 생활공간만으로도 가능해졌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즉 요즈음 일컫는 핵가족화라는 것이 아파트같은 공동 주거 환경에 적응할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먼저 얘기돼야 할 점은 건축공법면에서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당히 발전된 면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건설기술면을 말씀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 趙 施工기 含도 60 年代、70年代、80年代 로 구분해 서 생각할 수 있는데, 60년대는 다분히 수공업적인 건설 기술이었읍니다만 70년대로 들어오면서 해외건설에서 이 한 기술등으로 많은 성장을 한것이 사실이지요. 아파트가 점차 대량공급이 가능한것도 이러한 기술 개발 덕분이라 할 수도 있읍니다.

□ 黄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주택 부족율이 높 아 주택의 대량공급을 필요로하는 형편에서는 아파트의 건립이 불가피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체주 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 차 기획원집계에 의하면 전국주택수는 5백50만호 가 됩니다. 그중에 서울이 1백만, 지방은 450만 입니다. 이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58만가구가 되는데 전 체 주택의 10.6%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연립주택보다 아 파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편이죠.

에 무려 두배가량이 늘어난 셈입니다.

□ 黄 이런 추세로 볼때 5차5개 년 계획기간동안 정부가 목표하고 있 는 1백50만호의 주택중 아파트가 차 지하는 비율은 매우 클것으로 쉽게 예 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파트가 우리 의 주거생활에 차지하는 영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에도 잠실지역 한곳에만도 실로 10 여만 인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아파트가 좋은

주거환경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명제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실상은 어 떠하지 부터….

□ 金 그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저배적인 주거환경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게 참 신통해요. 불 과 20여년의 짧은 기간에 말입니다.

아파트생활 이후에 식당이나 화장실등 일부시설 - 외에 - 는 주거지역의 적절한 배분이라는 면에서는 전혀 개선되 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의 단독주택단지 같은것은 모 시의 지역간 배분이 어느정도 유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 나 아파트가 단지화되면서 부터는 도시의 형성이나 마을 의 형성과 연관된 발전이 아니고 특정계충들이 자기들의 울타리를 나가서 만든 결과가 되었다는 겨죠.

말하자면 주거라는 문제가 좀더 복합적인 관점에서 계 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 朴 아파트는 대도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중소도시 에 있는 주거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성이 사

실 어렵죠. 다만 아파트는 경제활동때문에 도시에 집약 되고 있는것 같아요.

□ 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아파트로 인한 사회문제 생각할 때

□ 池 현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파 트에 사는 이유의 첫째가 재산적인 가치, 순환성이 빠르 다는 점에서고 다음이 주거 관리가 쉽다는 점인데 역시 재산가치로서 아파트를 찾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무슨 아파트에 산다는게 하 나의 자랑거리거든요. 또 아동에 미치는 아파트단지내의 교육적인 영향도 큰 문제인것 같아요. 이런것이 주거환 경으로서의 아파트를 얘기할 때 대무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발 어떤 계층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 이같은 비중은 지난 75년의 5.4%에 비하면 약5년동안 다. 왜 50평단지 60평단지 같은 울타리를 만드는냐 하는 겁니다. 다만 유니트를 다양화해서 재료를 개발하고 방

> 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방을 많이 이 용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거죠. 구 조나 공법,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고생 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말하는 것을 보 면 적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은 말을 안 하고 큰 평수에 사는 아이들은 자랑스 럽게 말을 한답니다. 교육적으로 큰 문 제고 사회문제입니다. 그러것을 너무 🧱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 張 저는 긴 안목에서 보면 잠실 아파트같은것을 저 렇게 세워놓은 것이 안타까워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 . 결하려는지…. 주거가 펀리한 지역에 세워야지요. 인구소 산책으로도 성공하지 못한것 같아요.

□ 池 그래서 플레닝에서 깊은 문제까지 다뤄져야 합 니다.

□ 黄 그렇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계획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읍니다. 현재의 아 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이 마스터플랜 상의 문제라 고 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독립주 택과 달리 대량공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지 의 계획이나 기술개발에 있어 신중히 대처해 가야 할 것 입니다.

□ 趙 문제는 현재의 아파트가 외국의 것을 본뜬것이 - 지 순수한 의미의 한국형아파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는 한국형, 즉 한국에 맞는 아파트 개발이 있어야할



줄 믿고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자재면에서 메이커들의 연구생산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구태여 외국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은것 같아요. 이런점을 바로 잡아야만이 施工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좀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池 개개의 건축가의 역할이 불론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더욱 많읍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住公같은데서 규격화 같은것, 즉 방의 크기라든가 스페이스의 규격화 같은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工振庁에서 자재의 표준화같은것은 시도하고 있는줄은 알지만 좀더 나가서 전체 공간의 규격화 같은것은 주공에서 시도해서 민간업체도 보조를 맞추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 차 주공에서는 표준설제도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창호부분 같은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내년 부터는 설계도서를 바꿉니다. 모듈에 입각해서….

아마 내년 7월부터는 일반업체에서도 표준화에 따라 시공토록 의무화 할 것 같읍니다.

□ 새로운 기술・설계등 보편화돼야

- □ 趙 그전 건설부에서 나온게 있죠. 모듈화된 창호 라든가 계단폭이라든가….
- □ 池 저도 나온 줄은 알고 있고 또 봤읍니다. 문제는 주공 같은데서 그런것이 보편화되도록 리드해야 된다는 거죠. 앞장서서 말입니다.
- □ 黄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의 프로 토타입을 주공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공의 영향이 이점에서는 그렇게 크고 따라서 책임도 크다 고 하겠음니다.
- □ 차 그런데 표준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표준 설계도서 같은것을 주공에서 설제해서 보급해 봤읍니다만 거기에 따라 오지 않아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 □ 張 그게 이유가 있어요. 관계 부처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그런것을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이득이되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를 않아요. 메이커의 인석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연구가 좀 부족한것같고, 규격화는 누구나 생자하고 있는 문제고 또 그렇게되어야 빨리 시공이 되고 경제적이고 관리가 편리해진다는….
- □池 제가 규격화와 한국형이 왜빨리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것에 대한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대학 식당에서 그 시설을 모두 외국에서 가져다가 설치해 놨어요. 싱크대라든가 그 높이도 문헌에 나온대로 설치했는데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게 더 능률적이거든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요. 즉 한국적차원에서 연구를 안하고 그냥 들여다 놓으니까, 외래문화와 우리의 실정을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를 안한 결과죠. 그런 면에서의 깊은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지 흉내만 내면서 개선이란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張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어떻게 쉬느냐고 물으니까 나와서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데도 나오면 되겠느냐 의자를 놓으라고 하면 놓을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적 실정에 맞는 규격화가 돼야 합니다.

□ 池 또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나라 음식은 고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용량이 큰 환풍기 설치 같은것이 있거나 또는 설계상에 변화를 줘야하는데도 모두 오픈·시스템이거든요. 맞지않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들이 아직 판단력이 없는것 같아요. 저희가 시판되는 부엌기구 즉, 싱크대나 그밖에 기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은 가정부가 하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못사는 사람은 그런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고, 중간층은 어렵게 살다가 잘사니까 판단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읍니다. 어느정도 가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리드해 줘야 환경이 좋아자는 겁니다.

주공같은데서는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같은것을 하고 있읍니까? 조사보고서 같은것 말입니다.

□ 朴 매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 ○읍니다. 입주전과 후,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경우등을 조 사해서 반영하죠.

□ 池 매우 고무적인 말씀이군요. 저도 많은 조사를 해서 알 수 있읍니다만 포인트는 조사대상자가 장단점을 쉽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것을 예측해서 실제 설계에 반 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둘자면 외국의 빌딩을 보면 비상시 불이꺼졌을때 프리즘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계단이 보이게끔 장치를 해놨거든요. 이런것은 아파트입주(*)들이 모르지만 설계자가 이런것도 감안해서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공같은데서는 아파트같은 것의 선두주자고 리드해 가니까 이런식의 방향제시를 해야 할 겁니다.

□ 朴 동감입니다. 주공뿐아니고 설계하는 사람 둘이 이런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하겠고, 따라서 건축가의 자질이 문제가 되겠죠.

□ 黄 여러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읍니다. 이런문 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입니다. 다 만 좀더 범위를 좁혀서 건축가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도 개 선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런것부터라도 고쳐나가도록해 야겠읍니다.

□張 그런점에서 여러 건축가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요. 제가사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우선 현관이 어둡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유리벽돌이라도 한장끼워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화장실도 간단히 손을 씻으려고 해도 어두워서 꼭 불을켜야 되거든요. 다용도실도 그렇고, 베란다도 좀더 커야겠다는거죠. 왜 배치를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칭만 붙여 놓았지 사실상 이용도가 없어요. 연구가 돼야겠어요.

□ 차 한데, 공동주택이라는게, 그 특질이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꼭 장선 생님 말씀에 반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웃음)

□ 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러한 결함을 안고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저러한 모델들로 아파트를 짓고 살아본결과 어떤것이 좋았다 하는 결론을 얻은후에 보편화하는기 본자세가 되어야하겠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좀더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는것 같아요. 문에다는 고리도 달아줬으면 좋겠고, 철문에 유리 부럭을 넣어주면 좀 입주자가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것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 趙 그런데 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리부터을 해 주면 그만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말입니다. 그점을 또 생각하지 않을수 없거든요.

□ 좋은 집 짓는 것이 건축사의 목적

□ 張 역시 시공자는 돈부터 따지는군요···(웃음) 소비자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유리부력을 사용함으로해 서 좋아진다면 값이 비싸도 삽니다.

전축가의 역할이 자기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 기좋은 집을 만들어주는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하 나 두드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면에서 이것 은 이렇게 해야한다는 착안은 하셔야 합니다. 고쳐지든 고쳐지든…. 우리는 기성복을 입는 입장과 같으니까 말 입니다. 설계면에서 좀더 스터더를 해나가야 돼요. 하긴 10년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졌읍니다만 이제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池 제가 참고될만한 것을 말씀드리죠.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공동으로 쓸수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더 군요. 공용으로 이용할수 있는 부엌시설이 달린 큰방이나 공동목욕탕, 혹은 공동세탁장 같은 것 말입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공용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공동주택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생각인것으로받아들여야 할 줄 입니다.

□ 많은 설계상의 모순점 개선해서 정리해야

□ 趙 비 좋은 아이디어군요 필요하겠죠.

□ 차 한편으로 보면 우리주부들이 생활형편보다 생각이 앞서있는것 같아요. 그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앞서 생각하고 요구하는 면이 있읍니다. 앞으로 차차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 黄 좋은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사고방법과 아파트에서와 같은 새로운 생활양식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인것 같군요. 이런것을 해결하고 80년대에 한국적인 아파트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건축가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겠군요.

그런점에서 아파트설계에 건축가로써 직접 참여하고 계 신 김석철씨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죠.

□金 여러가지점을 잡안해서 볼때 사실은 고층 아파트보다 연립주택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알맞는 주거형식인것 같아요. 택지라는가 그밖에 점을 고려해 볼때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립주택이 도입에서 부터 잘못 인식되었지만 사실은 가장 적합한 주거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법규나 제도적인 장애요소가 너무많읍니다. 나는 왜 연립주택의 인동간격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주택관계법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나친것 같읍니다. 좋은주거환경은 뭐니뭐니해도 주택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이 가장중요한 문제지요.

□ 黄 비, 지금까지 아파트의 도입과정부터 앞으로의 방향동 다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대 담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으로 아파트가 정착되어서 우리 외 주생활이 발전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isc # water action

設計者와 使用者와의 이야기/



/ 참석자 /

- □ 사회 / 張錫雄(이도무건축대표・본회회원)
- □ 대담 / 金奉勲〈신신건축연구소대표·본회회원〉
 - / 黄寅善〈주부교실조직부장・주부〉
 - / 郭靜子〈주부교실 소비자부장・주부〉
- □ 일시 / 1981. 9. 4일 / 본회 회의실

□ 건축사에 대한 신뢰가 좋은집 만들어

- □ 張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単独住宅이 주거환경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設計面에서부터 施工, 그리고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주택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또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의 입장에서 밝혀내어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대답을 나눠볼까 합니다특히 두분께서는 主婦로서 더욱 주택에 대한 여러가지면을 알고, 느끼고 계실텐데….
- . □ 郭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고하면, 본인이 직접공사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업자에게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자재선택같은 것이 특히 심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힘이 훨씬 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할까요….
- □ 張 집을 짓는다고하는것은 개인으로서는 役事가아 닙니까?그러한 役事를 만족스럽게 맺음을 하기 위해서

는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상어 렵거든요. 설계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공 을 하는 업자도 마찬가지며, 또 건축주인 입주자도 어려 움이 많게 마련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이 전문가에 의해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해서 하나의 집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歷史는 그리 오래된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건 사실이고 그가운데서 불량 설계 불량 시공으로 인하여 일반의 인식이 안좋았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되겠죠.

□ 숲 집을 짓는데에는 순서가 있읍니다. 즉 과정이라고 하겠는데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택해서 설계를 하게됩니다. 건축사는 건축주가 원하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설계를 하게되고 일단 설계가 끝나면 건축허가 과정을 거쳐서 시공에 들어가는거죠. 이때 건축사는 물론 공사감리도하게 되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 준공 절차를 밟아둥기를 내고 그리고 입주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건축주가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때 비로소 좋은 주택이 세워지는 겁니다. 돈도 적게들고요. 건축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고해도 만족한 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 黄 건축주의 입장에서 볼때 집을 짓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퍽 당황하게 되는데…

□ 金 그전 설계할 때 단계별로 건축, 전기, 위생, 난 방 조경등으로 나누어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전적을 하여 공사를 하게되면 그런일이 있을수 없죠. 그러나 공사중에 자재를 다른것으로 바꾼다거나 간막이를 바꾼다거나, 금액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기능적인 개성을 갖춰야 좋은집

□ 黄 또 짓고 살다보면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발견되는데 특히 하수도 문제라든가 방수, 보온문제등이 주부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꼽합니다.

□ 張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돈만 많이 들인다고 좋은집이 되는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값비싼 위생 시설이나 난방, 전기시설보다는 주택의 기능적인 부분에 좀더치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유행에 따라 집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견한 소치에서 비롯된거죠. 누구네 집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집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주택에도 나름대로 기능적인 개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즉 주위환경이라든가 거주인원에 따른 구조상의 문제, 또는 필요에 의한 배치상의 변화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그런것들이 주택의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개성을 살린 설계에 의해 하나의 집이 지어져야 하지 단순히 유행에 따라 집을 짓게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집이 되고 맙니 다.

□ 郭 理想的인 주택이란것이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배치면에서 좀더 이런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집을 예로 말씁드리면 위치라는가 주위환경은 퍽 좋은편인데 설계가 안좋은것 같아요. 특히 필요이상으로 방이 많다는가 하다못해 출입문을 잘못 달았기 때문에 사용상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드군요.

□ 미래지향적인 주택설계 필요

□ 숲 남이 지어놓은 집을 매입해서 그냥사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예가 흔히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아니라 직접지어서 살다가도 이런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수도 많아요

그만큼 단독주택이란 어떤면에서 가장 작은단위의 전축물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대형건축물보다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워요.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자기것이라는 재산으로서의 가치성 때문이기도 하겠죠.

때문에 집을 지을 당시의 여러조건, 특히 입주자의 가 죽수나 또는 경제적인 여전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 게되면 불과얼마를 못가서 불편한점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가족구성인원은 5년정도를 주기로해서 변화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어린애가 성장해서 독립된 방을 요구한다거나 그밖에 가구사용정도가 달라졌을때 5년전의 그것으로 충당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고 건축주는 그런점에이해하고 건축사의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 黄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붐을 타 기전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곳곳에 단지가 생겨서 주거환경이 새모습을 보이게 됐고, 소위 문화주택이란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알고있고, 제 경우에도 그런 주택에서 살아본 일이 있는데, 지금도 없는전아니지만 그 무렵에는 특히 집장사들이 많아서 그들이 量産해 내는 집은 대개 불량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겉은 번드레 하지만 실상은 날림집으로 입주자가 골탕을 먹는 경우가 퍽 많았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집들 때문에 그 주면의 집도 같은 취급을 당해 집값이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않아요. 즉 주거환경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할까요….

□張 네, 그런것으로 해서 사회문제화된 예도 있었죠. 볼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었읍니다. 제도적인 미비점을 이용해서 그런집을 짓기도 했고 또 위법으로 짓기도해서 건축풍토를 어지럽혔던 때 가 있었죠.

그런집은 사지를 말아야 하는데 건축물의 좋고 나쁨을 잘 몰라서 속아사는 예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투기로 매입할 경우도 많았죠. 문제는 집을 구입하는데는 주거환경과 사용상의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를 잘 살펴서, 특히 주부들이 늘 활동하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간혹 기능적인 면에서 動線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의 배치로주부들로 하여금 필요이상의 육체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엌배치를 잘못해 놓았다가나 거실이 통로가 되도록 해놓은 예가 있거든요. 당장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사용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韓屋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과 방사이에 대청이 있어서 대청이 한낱 통로구실을 한다거나 사랑방을 가려면 마당을 지나서 가는, 기능적인 動線이 고려되지못하는 예라고 할수 있음니다.

근래에 와서는 주택설계면에서, 환경조성면에서 바람직한 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아직도 집장사 스타일의 집 즉, 外華内貧한 집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건축주의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생활의 容器라는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 사들에 의해 지어져야 올바른 주택이 된다고 믿습니다.

□ 人本中心의 주거환 경이 중요

□郭 주위분들이나 친지들 가운데도 그런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있는 분들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밖에 여전을 감안한 주택을 짓고 정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택이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곳에서 오래산다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없어요. 단지경제적인가치면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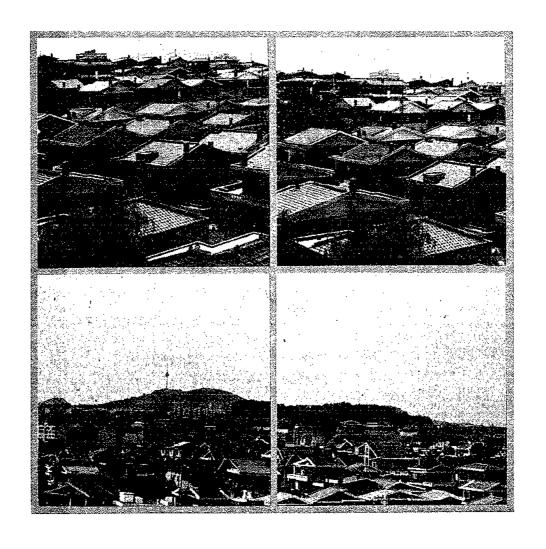
주거환경이라는것이 단순히 집이 놓여있는 주변, 즉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는 인간중심의 환경이래야만이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집이 세워져야 합것으로….

□ 金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적인 면에서 內的기조를 人本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는 기법이 깊이 연구되고있고 실제로 그런 집을 짓고 있읍니다. 흔히보면 우리 나라의 주택들의 담장이 무척 높아요. 이런것이 이웃과의 단절을 유발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이런것은 많이 고쳐지고는 있으나 건축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압적으로 대문을 거창하게 만든다거나 집 전면을 필 요이상으로 장식하는 건축양식은 어떤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해서 살벌한 주거환경을 조장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아성을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웃과의 코뮤니케이션을 통한 주거환경의 정서화에 힘쓰는 것이 현대 주거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 임을 인식해야 할줄 압니다. 주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 黄 동감입니다.

□ 張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편한생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상적인 주거환경이란것도 불편없이 살수있는 집,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있는 이상 좀더 기능적이고 아름다움이 가미된 주택을 만드는데는 설계자와 건축주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같이 힘을 합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긴시간 좋은 말씀고맙습니다.



오늘의建築에 対한 建築士의責任

韓 奎 峯 (建設部 建築擔當官)

期間 通卷 148號을 내는 동안 內容의 忠實을 거듭해온 "建築士"가 建築學術誌로 한결음 더 발돋움하면서 이번號를 住宅特轉으로 만든다는데 크나큰 意義를 가지며, 때문에 建築에 対한 대단한 哲學이나 識見이 없으면서도 펜을 잡게 된 것이다.

建築物을 設計하는 사람을 그가 設計한 建物의 規模나 週辺에서 받는 評에 따라 "家"와 "士"로 屬分하기도 하고, 建築에 対한 修學의 程度와 現在 몸담고 있는 職場等을 基 準으로 삼아 "建築家아무개" "아무개建築士"로 區分하여 呼稱하는 것을 종종 들게 된다. 이처럼하여 建築家로 自 處하거나 呼稱받는 사람이 建築設計事務所를 開設하여 建 築設計를 業으로 하게되면 建築家+建築士로서, 建築家의 待接을 극구(?)마다하는 建築士는 建築士만의 立場에서, 後進을 養成하는 敎育者의 施工規場에서 建築을 마무리하 는 建築技術者는 各各 그 立場에서 建築에 關聯된 諸般事 項들에 対하여 그때 그때 自身에게 便利하고 有利한 立場 올 말하고 또 서로를 욕하거나 칭찬하기도 하지만 社會의 一角에서 말하는 오늘의 우리建築에 対한 責任은 法에서 "建築設計를 營業으로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者"를 줄여 서 이름붙여진 建築士나 어느 特定 階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建築設計事務所를 開設한 建築士協會會員만의 責 任은 더더욱 아니다.

建築徒를 指導하면서 學門的 研究의 先奉에 선 教授로부터 建築設計者·監理者 및 施工技術者 特히 빠져서는 안될 筆者와 같은 公職者 等 오늘에 살면서 建築分野에從事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建築에 対한 責任은 그 先後를가릴 수 없을만치 누구에게나 重大한 것이지만 하늘과 바다 그리고 後方砲台의 支援을 받으며 高地를 占領 하려는 作戰의 成敗에 対한 功過가 一線業務指揮官에게 돌아가듯이 建築에서도 一次的인 功過는 建築士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建築이 發展된 面을 이야기하면서 稱讚할 때에는 그 功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욕을 하게될 경우에 限해서 建築士를 들먹이는 世習에 直面하여 씁쓸 함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허나 過去와 現在의 建築教育이 어떻고, 一線建築 士를 보는 社會의 偏見, 建築關係法令이 어떻고간에 建築士 個 個人 더 나아가 모두의 責任과 걸어온 過去 그리고 現在 의 마음 가짐 等에 對하여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公職에 몸닫고 있으면서, 더욱이 法令이나 規定을 制定하는데 關與하면서 建築士의 活動을 制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고 筆者를 指目하는 분들이 많은텐데…, 이런 處地이긴 하지만 公職者보서가 아니라 나自身도 같은 길을 걷는 立場에서 建築을 생각해 보고 곁들려 몸담고 있는 職業上의 辯도 보탤까한다.

一部 国民들이 불품없이 建築된 建物이나 내 天地인양 法을 어기고 지어진 建築物을 탓하면서 응당 建築士 아무개建築士라고 指稱하는 경우도 그리 흔치 않다) 를 끌어들이며, 政府가 建築에 閔斯된 制度나 法令의 改善方案을 検討하면서도 一部 建築士의 잘못이나 마음 가짐을 가운데 놓고 拳論하게 되는게 常例이다.

그 理由는 무엇이며 果然 모든 建築士가 이와같은 非離 의 対象이 될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것일까?

解答은 簡單한것 같다. 그 原因들이 될만한 處事가 一部에依해서自身도 모르는 사이이거나 故意的 傍觀狀態 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建築文化・技術의 發展에 寄與하려는 内心에서의 努力이 多少(?) 不足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적지않게 많은 분들이 이에 反對論을 펼것이며 筆者 또한 이에 同意한다. 다만, "先生님처럼만 하신다면 무슨 問題가 있겠습니까?"라는 條件附同意이다.

"建築士"誌가 特輯編輯方式으로 転換하면서 그 첫 號를 住宅特輯으로 計劃하는 것이 뜻하듯이 우리나라의 建築에 서 住宅이 차지하는 比重은 人端히 크다. 政府의 政策的 比重은 뒤로 돌리고라도 住宅은 許可件數로 全体의 80% (延面積比 55.5%)內外를 占하고 있으며,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속답이 例外없이 適用되어 不實施工, 違法建築等 雜多한 말썽은 住宅建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任宅이 아닌 建策物에서의 違法行為는 100坪에서, 300坪以下 規模와 3層以下의 建築物에서 가장 많이 發生하고 있음이 統計上으로 나타났다. 말썽 많은 이들 建物의 設計와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者가 建築士協會會員中어느 一部에게만 限定된것이 아니고 모두 (俗稱 1.2級 建築士 모두)가 할 수 있는 業務範圍이고 보면 共同意識이 더 强化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建築許可에서 부터 竣工까지 特하 共同住宅의 경우라면 入住後 상당한 세월이 흐를때까지 말썽이 꼬리를 물고 일 어나는 原因이 建築士에게만 있느냐?그런것은 아니다.

建築의 主体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고 그 하고 많은 建築主 各者가 自己慾心대로 建築하려고 하고 있으며, 法令의 規定을 輕視하고, 利潤을 目的으로 하는 建築인 경우 過多한 慾心이나 不知에 依한 不實工事等 建築土業務領域밖에서 起因되는 原因 또한 허다히 있다. 그러나 設計를 하고 계속하여 工事 監理까지 하는 建築士가 自己의 設計作品이 빗나가자 않고 그대로 잘 建築되기를 바라는 愛着心과 社會的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建築物의 發生을 防止하려는 誠實한 努力이 現今보다 조금만 더해지고, 後代가 오늘의 建築으로 오늘에 산 建築土을 評價하며 建築遺産은 當代의 文化 尺度가 된다는 事實에 銘心한다면 建築土以外의 者들로부터 생기는 問題點은 없어져 갈것이고 設計者 또는 監理者로서 不美스러운 처분을 받게되는 일, 나아가서 모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넓은 平野의 좁은 논두렁길을 걷기는 그리 어렵지도 않으며 시골의 풍요한 情趣를 느끼곤한다. 논두렁길 보다더넓긴하지만 바로 아래에 수십척되는 낭떨어지가 있는 벼랑길을 걸어가려면 그걸에 들어서기도전에 무서운 恐怖感이 앞설것이다. 愛人과의 同行이라면 다르겠지만.

생각해 본다. 勿論 假定이다.

法의 限界線에 바싹 붙여서, 違法되게 施工되지 않을 수 없게 - 例전데 住居地域에서 建弊率을 59.9%로, 12M 외도로에 바싹 붙여서 建築하는 집의 높이를 18M로 - 設計해놓고, 이 工事는 내가 責任지고 監理하겠노라고 財閥會 社社長것에 뒤지지 않는 큼직한 도장을 쿵찍고 그것도 손수가 아니라 職員의 손을 빌어서 責任질者 스스로가 設計圖書를 檢討하지도 않은채 責任捺印을 시키고 建築許可를 받아준다. 그리곤 잘 하고있겠지하고 傍觀하거나 바빠서 規場에 나가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김없이 違法施工이 되고만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人情上 또 繼續的인 營業을 爲한 自救策으로 어쩔수없이 違法을 감추는데 建築主와施 工者에게 同調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主人의 비위를 크게 거슬리지 아니하는 範囲/서에서 事後에 不幸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對備는 하겠지만.

結果는 뻔한것이 아닌가?

애당초 始初부터 벼랑가의 오솔길을 擇했으니 ─ 要人 과 同行하는 氣分으로 무서운것을 잊어버릴 수 있듯이 빽이나 요행을 愛人으로 착각하고 택한 길이라면 더욱 困難한 일─營業停止處分 深하면 무슨取消는 基本設計에 反映된 것이 아닐까?

모르는 사이이거나 스스로가 받기로 構想(?) 된것이나 다를바 없는 結果에 対한 一部의 一致된 見解는 "処罰基 準이 너무 强하다. 協會는 當國이 이를 緩和토록 努力하지 않고 무얼하고 있는가 ?"이다.

앞에서 前提했듯이 이는 空想으로 돌려둔다. 筆者의 뒤 어난(?) 文章力으로 만들어진 글로서 끝나야지 같은 생 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거나 類似한 事例가 万에 하나라 도 있다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建築士는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國家로부터 建築物을 設 리하고 建築主와 施工者를 指導할 수 있는 技術的 能力을 認定받아 일하고 있다.

平面的 概念에서 맴돌던 都市計劃이 되늦게나마 空間計劃을 包含하는 綜合計劃으로 바뀌어가고, 建築物은 一年이 다르게 大型・ 高層化 趨勢로 變貌되어가고있으며, 使用法이나 種類에서 單純하던 建築資材도 多樣한 種類의新製品이 開發・普及되고 있어 새로운 것들을 보다 빨리내것으로 消化하지 않으면 建築에 対한 國家・社會의 要求에 完璧하게 対処할 수 없게되었다.

都市와 建築에 対한 学問的 研究는 学界에 施工技術은 國內外에서 活躍하는 施工技術陣에게 맡기고 나머지 建築 法令과 制度에 힘겹게 부딛치는 建築許可關聯業務만이 建築士가 해야할 일의 全部인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는 "法으로 建築士에게 지워진 實任이 너무 過重하다 거나 억울하게 処罰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現場에서는 設計圖書대로만 施工하면 되는것.

資材의 選擇과 工法等 具体的인 事項은 建築主와 施工 者에게 맡기고 前에 하던 工法이나 通常 使用하는 資材로 特히 "色은 指定色"으로 하는 式의 設計로 끝날경우 工事 監理에 任하여 무진 努力을 한다하더라도 建築主를 이겨 내기는 力不足이 될것은 뻔하다.

色갈이 왜 저모양이냐는 非難에서부터 볼탈마감으로 設計된것이 두툼한 타일을 붙이게 됨으로서 境界線에서 피우는 距離未達로 몇個月의 營業停止処分을 받게되는 일까지 이 모두가 누구에게 責任이 돌아가며 이렇게 지어진 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建築에 都市全体와 社會에 궁극적으로는 建築士 모두에게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深思熟考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開發하고 品質이 向上되는 建築資材에 対한 綜合 的인 知識과 先進技術을 보다 빨리 받아들여 設計에 反映 하려는 모두의 研究와 努力으로 工法 및 資材의 開發을先 導하는 設計者로서의 風土造成이 建築의 發展을 期約 하는 捷徑일 것이다.

家事用品·衣類等의 商品은 消費者인 使用者가 直接 選擇한다. 이 경우에도 店員은 "이 會社의 製品이 實用的이

고 価格이 싸다."며 다른 製品과 比較하며 장황하게 説明하면서 손님을 自己에게로 끌어들여 반하게 만들어 놓고는 利潤追求의 目的을 達成한다. 이들 店員은 기껏해야 店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敎養敎育을 받았을 程度에 그쳤지 免許所持者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自己店舗에 쌓여있는 商品의 長短点에 対하여 昭詳히 把握하여 하루하루의 장사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새로운 商品에 対한 懲求와 잘안팔리는것들의 短点을 한데모아 이것으로 새로운 製品이出現되도록 하는 큰 役割을 한다.

建築에서인 경우는 그집에 入位・使用할 建築主에게 工 法과 資材의 選擇權을 송두리채 마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거의 모두인 建築主가 建築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모르는 사람의 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代身하여 훌륭한 建築物을 建築하게 하도록 建築士免許制度가 있는것이며, 醫師 辯護士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店員의 거짓말도 보탠 장황한 說期에 眩惑되기도 하지 만 어디까지나 自意로 選擇하여 사는 商品들에 対해 서도 品質이 어떻고 商道義가 어떻고하여 社會問題가 되는게 어디 한 두 가지인가?

하물며, 建築許可를 받지않으면 지을 수 없는 建築物의 設計를 獨占하고 있는 建築士의 業務에서야 어찌 雜多한 말썽이 하나도 없으리라 期待나 하겠는가?

더욱이 醫師가 診察을 하고는 알아서 藥을 사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한 部分을 建築主의 決定에 맡기거나 完 壁한 設計圖書에 依하여 建築하는 경우라하더라도 自己作 品을 拋棄하는 狀態가 된다면 말썽은 給水車를 기다리는 高地帶의 물동이行列처럼 줄을 이을것이다.

患者를 診察한 醫師가 藥을 알아서 쓰도록하는 例는 고 사하고 処方箋도 써주지않고 있는 世上이며, 高地帶의 물 동이도 점차 살아져가는데 남은 한가지는 줄어들줄을 모 른다.

問題의 發生을 줄이고 終局에는 完全히 없애는 方案—이것은 쉽지는 않다. 高地帶의 물통이行列을 줄이는 것처럼 市費의 投資로 解決될 수도 없고, 政府가 直接 建築主 個個人에 対한 指導・啓蒙을 한다거나 敎育을 通하여 目

的을 達成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고 보면 不可避하게 建築을 設計하고 마무리되어가는 過程을 지켜보는 建築士의 努苦에 期待할 수 밖에 다른 最善의 方案을 찾을수는 없는것 같다.

建築家의 良心과 專門的 知識으로 誠實하게 設計하고 自己作品이 設計된 그대로 誕生되도록 하려는 建築士 本然의 姿勢로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 施工後에 생기는 問題가 없었다는 흔한 實例를 볼 때 이는 建築士가 Architect이고 Engineer로서의 貴務를 다한 結果라고 누구나 確信할 것이다.

建築士協會會員은 모두가 建築을 通한 營業行為가 窮極的인 目的이긴하지만 첫째로,人間의 情緒的 生活空間과 環境을 創造하는 建築家로서의 責務를 벗어나지않는 正道를 밟으면서 營業競爭을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좋은일의 波及效果는 微微한 것으로 끝날지언정 말썽을 일으키는 나쁜処事가 全体에 미치는 影響力은 人端한것임을 各접가 銘心하여야하고, 셋째로, 建築의 Scale・技術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遷에 따라 달라지는 建築家에 対한 國家・社會의 要求에 그 責務를 다할 수 있는 研究의 技術開發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建築活動이 沈滯된 어려운 與件下일수록 會員의 努力으로 모아진 會費는 몇사람의 代表가 先進外國의 建築을 調査・研究하는 費用으로、國際建築研究団体 加入費로 設計의 工事監理에 関聯된 諸般基準의 制定等에 다른名目에보다 優先하여 使用하고 그 結果가 會員 모두에게 波及되어 우리建築文化의 發展에 寄興해 나간다면 活動舞台는 나라밖으로까지 넓어지고 事務所의 設立目的達成은勿論 一部層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經營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며, 建築家로서의 궁지를 가지고 活躍할 수 있는 모두의 權益과 社會的 地位는 堅固해질 것이다.

建築活動이 始作되면서부터 맨 먼저 손을 대고부터 建築이 끝나는 마지막 段階까지 最高建築技術者의 位置에서 떠주므로듯 할수도 있는 建築家로서의 役割이 不美스럽게 責任을 지게되는 結果는 一部當事者個人과 建築士協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國家・社會의 먼 훗날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을 다시한번 새겨본다. (※)

나는 住宅設計를 이렇게 본다.

安 瑛 培

(서울産業大学建築工学科 教授)

1. 住宅設計란

建築設計中 가장 많은 것이 住宅이고 누구나가 가장 時間을 많이 보내면서 生活하는 곳이 바로 住宅이고 보면, 建築家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住宅設計임이 틀림 없다.

住宅設計는 작으면 작은대로 設計하기가 힘이 들고 또한 크면 클수록 힘이 들기도 한다. 設計作業도 쉽게 하려면 쉽게 되고 잘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 住宅設計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方法도 다르기 때문에 집의 모양도 사람에 따라 各樣各色이다.

建築計劃색에 보면 設計時 유의해야 할 基本理論과 知識이 상세하게 잘 쓰여져 있지만 理論대로 잘 안되는 것이 住宅設計이고 때로는 理論대로 하는 것이 반듯이 잘된 設計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또한 住宅設計이기도 하다.

大学을 바로 나와서 바로 住宅設計를 하게 되면 工学技術的인 面에서 많은 失手를 하게 되지만 技術이 점점 蓄 續됨에 따라 工学的 側面外의 技術이 더욱 더 중요한 것 을 알게 된다.

住宅設計는 人間生活을 経験해가면서 새로운 局面을느끼는 경우가 많다. 흔히 建築作品이 바로 建築家의 白画像이라고 하지만 住宅作品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서 設計者는 人間生活에 대한 꾸준한 研究와 함께 反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자주 느끼곤 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住宅設計를 하면서 経験하고 느꼈던 点 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점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記述해 보고저 한다.

2. 크라이언트와의 対話

흔히 建築家들은 일반 사람들은 建築에 대하여 잘 알지 도 못할뿐더러 理解조차 잘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特히 住宅에 관한한 크라이언트는 너무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들은 建築에 대한 工学技術的 側面은 미약하지만 生活経験에 의한 住宅像에 대하여는 建築家를 능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住宅에 대하여는 自身있는 一家見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住宅設計를 통해서 크라이언트에게서 배운점이 너무나 많다. 특히 主婦들의 意見은 細心하고 치밀한 部分까지 파고들어가는 데는 때로는 놀랠 경우도 적지 않다.

부엌 주변에 대하여서는 建築家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設備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오랜 生活의 経験에서 얻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집들은 熱心히 찾아다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外国의 旅行을 통해서 幅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훌륭한 建築作品이 이루어지려면 훌륭한 크라이언트와 훌륭한 建築家, 그리고 좋은 싸이트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住宅 設計에 한한한 建築家와 크라이언트와의 共同作品이라고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建築에 대하여 잘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 만 論理的으로 説明해 나가면 충분히 理解가 잘 간다. 設 計技術은 없어도 좋고 나쁜점에 대한 理解는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点에서 크라이언트의 沒理解로 좋은 作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建築家을 의 지나친 作品意慾으로 때로는 희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게도 된다.

일반인들은 建築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綜合하는 技術이 이들에겐 없는것 뿐이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住宅을 設計하거나 지나치게 複雜하고 無理한 構造로 된 그로테 스크한 住宅을 設計하는 일은 우리 建築家들이 크게 삼가 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라이언트가 入住者가 아니고 事業者인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 주택의 事業者들은 目前의 利益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住 棟을 配置할 것을 要求하거나 공사하기에만 쉽도록 聚了 로운 設計를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또한 建築家는 단순한 기술적인 충족과 許可 수속만을 위주로 하는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建築은 그 時代의 文化의 尺度가 된다고 한다. 建築家 만의 努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時代의 背景과 文化水準이 크게 作用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建築家들의 比重이 가장 크다고 본다. 크라이언트와의 꾸준한 対話를 통해서 建築에 대한 올바른 理解로 誘導해서 우리는 훌륭한 建築을 이룩하는데 춥더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3. 両面性

建築에는 二律背反的인 두 要素를 모두 포용해야 하는 両面性이 적지 아니 存在하지만 그 중에서도 住宅建築에 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 것 같다.

建築에 필요한 여러가지 要素中 어느 한곳에 置重하면 이와 反比例해서 다른 要素에 害로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建築家는 調整者(Coardinator)라고도 한다. 이제 住宅建築에서 二律背反的인 両面性을 지녀야 하는 要素들을 몇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추녀의 깊이를 생각해본다. 추녀는 비를 막고 햇빛을 가려주는 構造部分으로서 이것이 짧으면 室内가 밝아지고 겨울에 Solar Energy의 活用이 커지는 반면에 이것이 깊으면 비가 올때 壁이 젖지 않고 窓門을 열어놓 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의 伝統的인 韓式構造에서는 추녀가 깊었는데, 이것은 비가 자주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不可缺한 要素이었다. 그러나 構造技術의 発達로 壁이 젖 는 것은 充分히 防止할 수 있으며 最近에는 Oil Shock 로 因해 Solar Energy의 括用面이 重要視됨에 따라 추너의 깊이는 짧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추녀의 깊이는 이 러한 科学的 側面보다도 形態上의 문제로 크게 左右되기 도 한다. 幾何学的인 形態構成에서는 추녀의 깊이는 큰 障害가 된다. 그리고 지붕 추녀를 깊게 하는 形態에서는 平面計劃에 적지 않은 制限을 加하게 된다. 그런 点에서 建築家들은 추녀가 짧은 것을 択하는 경우가 많으나 깊은 추너의 長点은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버릴 수 없는 点이라고 하겠다.

如何間 자붕 추녀의 깊이는 両面性을 지녀야 중요한 要 素임에는 들림없다.

두번째로 푸라이버시를 생각해 본다.

住宅에서 居室과 食堂은 家族이 단란하게 지내는 社会 圈이고 個室은 "쿠라이버시"가 커야하는 個人圈에 属하므 로서 푸라이버시라는 개념이 現代住宅의 새로운 要素로서 크게 등장하고 있다.

이 푸라이버시라는 用語를 우리말로는 独立性이라 부르고 있으나, 잘 부합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伝統住宅에서는 푸라이버시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창호지도 구획된 창문이나 출입문이 푸라이버서를 극히 희박하고 애매하게 해왔다.

西洋文明이 들어오면서 이 푸라이버시라는 것은 現代住宅에서는 클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생각이 약간 변하기 始作했다. "지오폰티"의 著書인 "建築禮讃"에 보면 建築과 女人이란 항목에서 푸라이버시를 높이기 위해 兒童室을 격리하려고 하는 建築家에게 집에 들어서면서 어린애들의 소리가 둘리는 것이 왜나쁘냐고 反問했다는 것을 보면 西洋에서도 이 푸라이버 서에 대해서 融通性있게 括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의 규모가 커지면 그층의 個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아랫층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최근의 外国 의 住宅作品에서 보면 內外室間의 相関이란 用語와 함께 上下室間의 相関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윗층과 아 랫흥이 서로 관련되므로서 —층에서도 그층에 있는 家族 들의 行動이 어느程度 感知될 수 있게 하는 것은 家族生 活이린 觀點에서 보면 극히 필요한 要素라고 생각된다.

즉 住宅에서는 푸라이버시가 너무 커도 나쁘며 또한 너무 적어도 나쁘다. 이것을 적절히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設計者의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집의 규모도 너무 커지면 오히려 家族間의 단란이 적어지며 또한 너무 작으면 푸라이버시가 크게 희생이 된다. 확실히 푸라이버시는 両面性용 고려해야 할 重要한 要素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两面性을 필요로 하는 要素는 많다. 人間의 快適한 空間을 위해서 空間의 閉塞性과 開放性을 들수 있으며 그밖에 内部空間的 外部空間과 外部空間的 内部 空間을 들수 있겠다.

空間変化의 多様性과 秩序, 또는 抵層高密住居라는 개념도 또한 両面性을 要하는 点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住宅設計에 있어서는 二律背反的이고도 両面 性을 無視못할 点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교묘히 잘 조 절해 나가는 것이 建築家에게는 흥미가 있는 重要한 課題 라고 생각된다.

4. 団欒生活圏의 位置、

個人生活圈에 対한 社会圈이라고도 불리우는 家族 단 만의 場所인 居室과 食堂 部分은 住宅設計의 가장 큰 比 重을 차지하는 곳으로서 그 位置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住宅設計時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이 다.

일반적으로 단탄생활권은 個人生活圈과 구분되어 집의 中央에 있지 않고 한쪽 싸이드에 位置하는것이 個室의 프 라이버시를 위해서 좋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 로 집의 中央에 位置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다. 居室이 집中央에 있으면 居室의 一部分이 통로가 되어 프라이버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安定感이 적은것이 큰 결함으로 되어 있다. 居室이 한쪽 사이드에 位置시키면 壁面이 커지고 바로위에 그층을 두지 않으면 天井의 高 底変化도 容易하고 室内의 家具配置를 비롯한 空間構成 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가 쉬운点등 有利한 점이 상당하 많은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理由 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韓式住宅에서 대청마루의 位置가 방과 방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전통적인 理由에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원하게 開放되는 것

을 좋아하며 個室의 連結복도를 따로 둔다는것을 面積의 洩費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家長이 안방에서 바로 나와서 利用하기 쉽고 또한 모든 家族들도 쉽게 모 일수 있는 点을 慣習的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点에서 아무리 台理的이고 기능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慣법을 無視하고 설계한다는 것도 또한 妥当한 일은 아니다.

나 自身은 오랜동안 居室이 独立性이 높은 집에서 生活해 보고 居室의 独立性이 높은 点이 얼마나 便利한가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모든 크라이언트에게 반드시強要는 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두가지 兩面性을 모두 充足시킬수 없는가를 建築的으로 試図해 보기도 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이것을 잘 解決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住宅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할것 같아서 筆者自身의 住宅에서도 실험적으로 試図해 보았다. 人間은 모든 環境에 잘 適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住宅에서 生活해 보고 居室이 中央에 있는 長点을 새심스럽게 実感하고 있다.

住宅은 限없이 試図해서 生活해보고 느끼면서 보다 나은 새로운 空間으로의 追求해 나가는 것은 建築家의 큰 즐거움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집이 낮아서 一층에서는 展望이 좋지 않아서 展望이 좋은 그층에 居室을 두고 보면 主된 生活圈이 分離될것을 걱정도 해 보았지만 막상 試図해보곤 그 나름대로 長点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住宅이란 一定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 삼스럽게 느끼곤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한결같이 居室이 中央部分에 位置한 것이 大部分인데 이와같이 剛一的으로 하는것도 또한 문제이다.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에 텔레비를 보고 家族이 즐기는 곳이 中央홀격인 居室이고 보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兒童들의 教育에 支障이 많은것도 고려해서 좀더 프라이 버시가 있는 住宅의 平面構造도 研究해서 並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住宅이란 아무리 한쪽 比重이 크다고 하더라도 劃一的으로 設計하는 일은 국회 삼가야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生活이 劃一的이 아니고 多様하듯이 住宅 또한 여러 사람들의 生活에 調和되도록 多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住宅의 규모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六·二五事変 당시되난시절에는 단칸방에도 많은 가족들이 살아왔으며 최근에도 작은 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数는 적지 않다. 人間이란 環境에 잘 適応해서 그런지 작으면 작은대로 또한 크면 큰대로 그런대로 그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生活하기 마련이지만 住宅을 設計하는 建築家의 立場에서 보면 生活方法에 따른 집의 규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오일쇼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은 더욱 많아졌지만 큰집을 짓고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며 살고있는 집이 커서 작은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자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주택이란 生活만 充足할수 있다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動物들도 快適한 空間을 찾아가듯이 人間에 게도 快適한 空間의 크기에는 限界가 있다. 家族들의 和 습에는 空間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크게 作用한다.

그런点에서 주택의 규모는 可及的 줄일수 있는 努力이 필요하것 같다.

넓은 대청마루같은 居室이 있고 그옆에 안방이 있고 그 뒤에 寝室이 있는 집이 한동안 유행처럼 되어 있으나 이 런집은 이제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寝室의 크기도 家具配置를 잘 고려하면 상당히 작아질 수 있다.

家具配置까지 잘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큰방이라 도 効用性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루꼬루뷰제"는 2.26m角인 방에서 設計를 했다고 하는데 작은 방이 家 具配置를 잘 고려하면 대단히 有効하게 쓰일수 있다. 그 밖에 寝室以外에 面積을 줄일수 있는곳이 浴室과 부엌部 分이다. 浴室이라고 하면 으레히 正規 규격의 衛生器具 들을 配置하는 것이 常例이나, 아파트나 일반 小住宅에서 는 面積을 훨씬 줄일수 있는 可能性이 많다. 日本에서는 1.20m角인 작은 空間속에 浴室의 기능을 解決한 例도 있 지만 우리나라 住宅의 浴室은 일반적으로 큰것처럼 보인 다. 浴槽의 길이도 1.50m에서 1.20m로 줄일수 있으며 便器도 面積이 더 적게 차지하는 器具로 改良할수 있다고 🥕 본다. 浴室의 出入門도 너비[넓이]가 50cm이면 充分하 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할때, 적어도 小型아파트에서는 浴室의 크기를 줄일수 있으며 中型의 単独住宅에서도 浴 室의 크기는 줄이는 努力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엉부분도 기구를 合理的으로 配置하면 콤팩트한 부 얼이 더 기능적이다. 이밖에 居室計劃에서도 좁은 面積 이지만 視覚的으로 넓게 보이도록 計劃技術의 開発이 努 力如何에 따라 크게 成果를 거둘수가 있다.

이와같이 寝室, 浴室, 부엌등의 面積은 勿論 居室計劃 도 좀더 콤팩트하게 치밀한 計劃을 하게 되면 住宅의 규 모는 보통 10%에서 15%는 쉽게 축소될수 있다.

보다 작은 空間에서의 合理的 機能을 充足시키도록 하는 技術的 側面의 開発은 우리가 앞으로 크게 努力해야 할 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間壁의 두께도 合理的인 壁面配置를 고려하면 1B에서

0.5B로 줄이고 外壁의 두께도 좀더 줄일수 있는 構造分野의 研究도 크게 要望된다.

6. 空間性

우리나라에서도 平面計劃을 空間計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지는 굉장히 오래된것 같으나 이러한 개념이 設計에 反映된 作品은 흔히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空間이란 概念이 단지 三次元的인 Physical란 面뿐만 아니라 人間의 埋性이나 感性으로 채득되는 快適性을 追求하는 哲学的 見地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埋解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設計에 나타내기란 더욱 어려움기 때문이다.

空間設計의 概念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言語들을 들어보면 Layering 이니 Sense of Place이라면가 透明 性등 새로운 言語들이 많지만 가장 基本的인 言語는 連讀 性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点에서 住宅設計時 혼히 提 起되는 実例들을 들어가면서 連讀性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 連續性이란 概念은 우리나라 古建築에서는 가장 重要한 要素로 생각되어 왔으며 現代建築에 있어서도 巨匠 인 Frank Loyd Wright나 Mies Vander Rohe에 의해서 強調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장이란것이 伝統的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그런点에서 大門이란것을 크게 重要視하고 있으며 집의 인상도 大門에 의해 지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대분이 없는 西洋人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다.

住居室間의 進入은 이 大門에서부터 始作되며 大門에서 부터 현관까지의 過程을 어떻게 하느냐가 住宅設計에서는 중요한 課題이다. 이 過程은 너무질면 지부하고 짧으면 또한 単調롭다. 나의 経験에 의하면 中間에 한번쯤 方向을 약간 変化시킬 필요가 있으며 進入함에 따라 庭園과建物이 반기는듯한 인상을 주어야 하며, 建物밖에서의 空間의 連續性은 적절한 変化와 함께 이루어야 한다. 이사이의 空間은 外部와 住宅을 이어주는 이른바 過程的 空間으로서 連續性이 중요하게 要求되는 곳이다.

Charice Moor는 현관을 住宅의 중요한 Landmark라고 했다. 현관의 포치 및 出入門의 모양은 個性이 필요하며 현관을 들어서서 內部空間이 展開됨에 있어서는 View의 展開, 다음 空間으로의 暗示등을 통해서 空間이 連續性을 지니고 変化시켜야 하는 것은 住宅設計中 가장 흥미있는 課題라고 생각된다.

Turning Point에서 마다 変化되는 視覚的인 Target의 View가 너무 圧迫感을 주지않고 적정거리에서 아름답게 展開되며 変化되어야 한다.

階段은 空間演出의 가장 좋은 要素임으로 이것을 잘 活用하면 아름다운 空間構成에 큰 効果를 얻게된다. 直線階段은 오르는데 힘이들기도 하지만 지루한것이 더 큰 문제이다. 人間은 그만큼 간사한 것같다. 제단은 제단참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쉬는것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한번쯤 View가 바뀌는 것이 空間의 変化에 큰 도움이 된다.

空間을 시원하게 開放하기 위해서 한동안 居室上部가 그층까지 開放되는 例가 많았는데, Oil Shock로 최근에는 차차 사라지고 있는데,집 어디엔가는 그층까지 시원하게 開放되는 시원한 空間은 꼭 필요한것 같다. 그런점 에서 이 階段空間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 같다.

住宅의 内部空間에서 가장 큰곳은 居室이기 때문에 空間構成의 技量을 발휘할곳이 居室이기도 하다.

內部空間 中에서 가장 크라이막스를 이루게 해야할 곳이 거실이며 이곳의 空間性이 가장 중요視 되어야 할 곳이다.

Frank Loyd Wright의 住宅設計를 보면居室空間의 構成에 있어서 배울점을 많이 発見할수 있다. Wright는 本来 Box Building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의 住宅設計에서는 寝室에서까지도 Box 같은 空間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壁의 凹凸, 天井과 바닥 레벨의 高底変化, 食堂과의 多樣한 平面構成, 壁난로를 中心으로한 特異한 空間의 構成등은 배울점이 대단히 많다.

비록 큰 空間이지만 停滯해 있는듯하면서 流動的이며 다른 空間으로의 連續性이 認知되어야 하며 적어도 작은 住居空間에서는 집 전체의 空間의 予解度가 높아야 한다.

혼히 上下층 空間의 分離현상을 막기 위해서 上下空間의 相関性이 어떤 형태로던 이루어졌으면 하는곳이 居室이다. 또한 內外空間의 相関性을 높이기 위해서 마감 材料의 同質性을 높인다던가 유리를 통한 視覚的인 連関性 등을 생각해야할 곳이 또한 居室이기도 하다.

住宅의 庭園도 또한 内部空間의 連續으로서 똑같은 개념에서 計圖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空間의 対比라던가 流動性있는 連續性을 지나게 해야 하는 点등은 內部의 居室을 中心으로한 空間構成과 별반 다를 바 없다.

自然속에서 물이 自然스럽게 変化되며 순환하듯이 우리의 日常生活의 容器인 住居空間 亦是 이와같이 自然스럽게 変化되며 連續性을 이루게 하는 것은 또한 自然의 斷理이기도 할 것이다. (※)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앞당기자

주택의 허와실 주거환경의 허와실/ 주택설계도의 허와실

元 正 洙 (인하대전축과 교수)

□ 주거환경의 허와실

일과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공중전화 박스 처럼 생긴 샤워실에서 땀을 씻은 뒤 침대 점 소파에 몸을 내던 진다. 옆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입체음향의 감비로운 음 악과 더불어 맞은편 벽에 붙박힌 컬러TV의 아름다운 화 면이 넋을 앗아간다. 그런 자세로 잠시 쉬고 있노라면 인 스텐트 저녁식사가 붙박이 간이 부엌셋트의 오본 속에서 뜨집게 데워졌다는 차염벨 소리가 잊었던 시장기를 일깨 워준다. 벌떡 일어나 벽속에 감춰 세워진 식탁을 제껴 놓 고 저녁 식사를 제 나름대로 끝마치고 나면 짜증나는 설 것이는 기계설비가 자동적으로 깨끗이 위생적으로 끝내준 다.

다음에 남은 일이란 잠잘 일밖엔 아무것도 없다.

허전함을 메꿔수는 것은 오직 떠오르는 공상뿐 이던가. 어린 시절 시골 외갓집 툇마루에서 덩굴던 일이 생각키 워진다. 반덧불이 띄엄띄엄한 밤하늘의 별을 세던 그 맑 은 공기의 자연세계를 그려 볼때 문득 지금의 자신이 덧 없이 서글퍼짐을 느낀다.

현대에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주겨광간으로서 방의 크기라야 고작 두평 반 남직한 비좁은 곳에 부엌, 겨실, 침실, 화장실, 샤워장, 벽장 등의 모든 편리한 기능이 벽속에 붙박이로 박혀 자동電氣設備로 꾸며져 있어 마치 우주비행선 캡슐 같은 홀아비 독신자용 살림방의 풍경이다. 미래 공상소설의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웃나라동경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천재 건축가의 야심적 창작품이다. 이 착상은 팽창하는 도시인구와 끝없이 넓게 펼쳐진도시가 빚어낸 교통지옥을 감안해서 도심지의 비좁은 땅위에 세운 출・퇴근이 편리한 잇점을 지난 우수수 처럼생긴 공장제품의 조립건축물이다.

금싸라기 보다 비싼 땅이라 넓고 시원스럽지는 못하지만 우주선 캡슐속에서 처럼 버튼만 누르면 요슐 방망이를 두드리듯 음식도 나오고 술도 쏟아져 나와 물질적 기능과 생활의 편리성은 모두 해결하여 주는 기발한 착상의 공간이 발명 제작되어 인기를 보았다. 그러나 얼마동안 살아본 사람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이좁은 감방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빠삐용의 처지임을 발견한 것이다.

그 뒤로 도심지의 이런 아파아트는 구경거리로만 그쳐 남게 되고 말았다.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흑평을 해서 돼 지우리 같다고 부끄러워 하던 풍뎅이 처럼 생긴 초가집은 (**) 사라지고 그 대신 도시형으로 개발된 주택을 흉내낸 닮은 "끝의 집들이 초원에 불길 번지듯 고속도로변에서 부터 시골과 두메산끝에 까지 퍼져 마치 이웃나라의 사무라이 성 막처럼 우뚝우뚝 솟아 있다.

물론 한국의 방이지만 해외로 불리올 만큼 풍토가 특이한 제주도의 주택은 옛부터 독특한 형태와 문화를 안고있다. 스폰지 처럼 부드러운 절감을 느끼게 하는 화성암의 잡석으로 울타리를 둘러 쌓고 누비이불 처럼 새끼줄 그불을 엮어 덮어씌운 초가지붕의 제주도 집은 20세기 현대전축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미스 봔 데르 토애」가 주장한코트 하우스 보다 훨씬 원조(元祖)이며 오히려 그 보다더 인간적인 생동력이 짓들어 마치 자연생태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요즈음의 제주도 풍경을 보면 대도시 변두리에 널린 부동산 업자들의 급조(急進)한 주택의양상을 그 대로 보는듯하다. 번쩍거리는 다양한 타일벽분수없이 솟아 오른 지붕이며 비 바람에 견디기 불안해보이는 창문들은 너무도 축은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광보리밖과 된장찌계의 기운 으로 논두렁을 누비며 잠자리, 메뚜기 등을 잡으면서 맑은 공기를 듬뿍 호흡하며 찬병없이 뼈가 굵어온 오늘의 어른들이 이제 귀여운 자녀의 출세를 원한다는 교육열과 너불이 주부의 고생과 수고를 덜어주는 편리한 설비와 구조 및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단주택을 바련한다는 구실로 주위가 시끄럽고 공기도 탁한 도시의 말집지대로 몰려들어 점점 줄레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말이면 여기에서 벗어나 자연의 맑은 새제에 몸과 마음을 씻는 다는 광계로 낚시니, 등산이니, 골프니, 가족과의 소풍이니 한여 각양각색의 형태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며 고생을 짜서 하게 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여전이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주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또, 가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의 사람들은 별난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마치 꿈속에서 그리듯 그 나라들의 집과 같은 이국 풍의 집을 동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신 식으로 좀 달르게 설계된 주택이면 복덕방들은 거침없이 "불란서식"이라고 불렀고 그래야만 손님의 귀가 솔깃해서 흥정이 잘되고 거래가 이루어 졌다. 요즈움 다행스럽게도 중동경기가 좋아 건축기사들을 모셔서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은근히 그 경기가 저물어갈 때를 상상해 보면 불안해 진다. 그래서 궁리한 묘안 중의 하나가 진짜 불란서땅에 한국제 불란서식 주택을 수출하면 한동안은 더 건축경기를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상천외의 공상도 하게 된다.

그려나 외래 중시 풍조에 물들었던 우리 한국인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국산 T. V나 냉장고를 외면하고 웃돈까지 얹어 주면서 외제품을 갖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산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형성 되자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에 알맞는 독창적 제품들이 무수히 개발 생산되어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준다.

그 중에서 1970년 대에 특히 급성장을 이룬 새로운 업종이 바로 주택산업이다. 한때는 치맛바람 부업중의 하나로 천시되었던 소위 집장사란 영세기업이 일약 대량 생산기술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대규모 산업으로 등장하여이 기세는 만성적인 미해결 정책과제인 국민복지를 위한 주택난 해소 문제를 일거에 휘몰아 풀어나갈 듯한 위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가족 제도의 재래식 한국주택에서의 핵가족제도와 그 주거양식이 서구화 및 근대화된 변화는 극히 최근에 이르 러 단시일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공동수택단지의 중앙공급식 난방 시스탐은 재래식 부엌과 온돌 아궁이의 불편으로 부터 주부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원래 공동주택 생산의 목표와 의의가 주민의 알맞는 주기생활에 대한 편의와 안락을 도모케 해주며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것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유가 인상은 여러 측면에서 가게 부담을 가중케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 논 외로 하고 최근 들어 일부 불량 집단주거 환경과 부실공 사로 인한 불량주택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을 주어 전체 주택산업외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경우를 가끔 신문 지상에서 또는 실제로 보게됨은 크게 우려되며 섭섭 한 임이다.

한반도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세워지는 주백은 생활하기에 편의롭고 안락한 주택만 둘어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옛날 호롱불 아래 아랫목에 옹기 종기 모여 살던, 조금은 가난하였던 그시절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고 행복해 졌다고 할수있을 것이다.

주택설계도의 허와 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에 이런것이 있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바꾸어 말하면 "먹기위해 사느냐 살기위해 먹느냐?" 좀더 비약해서 집을 짓는

길잡이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얻기 위해 설계도를 그리던가, 아니면 도면효과를 보기 좋게 살리는 묘미를 위한다던가….

이지음에 설계도가 지나는 가치와 설득력과 공신 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현대 주택건축의 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설계도서표기의 수단애관한 많은 개선과 발전을 펴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하다.

모든 건축설계 제작 중 특히 주택설계과정에서 제도 판에 매달려 도면제작에 열중하는 묘미란 실로 오묘하고 부한한 황홀한 꿈속을 더듬는 듯한 환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고 비록 종이위에 단순한 연필로 줄을 굿는데 불과하지만 그 경지는 바둑국수의 초읽기에 몰리는 수풀이와 상상추리의 경지는 가히 우주에 비할만하다.

백치 미인 얼굴화장술처럼 산듯한 도면 효과에만 심취하는데 그치는 도면술도 상당한 발전을 보았지만, 과연 설계도란 주택을 위해 어떤 필연성을 지녀야 하는가?

설계도를 둘러싼 건축행위의 전개와 진행은 건축가, 건축수 사공자들의 역활과 책임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편의한 배개와 기초가 되며 또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가장원활한 언어에 버금가는 건축가의 의지 표현의 최상의 수단임을 말할나위도 없다.

언어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는 데도 사람에 따라 소양과 개념인식의 차이에 따라 엄청난 오해 를 불러 일으킬때도 많다. 하물며 문자 표기와도 같은 설 제도서의 의사표기전달기능이 과연 얼만큼 건축가의 의지 와 외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

설계표기의 내용에 따라 주택전축의 질적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설계도에 의존 되면서 주택건축의 질적평가와 결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첫째, 시공과정에 있어서 불실공사 구조에서 일어난 분쟁이 전축가 전축주 시공자의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고 반목하는데 시비꺼리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둘째로, 주택계획 설계자가 완성되어질 주택조형물 의실체와 공간을 상상하던 꿈파는 달리, 이를 오로지 도면에서 상상력과 기억을 그려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착각을 밝혀보지 못하는 능력에서 완성단계의 작품의 실체가불러일으키는 분쟁과 시비 또한 적지 않은 예이다.

가히 설계도판 종이위에 펼쳐지는 건축가의 능력은 바둑기사의 "프로"와 "아마"의 수준이 등급으로 나눌만큼의 그 능력의 차와 경지의 차이도 다양하다.

주백건축의 질적발전과 향상을 폐하려는데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하겠지만 바로 표기수단의 과정이 제대로 활 용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점에서 어떻게 자성하고 개 선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우선 건축계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건축가는 주택설계도에 의해서 준공된 작품을 기대이상

의 꿈을 갖는 예가 많다. 시공기능의 저질과 무능한 현실 에 실망과 탄식을 자주한다.

한편,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법과 기술특성에 관한 전문적해결을 보지못하고 그림으로만 메꾼 설계도를 경멸 하며 무시하여 노련한 현장시공기술자의 재량으로 적당히 능숙하게 마무리하는 입장의 항면도 거세다.

이렇게 주택건축의 질적향상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을 서로 상대방의 역활에 성의와 전문적 노력을 기대하는것 만큼 이 가운데 건축주가 기대하는 엄청난 꿈과 환상은 건축계가 풀어줄 수 없는 새롭고 특이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중세마져 곁들인 경우가 허다하다.

평생에 새집짓는 감격과 홍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가 없다.

건축가와 건축주는 계획단계부터 동상이몽속에서 마음 껑 헤메인다.

인간과 자연의 환경을 그려 보여 주면 루이왕의 별궁이 나 오나시스의 별장으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축가와 건 축주의 대화는 얼마던지 볼 수 있다.

이는 건축적분야에서 해결정착되어질 문제라기 보다 경 제사회 전반에 거쳐 분수와 삶의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 . 지지 못한데서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당면한 기본적 문제 이다.

설계를 의뢰하고 존경하며 기대하던 건축가의 작품이 완성되어 입주하면서 부터 건축주의 욕망과 기대는 일시 에 무너진듯이 별장도 아니요 주택작품집속에 그림도 아 닌 현실에 마치 배신을 당한 실정은 작가에 대한 증오와 반감으로 둔갑되고 만다.

어디서 어디까지 설계도의 의도와 내용을 믿어 달라고 해야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겠 는가?

때로는 현장에 직접 뛰어 둘어 조각처럼 빚어냈던 작품 의 역사도 허다했다.

완벽한 설계도 어디 있는가? 시공하다보면 변경하게 마 헌이지!

자재생산의 품질과 규격의 안정과 수요 공급이 일상화되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기술정보를 인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경우라면 건축구성 기본의 도면표가와 내용에 무슨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겠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건축가에게 너무도 가혹한 기대의 굴레로 묶이면서 억울한 누명만 더해가는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개할 것인가?

주택설계도의 용도가 단지 허가도면이란 속어가 나돈지 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주택은 현장기능자 능력에 의존하던 현실도 해외 건설 참여로 인한 기능자숙련도 저하가 상당한 사회 문제이다. 이와 아울러 주택량산의 주택산업의 경제구조의 확대가 더욱 량산조립, 공정의 지침으로 설계도의 객관성과 정밀 도 신뢰도는 더욱 요구된다. 미숙련 기능공은 도덕적 소양도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주택공사에 미치는 웃지못할 분쟁을 일으킨다.

예를들면 하수도관에 세멘트폐수를 부어 막히게 하든가. 완공된 저수조속에 오물 쓰레기를 부어넣는다던지 깨스배 관의 접속마무리를 소홀히 다룬다던지, 하는 어처구니 없 는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주택설계의 범주에 몰아넣어 건 축주의 원성은 전축가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가 상당히 누 적되는 특이한 건축사회 현황중의 하나라고 본다.

과연 건축가의 생각과 구상과 의지가 어디까지 얼만큼 그리고 설계표기의 수단으로 표현되어 현장 공정에서 모든 행위가 의도대로 추적되어 완성을 보게되는가? 종이에 그려진 설계표기가 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최선인가? 3천년전 둘에 새겨진 집그림, 진흙관에 그려진 도면 오랜 역사에서 설계도 변천은 전자 두뇌의 힘이 대신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 인공 두뇌 관리하는저변이 또한 고도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자료정보의 정확성등 이는 중동에서 겪어온 국제건설기술에서 상당한 진통을 치러온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황이다.

건축가의 꿈을 갖은 젊은 수현자는 대부분 건축 설계연 구소에서 도면작도의 묘미를 체질에 베어 스며 둘도록 고 통스러운 밤샘을 하며 수련단련을 쌓는다.

너무 종이위에서만 환상과 꿈을 파내는 행위에 치중되어 버리는 경향이 앞서 말한 설계 표기의 진의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현황의 요인중에 하나가 됨을 확신하게된다.

심지어 실습 및 현장진학과 참여체험 교육없는 강의일 변도에 설계경시풍조의 건축계의 현실을 희망적으로 보아 지지 않는다.

설계교육의 체험을 통해 가장난해한 교육학이 있다면, 건축가 양성의 전인교육이라고 실감한다.

때때로 설계시간에 아무 목적 의식없이 제도 용지에 보기 좋게 출긋고 그림 효과로 다듬질하는 행위로 그치는데, 이를 한층 더 전축공간, 조형의 실체를 실감할 만큼 상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방법을 나름대로 궁리도 해본 다

역시, 체험을 제외한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이 건축 창작 분야이다.

즐겨서 시도하는 설계지도 방법중에 항상 기거생활 한 는 자택을 예고없이 평소의 기억만을 더듬어 설계토록 를 도하여 표기 작성하는 지도도 하여 보았고, 가급적 작성이 보이고 기대를 둘만한 몇몇 학생에게 실습체험을 권장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늘의 주택건축의 현황은 여러모로 변천이 다양하였으 며 주택생산 기술의 향상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주택건축에 관해서 건축계가 능동적으로 미래를 대처해야 할 역활의 재확인은 량산주택의 생산성과 주기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어떤것인가?이를 해결하 (P.43 에서 계속)

에너지節約을 위한 住宅의熱的性能

吳 昌 熙 (漢陽大 建築工學科 教授)

1. 序

우리나라에 있어서 建物의 熱的性能에 대한 관심은1973 年의 石油波動이후 크게 고조되여 1976年 4月 建築法 施 行令 改正에 따라 표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족할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아뭏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建築性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우리 建築界의 발전을 뜻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고 있음을 재인식하여 당면한 建築의 새로운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住宅 에너지 절약과 斷熱의 意義 動力資源部의 1980年 度 통계에서 에너지 충소비량에 대한 部門別 소비비율은 다음과 같다.

產業用————	43.3%
輸送用	13.5%
家庭 및 商業用	37.4%
공공기관用	5.8%

이에 따르면 가정 및 상업용으로 소비되는 量은 결코 적 은 것은 아니다. 또한,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비율 은 선진제국의 民生部門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정도가 된다. 이 통계에서 순주택용 에너지에 대한 비율은 명백하지 않 이 아니 가정 및 상업용 부문에는 住宅用에너지가 포함되므 로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 使用과 관리에 있어서 再考되 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住宅에 소요되 는 에너지는 冷房, 暖房, 給湯과 炊事, 그리고 照明및기 타기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들 가운 돼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冷暖房用과 給湯用이 되겠으나 現在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는데 그 수 준이 미흡하므로 앞으로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주택에 소 요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한 증가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정이고 보면 에너지의 節約은 더욱 重要한 比重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住宅用 에너지절 약은 우리生活에 있어서 한층 더 要求될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필요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使用과 効果 的인 유지관리에 의한 에너지 保存에 있다. 즉 필요한 에 너지는 필요한 만큼 使用하되 낭비와 손실을 최대 한으로 防止하는 에너지 使用의 合理化를 위한 最善의 方法과 노 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이라 하면 무조건 使用量을 .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住宅에너지는 住宅으로서 필요한 住宅 본래의 기능인 安全、健康、衛生、쾌적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 만큼 住宅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住居生活의 向上을 저해 하거 나 抑制하는 方向의 절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에너지 절약의 根本対策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住宅계획 및 構造의 改善
- ② 設備機器의 効率化
- ③ 設備機器使用方法의 合理化

이상에서 建築的인 技法으로 實効를 거둘 수 있는 것은 白 然을 効果的으로 利用하는 計劃原論的인 것과 에너지 🙊 存을 위한 建物의 斷熱構造化가 있다. 斷熱이라 함은 일 반적으로 熱이동을 防止하는 것을 뜻하며, 熱遮斷 이라고 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高温예서는 斷熱, 中温 에서 는 保温, 低溫에서는 保冷이라 하고 이에 使用되는 材料 를 斷熱材라 한다. 또한, 熱에는 필요한 熱과 - 불필요한 熱이 있다. 住宅에서 필요한 熱은 필요한 장소에 될수 있 는대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放散 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불필요한 熱은 될수있는대로 放散 시키거나 排除할 것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熱의 침입을 저 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필요한 熱은 가급적 오래도록 保存하고, 불필요한 熱의 流入을 方止하여야 한다. 住宅 斷熱의 目的은 첫째로 냉은방負荷의 절감, 둘째로, 結露 防止, 셋째로 宅內 환경의 改善이라는 住宅建物의 熱的性 能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있다.

2. 住宅의 熱的인 基本計劃

住宅에너지 가운데 그 소비량이 가장 큰 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冷暖방과 給湯用 에너지이다. 이 가운데 室内 환경조성에 사용되는 冷暖房用 熱質荷를 경감시키는것은 任宅에너지가 절약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위한 建築的인 技法으로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연과 共存하게 하는 建物의 方位계획은 매우 重要한 住宅設計의 基本計劃이 된다. 住宅의 方位와 에너지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建物의 南向面은 冬節에 日射量이 가장 많아 受熱量이 가장 많아진다. 따라서, 必要한 熱은 窓을 통하여 建物內로 받아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다.北

向面은 冬節이나 夏節에 관계없이 日射에 의한 受熱量이 가장 적으므로 任宅의 各室 性格에 따라 南北方向으로 배 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개구부의 크기와 배치等 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통풍과 채광은 물론 냉난방바의 熱質荷를 경감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西向面은 夏節에 있어서 일사량을 가장 많이 받게 되므 로 불필요한 熱을 받게 된다. 따라서, 放散시키거나 排除 하는 방법으로 채양이나 처마 또는 루우버둥으로써 일사 량을 줄이거나. 정원수를 이용하여 그늘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住宅의 形態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할 것이며 지붕 모양이나 지붕의 경사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 구조상으로 볼 때 暖房時의 熱여 放散되고,冷 房時의 불필요한 熱이 外部로부터 流入되는 경로는 주로 지붕, 천정, 外壁, 바닥 및 閉口部로서 外氣와 직접 면하 고 있는 부분이 되므로 外氣와 接하는 面積을 가급적 적 계 하는 것이 効果的이 된다. 즉, 같은 바닥面積을 가진 경우에도 凹凸이 많은 평면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壁体의 길이가 길어지고 壁面積도 커지므로 불리하게 된다. 따라 서, 室内의 一定한 空氣温度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에너지 의 소비량이 커지게 된다. 천정높이가 높아지면 室空氣의 부피가 많아지고 室温의 上下분포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 필요한 室向에 대한 에너지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 室의 배치에 있어서 非冷暖房室은 冷暖房室과 外氣와의 사이에 오도록 배치하여 열이동을 완만하게 하고 에너지 손실을 적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冷暖房을 필요로 하는 방은 集中사켜 배치할 것이며, 外部出人時의 환기에 의한 에너 지 손질이 많은 현관같은 空間에서는 前室을 두는것이 効 果的이다.

3. 斷熱構造와 斷熱材의 特性

住宅斷熱의 基本은 室内의 温熱의 放散과 外氣 温熱이 流入하는 構造体에 斷熱材를 使用하여 熱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 천정, 외벽, 바닥등을 斷熱構造化 해야 하며, 가장 効果的인 方法은 住宅全体를 斷熱材로 둘러싸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構造的으로나 외관상으로 住宅全体를 斷熱材로 둘러싼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므로, 各 部分에 따라 斷熱材를 어떻게 使用하여 斷熱効果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閱實的이며 이것은 오래전 부터 연구되어 왔다. 斷熱 構造化에는 斷熱材의 性質과 그 위치와 施工性이 매우 重要하다.

斷熱施工에는 斷熱材의 위치에 따라 内斷熱, 中斷熱 外 斷熱로 나눌 수 있으나 熱質流量의 계산치는 모두같은結 果가 되므로 理論上으로는 斷熱材의 位置가問題視되지 않 는다. 그러나 實除的인 施工性과 構造的인 관련성에 따라 斷熱 및 結蹊현상등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住宅에 使用되는 斷熱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열전도율이 0.02~0.05Kcal / mh°C의 것이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무기점유계斷熱材:유리점유, 岩綿으로 불러우는 것으로 유리나 岩石을 용해해서 접유化 시켜 板狀이나 이불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透濕性이 큰 것이 欠點이나 吸音性 耐火性이 높다.
- 發泡合成樹脂系斷熱材: 合成樹脂를 發泡시켜 작은 氣泡 를 内部에 形成시킨 것으로 押出發泡 Polyestren. 硬質 Polyurethan Foam, Polyethlene Foam 等의 板狀材가 많다. 이는 可然性으로서 非耐火的인 短点이 있는 反面 吸水性이적고 耐圧縮强液가 비교적 좋으며 Polyurethan 은 현장 發泡로서 構造体에 충진시키기도 한다.
- 氣池콘크리트 : 콘크리트 製造時 發泡劑를 넣어 內部를 空隙化한 것으로 外壁 또는 지붕 構造体로 使用하는 輕熱材는 各 製造會社別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性質은 겨외 같다. 열전도율과 관계되는 關熱材의 性質은다음과 같다.
- ① 比重이 적은 것 일수록 열전도율이 적어진다.
- ② 含水率이 클수록 열전도율이 커진다.
- ③ 온도가 높아지면 열전도율이 커진다.

理想的인 斷熱材로서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할 것은 절 대적이나 다음과 같은 性質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① 非透濕性이어야 한다.
- ②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 ③ 耐火性이 있어야 한다.
- ④ 施工性이 좋아야 한다.
- ⑤ 變質되지 않아야 한다.
- ⑥ 경제성이 좋아야 한다.

4. 結露斗 斷熱

結關는 따뜻한 室内의 空氣속에 포함되어 있는 水分이 표면은도가 낮은 벽체에 접촉되면서 냉각되여물방울로변한 것으로서 겨울철에 방안의 벽이나 천정등 구석진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氣密性이 높고 斷熱性이 낮은 住宅에서 太陽光線이 미치지 않는 北側面이나 東側面의 박공벽 家具의 뒷쪽 불박이장 内部 천정속, 창유리나 생쉬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주로 일어나기 쉽다. 이는 家內 温波와 外氣温波의 差가 심하고 败濕性이 적은 마감재로 일수록 심하게 일어난다. 結露長 大体로 두가지로 구분된다. 벽이나 천정 표면에서 생기를 表面結露와 構造体內部에서 일어나는 內部結露가 있다.

結露는 곰팡이를 유발하거나 벽지바름한 벽에는 벽지가 떨어지거나 쭈그리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室内 마감재 의 耐用時間을 단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

內部結蹊는 斷熱効果를 低下시키게 된다. 벽체 內部에 생긴 結蹊로 因하여 벽체에 붙어 있는 斷熱材가 吸濕하게되어 熱傳導率이 높아지게 되는 한편, 結蹊된 水分이 열어붙으면 얼음과 같은 열전도율을 가지게 되므로 斷熱効果를 떨어뜨리게 한다. 또한 構造体의 水分의 氷結 팽창으로 인하여 構造体의 耐力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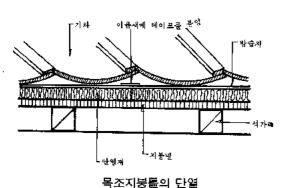
結成防止을 위한 일반적인 対策으로서는 첫째, 外壁의 斷熱性을 높혀 外氣에 외한 |시벽면이 냉각되지 않게 하여 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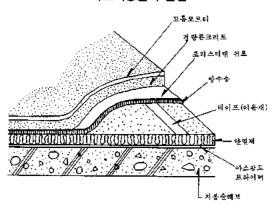
둘째로, 室內의 濕氣發生을 가급적 저지하는 것이 効果 的이다. 부엌이나 浴室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는 다른 방으로 옮겨 가지 않게 직접 外部로 배출시키거나 환기에 유 의하여야 할 것이다.

内部結露防止策으로는 防濕尽을 室内側에 두고 그 外部 側으로 斷熱材을 두어 室内의 濕氣가 構造体에 吸濕 되지 않게 할 것이다.

5. 지붕 斷熱

住宅의 지붕이나 최상충의 천정은 겨울철에 熱손실이가 장 많은 部分이며, 夏節의 일사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된다. 따라서, 지붕은 고온상태가 될 미能性이 크므로 천정까지의 空間과 綜合的인 斷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冬期의 천정속 結露防止와 夏期의 熱落積防止를 위하여 환기구의 設置가 필요하나 冬期의 熱放散을 돕게 되므로 천정과 지붕의 斷熱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혼히 사용되고 있는 지붕구조는 木造 지붕를 지붕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을 생각할 수 있다. 목조지붕를 위에 기와를 잇는 경우에는 지붕널 위에 斷熱材를 붙이고 그 위에 防水紙 또는 비닐 쉬트를 덮고 기와들잇는 방법과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에 斷熱材를 지붕널 밑으로 붙여대는 方法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施工性을 고려할 때 지붕널 위에 斷熱材를 붙여대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斷熱面積도 넓어지므로 効果的이라 하겠다.





콘크리트 술래브 지붕의 단열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인 경우에는 外斷熱과 | 八斷熱로 區別된다. 内斷熱인 경우 夏節의 盡問日射에 의하여 콘크 리트 슬래브板에 축적된 熱이 外氣온도가 낮아진 夜間에 放熱하게 되므로, 열축적을 방지하는 外斷熱로서 처음부 터 外氣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하는 것이 効果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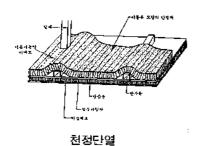
그러나, 外斷熱施工에는 옥상방지와 관계되므로 施 工上의 細心한 注意와 構造的인 처리가 철저하여야 할 것 이다. 경우에 따라 内斷熱을 할때는 소요두께의 斷熱材를 콘크리트슬래브版에 완전히 접착시키는 것이 중요. 하며, 斷熱材와 斷熱材의 이음에 틀이 생기지 않게 유의 하여야 한다. 施工性으로 볼때 上向式 作業이 되므로 斷熱 材의 완전접착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위에 斷熱材를 깔아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콘크리트의 무계와 施工時의 作業에서 斷熱材가 圧縮되거나 파손될 우리가 많다. 斷熱材가 圧縮 되면 밀도가 높아지므로 열전도율이 높아지게되므로所 要圧縮强波를 가진 斷熱材를 使用하는데 유의하여야 합청 이다. 또한, 콘크리트를 치고 난 다음 천정속 作業으로서 斷熱材를 미리 묻어 두었던 철선과 막대등으로서 조여붙이 눈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斷熱材와 콘크리트, 슬래보板 과의 밀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료의 낭비이며 斷熱効 果를 기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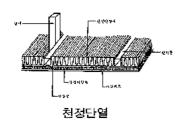
6. 천정의 斷熱

천정 斷熱構造는 반자들을 中心으로 하여 반자들 위를 이불좀 모양의 斷熱材를 온통 덮어 까는 方法과 반자들사 이에 极狀斷熱材를 붙여대는 方法이 代表的인 正法이라하 겠다. 前者는 천정 바탕을 構成한 다음 천정윗면을 斷熱 材를 까는 下向式 作業이 되므로 作業이 용이한 편이되겠 으나 경우에 따라 천정속에서 作業이 不明能할때에는 천 정바탕을 구성시키면서 斷熱材를 깔아 나기야 할때도 있 다. 그러므로 조잡한 시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斷熱材의 이음 부분은 서로 겹치게하 여 二重으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달대 부분 은 斷熱材를 죄어 두른 것과 같이 감싸 주는 것이 効果的 이라 하겠다. 후자는 반자를 사이에 板狀斷熱材를 천정바 탕板위에 붙여 나가거나 반자를 사이에 끼우는 作業이 되 므로 作業性이 좋지 않다. 斷熱材의 이유부분과 반자들과 斷熱材 사이에 듬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 틈새를 없 애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防濕을 위하여 천정에는 반 드시 防水紙나 비닐 쉬트등으로 斷熱材 밑 部分에 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붕斷熱이 되어 있다 하여 천정斷熱을 소홀하게 취급 하기 쉬우나 천정속은 겨울철에 外氣의 영향을 반고 있으 므로 斷熱과 結露에 유의 하여야 한다.

천정윗면에 板狀斷熱材를 올려 놓는 것은 틈새가 많이 생기므로 실제로 斷熱効果는 거의 없는 것이다.





7. 벽체의 斷熱

벽체는 住宅空間에서 放熱面積이 가장 큰 部分이 되겠으며 그 構造体에 따라 斷熱工法도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構造는 벽돌벽이 된다. 이에 대한 斷熱은 内斷熱과 中斷熱이 추가된다. 外斷熱은 構造体의 연축적과 겨울철의 外氣의 영향 등을 고려할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겠으나 住宅의 外斷熱 은 構造的인 面과 외관이나 기능적인 面에서 거의 불가능 하다 하겠다. 특히, 화장 벽돌을 쌓은 벽돌 벽체인 경우 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内斷熱은 各 室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벽마무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一律的인 斷熱施工이 곤란하게 된다. 그 한 예로, 거실의 내부장식을 위한 마무리와 욕실이나 침실의 내부마감은 다르기 때문에 室内部에 면하는 벽체에 斷熱 서를 붙여대고 그 위에 마무리 하기에는 구조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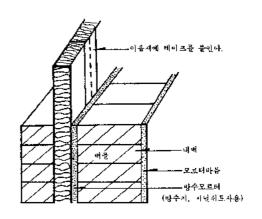
中斷熱은 施工順序를 적절하게 하면 벽돌 벽체인 住宅 斷熱構造로서 効果的이라 하겠다. 中斷熱은 使用斷熱材 의 形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二重벽을 構成 하여 그 空桐部에 斷熱材가 位置하게 되는 斷熱 構造로서 가장 効果的인 斷熱施工이 될 것이다.

施工順序모는 凸벽이 되는 構造体를 먼저 쌓고 斷熱材로 이를 둘러 싼 다음 이를 保護하는 外壁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施工하는 것이 理想的인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또 하나의 施工方法은 内壁과 外壁을 동시에 쌓아 올리면서 斷熱材를 삽입하는 工法이 되겠으나 作業能率이 低下되며 斷熱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作業時의 좀 別한 注意를 요하게 된다. 또한 二重벽인 공동부를 形成하고 注入口를 통하여 現場發泡性 斷熱材를 注入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벽돌을 쌓을 때에 떨어진 쌓기 모르타르에의하여 공동부의 一部가 막히게 될 明能性이 있으며 완전

한 공동부를 이루기는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 므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공동부에 板狀斷熱材를 위에서 부터 끼워 넣는다. 해도 공동부 면이 고르지 못하여 잘끼 워지지 않을뿐더러 斷熱材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 제로는 거의 불확실한 시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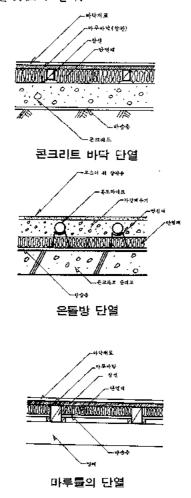
백체의 結認防止를 위한 防濕施工에 있어서는 內벽의外面(공동부面)에 防水모르타르로 고르게 바른 다음 접착제로서 이 비름面에 斷熱材가 들뜨지 않도록 밀착되게 하는 것이 効果的이다. 벽돌벽 쌓기와 斷熱材 삽입을 동시에하는 그림벽인 경우에는 방수지나 비닐쉬트등을 | 內벽의 外質, 面에 오게하여 방습층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外壁을 벽돌 치장 쌓기로 할 경우에는 출눈 사이를 통한 外氣의 流入을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8, 바닥의 斷熱

바닥은 住宅에 있어서 熱손실이 가장 적은 部位이나 온돌방인 경우 暖房源의 직접적인 열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斷熱이 要求되기도 한다. 住宅의 바닥은 운돌방을 제외하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마루를 놓거나 기타 合成樹脂系의 바닥재로등 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보편적이 된다.

이 콘크리트 바닥은 직접 지면에 접할 경우와 콘크리트 슬래보로서 地面에서 어느정도의 높이를 두어 그 밑에 공 간을 두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外氣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外斷熱이 効果的이 되겠으나 施工性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마루 바닥을 형성하는 장선과 장선 사이에 斷熱材를 넣어 바닥의 마감면에 대한 內部斷熱構造化 하는 것이 표준적인 工法이라 하겠다. 콘크리트바닥이 地面에 직접 닿게 될때는 반드시 地面의 습도를 차단하는 防濕尽을 두고 그 위에 콘크리트板이 오게 하여야 할 것이다. 판텔히팅인 온돌방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地面에 직접 닿는 콘크리트板위에 配管하는 것이 効果的이며 斷熱材는 파이프 받침대 사이에 들어차게 깔고 온물방 바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나 단열재는 安全使用温渡와 적당한 耐圧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木造마루틀로 바닥을 구성할 때는 역시 장선과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마루널과 밀착하게 하는 것이 効果的인 方法이 된다.



9. 開口部의 斷熱

住宅開口部로 부터 손실되는 열은 全体 熱손실량의 20 ~40%정도이고 이와 반대로 太陽에 의한 수열량은 全体 의 열손실량의 10~30%에 상당한다고 한다.

개구부로 부터 손실되는 열은 유리를 통한 열손실과 창 틀 문틀을 構成하는 재료에 의한 손실, 그리고 창틀이나 문틀의 틈에 의한 손실로 區別된다. 이 中에서 유리에 의 한 열손질이 가장 크다고 한다. 창호에 대한 열손실방지 책으로서 유리의 多重化와 窓의 二重 또는 三重化로 補助 窓을 둘 것이며 構造的으로 창틀 문틀 주위의 氣密化가 重要觀되고 있다.

유리는 채광용으로 使用되는 유일한 材料로서 유리 自体에 대한 斷熱性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상태에 있으며 금속재로 製作된 窓戸의 구성 재료의 熱傳率을 낮추게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창호구조에 대한 氣密構造化에 대하여 생각 해 보기로 한다.

창과 문은 建物構成要素에서 唯一하게 動的인 부분이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 어야 한다. 이 여유를 가능한 한 줄이거나 틈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곧 氣密化이다.

일반적으로 금속제 창과 문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氣密化를 기대할 수 있으나 창호 구성재료에 의한 열손실이 크므로 이에 대한 対策으로서 表面에 단열성이 높은 도료를 발라 어느 정도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즈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샛쉬나 울거머는 반드시고 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効果的이다. 木造窓戸는 構成 材에 의한 열손실이 비교적 적으나 틈새가 많이 생기므로 완벽한 기밀화는 어려우나 양질의 木材사용과 철저한 細工으로 다음과 같은 構造的인 改善으로 어느 정도의 기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대의 창.문 받이홈의 기밀

(X)

·· 창, 문, 받이홈

韓國住宅建築의 實相 1970年代 住宅建築様式

尹承重(原都市建築研究所)

건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의 한 구체적 표상이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의 주택진축은 대 중의 문화의식과 생활감각의 수준을 잘 대표하는 것이다. 주택건축은 대체적으로 소수의 엘리뜨건축가들의 개인적 논리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기 보다는 다수 대중물, 즉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가운데서 경험되는 요구와 감자과 지혜들이 함께 연출해 내는 결과 들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지방마다 그 지방의 특유의 생활방식이나 감각에서 비 롯되는 주택형식과 스타일과 분위기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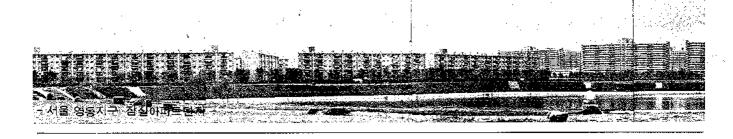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주택가를 눈여겨 보면 소시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스타일이 하나 의 양식처럼 정형화 해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70년대식 양식이라고나할지 세계 어느나라와도 구별되는 특유의 풍 경인건 분명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 외 입장에서 볼때에 썩 아름답고, 조화되고,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마을의 풍경이라고 말할수는 없겠다. 소시민들에 의해서 거의 무외식적으로 선호되는 몇가지 두드러진 경향 가운데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지 나로서는 늘 기이하게 생각되어 진다.

주택들의 집합으로서 마을풍경을 만들어갈때 지붕이 퍽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는데 지붕의 용마루를 남쪽 정면에 직각되게 즉 동서 긴방향으로 경사를 지우는 것이 거의양 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지붕속에 생기는 큰 광간은 2층 내부스페이스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또는 지붕속 방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것 같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들입자 (人) 모양의 지붕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년전에 건축위원 회에서 용마루를 지붕 중심에 단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 도 방침을 정해서 이를 규제해보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소시민의 주택들은 붉은 벽돌을 의장재로 즐겨 쓰는데, 남쪽 정면만은 한결같이 화강석 돌붙임을 하는것 이 거의 신앙처럼 되어 있는 것, 집주변에 콩크리트 난판 올 장식처럼 붙이는 것, 기와주변을 투박한 콘크리트 파 라뒡으로 둘러싸는 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며, 도시 마을의 풍경을 해치는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멋없이 크기만한 알미늄창들, 알미늄 도어들, 어설픈 아 취오픈, 쓸모가 분명치 않은 베란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 모티브들이다. 그로테스크한 지붕을 가진한 결같이 크고 높은 대문은 골목분위기를 한껏 망치고 있으 며, 마을의 이웃을 거부하고 있다.

수년전 부터는 이런 도시마을의 풍경이 농촌 마을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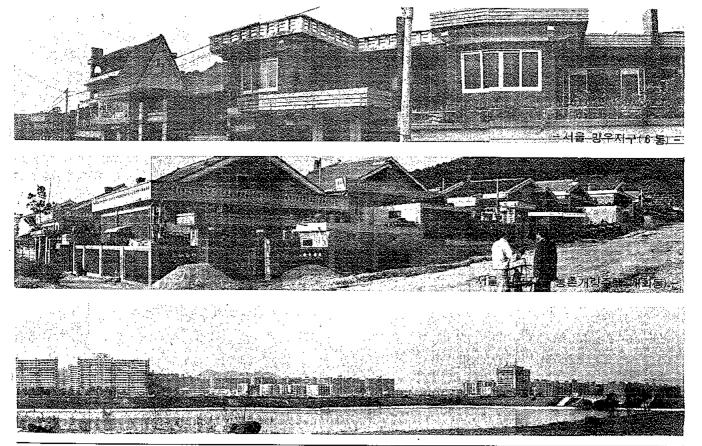
식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재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수 택개량사업으로 지어지는 농촌 주택들도 거의 어김없이 70년대식 양식이 채용된다. 생활패턴, 난방방식, 가족구 생들이 다른채로 거의 관습적으로 선택되어지는것 같다. 사골의 가족들도 도시의 불란서풍(?)의 자붕을 가진 주 택을 갖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을까?

엄격한 유교적인 가족윤리제도하의 지켜져온 양반가의 독특한 공간 구성이나, 옥외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도 사민가의 수백년간의 전통양식은 개화 후 서양문물의 도 입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일제하에 소위문화주택양 식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생활 방식의 개선이 계 몽되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주택형식이 변화하기 시 작한 것은 50년대 중반부터 주택공사와 산업은행 주택기 출실이 수도한 ICA주택 등 공영 주택이 입식생활을 지향 .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디자인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 부터인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 경제사정으로는 불가피하게 최소한 공간과 경제성을 최대의 목표로 함 수 밖에 없었으나, 거실을 생활중심으로 삼는 현대적인 주 택형식의 기본이 된셈이다. 이 후 60년대와 70년대 중반 까지는 서민주택의 대부분이 영제한 민간주택 개발업자 (소위 집장사)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때부터 소위한 국적 주택양식이 불행하게도 이상감가적인 방향으로 정착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미니 2층, 불만서식 지 붕동 기괴한 유행어등이 탄생하였다. ICA 주택시절만 해 도 규모는 영세하나마, 단정하고 정리된 소박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채로 유형화 되었으며, 공간구성도, 구조방식도 합리성이 무시되어 갔다. 건축 수업을 쌓은 지도적인 건축가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특별히 외뢰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주택들 조차도 어떤 호름에 영향 주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7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주택생산의 양상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형화, 고급화 되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세 주택개발업자로 부터 점차 대형 주택업자 쪽으로 주역이 이관되어 가는 중에 있다. 정부의 500 만호주택건설 외욕은 최근에 현실적으로 약간 수정되었지만, 정부의 힘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최근에 당국이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 대형주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입찰 방식등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나 대형회사들이 가까운 목표를 목적으로 할 것이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적극적인 연구를 유발시켜 주택생산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참다운 생활환경을 갖는 도시마을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을 함께 과제로 삼아야 할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건축은 문화수준의 표현이므로 하루 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고로 높은 문화 감각을 소유한 것으로 자부하는데 썩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1970년대식 주택양식(?)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건축가들의 노력을 보태어 바람직한 80년대식 양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



주택 건설과 건축 법규

韓 鼎 燮 (檀國大学校 建築工学科 教授・工大学長)

법은 왜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가 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더불어 도덕, 관습, 종교 등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전인 선사 시대나 고대에는, 이같은 뚜렷한 구별없이, 중합적인 사회 규범으로 통용되었지만,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차차 사회 규범도 법규범, 도덕 규범 관습 규범 종교 규범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같은 역사적 과정에서, 법의 개념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처음에는 법을 신의 의사로, 다음에는 군 주의 의사 또는 명령으로생각했으나, 민주 사상이 펴지면서 법을 시민의 외사로 관념지우다가 마참내 오늘날에는 시민 상호간의 계약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법의 제정은 원천적으로 시민 즉, 국민이 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제정된다. 물론 명령이나, 자치 법규 등은 대통령, 총리, 각 부 장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이렇게 제정된 명령이 위임하는 권한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제정되는 법은, 도덕 규범, 판습 규범 종교 규범 등과는 달리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규범이 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법령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괴롭히는 법이 된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간 사회의 구조가 간단해서, 제정해야 할 법의 종류나 내용도 비교적 간단했고,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그들에게 편리하게 법을 제정하여도, 그런대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이 말할 수 없이 복잡해진 오늘날에 와서는, 그 내용을 한정된 인원이나 그룹만으로는 도저히 화악할 수 없다. 이같은 사회에서는 전문 지식 직업인들이 각기 분야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이들 전문지식 직업인들은 그들 전문분야의 이익을 너무 앞세울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법제정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전문 분야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렇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분야에 관한 법을 가제정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 건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 식민지에서는 해방되었으며, 독립한지 얼마 안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점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민주 원칙에 어긋나는 법령들이 제정된 일이 없지 않았으며, 아직도 전문 분야외 외견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각종 법령의 불비 책임이 각 분야 전문 지식 직업인들의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개선을 위한 노력부족에도 있었지만, 국가 건설, 6.25사변, 근대화와 경제 발전 등 과정에서 필요했던 강력한 행정력 속에서 몸에 밴공무원들의 독선적인 태도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었다고보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 지식 직업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분야의 기본법인 건축법이, 5.16 군정말기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사용하던 모든 일본 시대법령들을 제기하고 일제히 우리 것으로 제정 공포할 때다른 많은 법들과 함께 무더기로 제정된 이래, 7번이나개정되었고, 건축법 시행령도 13번이나 개정되었다. 그동안 허술하고 무리하던 조항들도 많이 생겼다가 정비되었지만, 현행 법령 내용에도 아직 재검토 되어야 할조항들이 남아있다.

이같은 무리하거나 모순된 조항들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건축 문화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반성해 볼 때 이같은 모순의 시정이와 법령 내용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들 건축인들의 노력이 너무나 미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건축인들은 건축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과 보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건축법 중에서 주택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 건축법의 실제 규제 내용을 대별하면,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건축물 자체의 질을 최소한 보장시키기 위한 개체 규정이요, 다른 하나는 도시 계획 적 견지에서 시가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물적 환경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집단 규정 이다.

전축법 제 2장(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와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 2장(일반 구조), 제 3장 (구조 강도), 제 4장(피난 시설 등) 제 6장(건물설비) 등이 개체 규정에 해당된다. 이들 개체 규정의 기준은 불론, 건축 구조, 계획 및 설비 등에 관한 학문적 또는 기술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반들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나라와 같이 근대화의 출발이 늦은 나라에서는 우선 선진국의 기준을 인용해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나라들과의 자연 환경,생활환경,경제사정, 관습 등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 조항의 삭제나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와 건축계의 외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법령에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건축범 제 18조 제 1항을 보면 '겨실의 창 기타의 개 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채광을 위한 면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채 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건축법 제정 당시 부터 일본의 건축 기준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전이 있는데, 지난 해 2월 12일자 제13차 개정 때 시행령 제 13조의 제1항이 삭제되고, 제 2항이 제 1항으로, 제 3항이 제 2항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전 제 1 항은 개구부 가까이에 다른 건축물이나 같 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있어 개구부의 면적에 비해 채 광 효율이 적을 때, 유효 채광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 가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삭 제된 이유가 분명치 않다. 건축물들이 밀접한 상업기역 같은 곳에서 그 규정대로 채광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같은 규정 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주택들의 건축 현실을 보면, 책광 효율이 극히 나쁜, 옆 집 벽과 거의 맞붙은 창이 라든지, 출입문만 있고 창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방하고 사이에 있어 전혀 외기와 접하지 않는 캄캄한 방물을 가지는 공동 주택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유 효 채광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 없어졌으니 채광을 위 한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한단 발인가. 창만 내면, 그 면적을 모두 채광 면적으로 간주한단 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공포와 동시에 모든 건축인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공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이런 절차가 별로 없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 행해 주었으면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현 제 1항(개정전 제 2장)은 천창의 채광 유효 면적을 벽에 있는 창의 채광 면적의 3배로 본다는 내용이며, 제2항(개정전제3항)은 개구부의 외측에폭 90 cm 이상의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의 7/10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두항이 위 설명한 개정전 제 1항 보다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특히 현 제 2항은 일본식 주택 건축의 특징인 바깥 마루(縁側)때문에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이런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규정은 그대로 투면서 일반 벽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유효 채광 면적 산정 기준을 없앤다는 것은 본말 전도도 이만 자만이 아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둘 것은, 항 목 등을 삭제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시행령 제 13조의 경우처럼, 항목을 바꾸 지 말고 조 삭제의 경우와 같이, 삭제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삭제라고 표시해 두는 것이 자주 변하는 법령 내 용은 이해하는데 편리하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건축법 제 19조는 그 제목이 '주택의 거실 설치'이며, 그 내용은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문구를 역으로 해석하면, 지표면 이상에 설치하는 주택의 거실은 환기 기타 위생상 자장이 있어도 된다고 해석된다 알고도 모를 규정이다.

이 조항은 원래 그 제목이 '주백의 거실 설치의 금지'였으며, '지층'에는 주택의 거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었다. 그려던 것이 1975. 12. 31일자 제5차건축법 개정 때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 버렸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5호는 '지하층'의 정의인데 '지표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2/3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이란 용어는 건축법에 없었고, '지층'이란 용어가 있었으며, 그 정의도 앞에 적은 현 '지하층' 정의 중 2/3가 1/3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층'이란 용어가 나오는 유일한 조항이 이같은 지층에 주택의 거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제19조였다. 이같은 내용은 건축법 제정 전에 사용하던 일제 때의 시가지 계획령 안에도 있었고, 현재의 일본 건축 기본법에도 있다. 그러던 것이, 비상시에 대피소가 필요하다는 국방상의 요청에 맞춰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이 '지층'을 명칭만 '지하층'이라 고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이 '지하층'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1970, 1, 1일자 제 3차 개정) 그 후 '지하층'의 용어 정의 중 1/3을 2/3로 개정되었다.(1972, 12, 30일자 제 4차개정). 이때 까지도 법 제 19조(지층에서의 주택등 거실의 금지)는 아무런 개정도 없었다. 그후 1975, 12,

31일자 제 5차 개정배 현행대로 먼저와 정 반대의 내용으로 개정해 버렸다. 법 개정을 다루는 태도가 얼마나 허술한 가를 알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하층'의 개정에 따른 모순에 대해서는 필자가 몇 번 지적한바 있다."¹⁾)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의 보편 적 구조인, 조적 구조의 내력벽 두께 규정에 대해서 살 펴 보자.

원래 조적조에 관한 규정도 전축법 제정때 일제 때의 시가지 계획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었는데,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관동 진재 때 벽돌조 건축물의 피해에 놀라, 조적조 건축물은 거의 건축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가 그 모순이 지적되어 1973, 9, 1일자 시행령 전면 개정때 상당히 완화시켰지만,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다.

현,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 5m이상 1im미만, 다 시 말해서 2층이나 3층의 주택인 경우, 벽의 길이 여 하를 막론하고 1,2,3층 어느 내력벽이나 그 두께를 모두 19cm 이상, 즉 한장 쌓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단층이나 2층 주택인 경 우, 아래 웟층 할 것 없이 바깥쪽은 반장 붉은 벽돌, 안 쪽은 반장 시멘트 벽돌로 공간쌓기 또는 붙여 쌓기로 하 는 경우가 많다. 조적조의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할때에 는 어느 한 쪽만의 무꼐를 벽 무깨로 본다는 규정으로 보면 위와 같은 공간 이중벽은 전부 위법이다. 그러나, 지진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반이 좋은 곳에서 는 이런 이중벽도 테두리보를 제대로 쳤을 경우, 내력 상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규정도 재검토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조적 조 내력벽의 기초를 최하층 바닥면 이하라고 규정하고, 기초중 밑받침 상부 부분을,최하층 벼 두께의 2/10를 가 산한 두께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구조내력상 필요도 없고 구조상 할 수도 없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삭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지적한바 있다.

벽돌벽 두께 뿐만 아니라 주택 전축에는 그리 많이 적용되지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이음, 바닥판 두께에 관한 기준등 많은 부분이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구조 계산 규준과 틀려, 건축기사나 건축사 시험을 보는 경우, 시험 과목에 따라, 다른 답을 써야 정답이되다는 웃지 못할 모순도 많다.

집단 규정은 제 3장(도로 및 건축선) 과 같은 제목의 시행령 제 7장 법 세 4장(지역 및 지구 내외 건축물의 제한) 과 같은 제목의 시행령 제 8장, 그리고 법 제5장(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과 시행령 제 9장(대지에 의한 건축제한) 등이다.

주택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가지 형성에서 가 장 먼저 이루어지는 전축물이다. 한번 대지가 분할되고 도로가 형성 된 후, 주백들이 들어서면 후에 개개 주택 들이 개축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시가지 구성 형태 자체가 개조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주택 건 축에 대한 집단 규제야 말로 시가지 형성, 나아가 도시 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규제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런데 좋은 주택지 건설을 위한 규제는 건축법 만으로는 안되고, 도시 계획법을 위시한 관련 법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데지 분할 규제,지역 지구제,지구 상세 계획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합리적인 주택지 건설을 폐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대지 분할 규제나,지구 상세 계획등 제도를 도입 못하고 있으며,지역 지구제와 건축 법규만 채택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도 대단히 허술하기 때문에 아늑하고, 환경좋고 합리적인 주택지 형성은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현건축법의 집단 규정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보다 효과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 건축법의 집단 규제는 원칙적으로 '대지'를 기준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전 째울,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지는 도로와 2m만 접하면 되 고, 주거 지역이나 순주거 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은 90m² 에 지나지 않고, 주거 전용 지역의 경우도 200m²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여하의 도시 및 읍ㆍ면의 도 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150m²)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성 시가지의 세분된 대지 면적 올 생각할 때, 최소 대지 면적을 크게 잡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새로 개발되는 주택가에서 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현명한지 -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주택의 건축 형식에 는 연립주택, 공동 주택, 고트 하우스 등 여러가지가 있는 으므로, 단독 주택의 경우는 최소 대지 면적을 보다 크 게 규정하는 것이 장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땅값이 비교적 싼 소도시의 주택 전용 지역의 최소 대지 면적이 대도시의 최소 대저 면적 보다 각게 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다.

주택간의 인동 간격 확보는 통풍,채광, 프라이버시 등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1973. 9.1일자 시행령 전면 개정 전만 하드래도,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벽이나 처마가 인접 대지 경제선에서 얼마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때까지 민법에 있는 규장에 따라, 벽면을 인지 경계선에서 50cm 때기만 하면 되었고, 처마끝은경제선을 넘지만 안으면 되었다. 그러던 것이 공동 주택이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동간의 채광 통풍 프라이버시등 문제가 일어났고 이에따라,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1973. 9.1령.제167조) 및 대지안의 공지

(1976. 4.15. 령제 168조의 2) 등 규정이 신설되고 몇번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그 내용에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여하 분, 이같은 규정으로 인동간의 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되게 되었으며, 특히 공동 주택의 경우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경우 일률적인 인동 간격 확보보다는, 동지때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규정이 보다 보건 위생상 좋고 아늑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시킬수 있다.

현행건축법 집단 규정에서 가장 문제 되는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 방법이다. 주거 지역 내에서 2층이하의단독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작부분의 높이에따라 북쪽은 집대지 경계선까지 그 높이의 1/4만큼 떼어야하고(령제167조①가)기타 방향에서는 외벽 각 부분을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이상 처마끝을 20㎜이상 떼어야한다(령제168조의 2②). 또한, 준주거 지역 내에서는 북쪽 외벽을 정북 방향으로 1㎜이상. 기타 방향은주거 지역에서와 같이 떼어야한다(령168조의2②).

위와 같은 규정들이 인동 간격을 어느 정도 삐어 놓음으로서 통풍 채광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겨 지역내최소 대지 면적을 90cm²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실정에서 모든 주택을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빠지 안으면, 건축할 수 없는 정책이, 과연 토지 이용상 옳으며, 좋은 주택지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문제다. 집 주위에 공지를 확보하는, 소위 개방식 주택 형식은 한 대지의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구라과 도시에서 발달한 형식이

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재래 전통 주택처럼, 가운데 마당을 두는 위요식 주택이 발달해왔다. 서구에서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땅값이 오름에따라, 코트 하우스의 장점을 재인식하게 된것이 우연은 아니다.

개개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로 특히 대지 규모가 적은 경우, 환경 좋은 주택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그 래서, 지구 상세 계획 또는 환경 성과식 규제 - 예를 들 어 일정 거리이내에서는 다른집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을 내서는 안된다던가, 어떤 방 은 동지때 하루 몇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든가, 인접 기존 주택의 최소 일조 조건을 방해하게 건 축해서는 안된다 하는동 -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같은 방법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 실시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전이 그만큼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코트하우스의 건설이 가능한 길은 지금이라도 트게할 수 있다. 가령, 집단으로 몇채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또는 기존시가지에서도 이웃간에 동의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대지 경계선에 맞춰 벽이나 처마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쓸데 없는 담을 없애고, 재래 한옥처럼 쓸모있는 마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행 규정으로 생겨나는 이웃집 사이의 공간 보다 훨씬 유효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통풍, 채광, 프러이버시등에도 좋은 주택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 1974년 「전축사」No. 63, No. 68. 1976년 전축한국 Vol 3. (※)

(P. 32에서 넘어옴, 주택의 혀와 실)

는 방법이 종래의 수공업적 기능 행위로 조성되는 단독주 택을 계획하던 개념으로 고집할 수가 있겠는가?

한편 단독주택의 건축주의 구체적 욕구에 의해 행하여 지는 주택창작 과정에 있어서 서로 설계도를 경검 다리로 하며 표기수단에 의존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주택질 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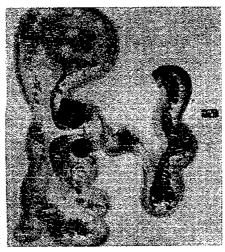
설계도면제작에만 그치는 설계행위인지 주택전축 조성을 위한 설계세작 행위인지 어느것을 위하는가를 규명하기 조차 스스로 자성하기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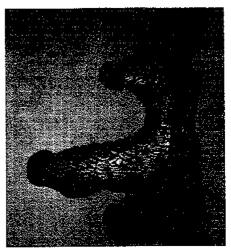
나만큼 잘그리는 설계보다 뜻대로 때듭진 주택실체로 확인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 건축가의 생명일 것이다.

(*)

会買文芸







空間의 生命(I)

생각하며 그리고 그리면서 생각한다.

남는 것은 道具의 자욱 손의 자욱

호르는 時間의 자국만 남는다.

짙은 곳은 굵은 가지 엷은 곳은 가는 가지

脈만 남는다. 뼈대만 남는다. 点, 線들만 남는다.

보이지 않는 点,線,形은 映像처럼 남고 (心象) 朴商浩 (石林建築研究所)

> 그 자리위에 새로운 再現의 色点이 맑게 빛을 토한다

그대여

우리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세

空間의 生命이 어디에 있으며

創造의 意志가 무엇인가를…….

赤. 靑. 黄 三原色의 始発과 発展에의 線形帶

迂廻와 曲折 混合과 混存 無에서 有에로의 発展帯

純에서 潤에로의 螺旋運動 物質과 에너지의 均衡運動

無数한 形像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有機的 長行路에서

오늘은 어제를 생각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의 広場에서 盛大한 잔치를 배푼다.

* 住宅設計作品誌上展 特賴을 마련하며

스물네개의 住宅作品만을 모아 特輯 誌上展을 꾸며보았다.

이번 住宅作品結輔의 숨은 뜻은 人間과 가장 밀접한 生活空間으로서 전재 우리나라住宅의 現住所는 어디인가를 밝혀,보다 훌륭한 住宅作品設計에 이바 지하자는 하나의 뜻과 표日의 住宅을設 計하고 꾸며 나갈 建築学徒들에게 (住 宅設計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学究的인 밑거름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教育的 배려가 다른 또 하나의 숨은 뜻임을 적는다.

本誌는 그동안 內容上의 質的向上과 製作費節減을 동시에 병행하므로서 보 다 좋은 会誌만들기에 心血을 기울였다. ... 내러한 努力의 작은 結実이 本목에 선 을 보이는 住宅作品特賴編인을 밝히며 81年度 本会 5 大政策事業가운데 한몫을 차지하고있는 会誌의 혁신적제작에 더욱 邁進활것을 다짐한다.

한편 보다 生動感있는 誌上展을 위해 作品選定과 아름다운 지면배치를 위해 여러 편찬위원들의 혐이 여니때 보다 컸다. 앞으로 本誌는 住宅作品 特賴을 契機로 特定用途別作品特賴을 기회있을때마다 마련하고자 한다. 会員諸位의많은 참여바라며 끝으로 이번 特賴을 위해 좋은作品을 보내주신 会員깨 깊은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編輯者 /





崔州 住宅

劉 圭 成 (범양종합전축)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평창동.대지면적 / 620.10㎡ 건축면적 /143.7㎡, 1층 - 143.7㎡, 2층 - 113.46㎡, 지하층 - 57.6 ㎡ 연면적 / 314.76㎡ 구조/연와조,슬래브위 오지개와

□본적/서울 □생년/1932. 5. 16. □주요학·경력/한양대 건축공학과/한국방송공사주택상담역/및·범양종합 건축 대표 □주요작품/미신상고 도서관/건원기업사옥/유성기업사옥/풍성전기 장원공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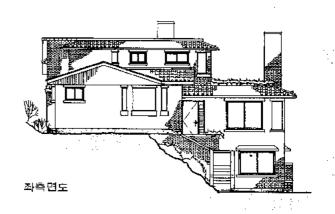
■ 設計概要

신선한 공기와 조용한 분위가 그리고 계절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찾아 탁자를 정한곳이 순바위로 가득한 대자에서 바위위에 세워져야 하는 여건 때문에 가능한한 바위원형을 살려 설계를 하여 달라는 건축주의 부탁으로 여기에 용하다 보니 계단이 일반주택보다 많은 감이 있으나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무리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점은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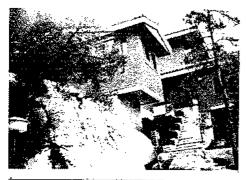
큰 바위등에다 집을 앉하고 보니 각방에서 보는 경치가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엿볼수가 있고 또한 자연그대로의 자연이방과 너무 가까이 접해있어 집에 앉아있어도 바위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수택이다.

자신이 자연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을 갖을 수 있는 수택의 분위기를 만들어 설계된 집이다.

외장은 안도적전을 사용하여 맵시있는 여자차림새와도 같이 아름다움을 구시하였고 색유리를 사용하여 색상을 부드럽게 하여 본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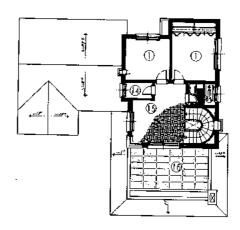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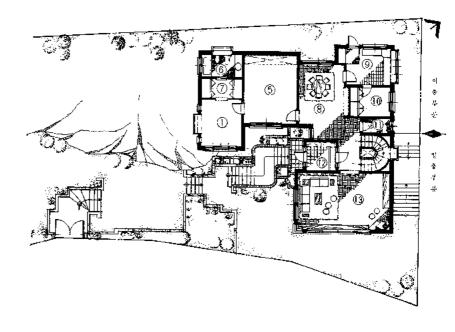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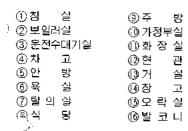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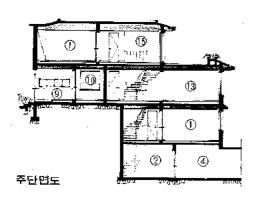
2 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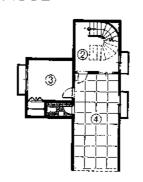
1 총및 2 총평면도











1 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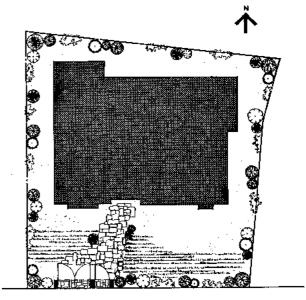
李州 住宅

소재시/서울 마포구 중동.내지면적/181.5m 건축면석/1 층-87.38m, 2층-61.69m, 지하층 10.56m 연면적/159.63 m 구조/조적조(붉은벽돌)

權 祥 雲 (산신건축연구소) □본적/사용 □생년/1943. 11. 3. □주요확·경력/언세대학교 공과대학건 축공학과/및·십신건축연구소소장□주요작품/동양고속서울터다넓/ 경목맨숀 (대구)/여강중고등학교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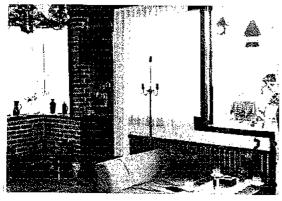
■ 設計概要

형소한 대지내에 중년교수 부부의 꿈을 생활습성 정적, 동적 생활공간의 분리내지는 차단된 부분으로서의 활성화,(자녀들의 규칙적인 생활교육의 연장으로서 분리된 공간에서의 가족들의 만남)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녹색공간,이같은 것을 기초로하여 나열해 보고 다시 정리 화합하여 보았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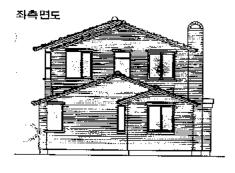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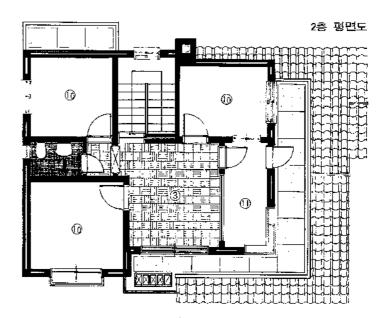
- ① 현 관
- (1) 전 원 월 3) 거 실 (1) 안 당 (3) 갱의실 (3)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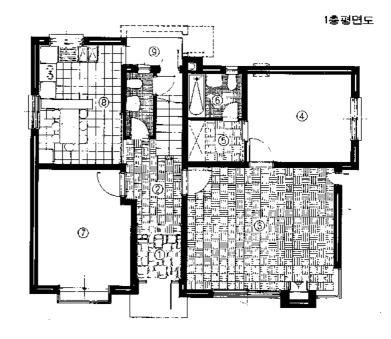
- ⑦ 가족실
- ③ 식당·부억
- ⑨ 미래다용도실
- (i) 학생방
- ①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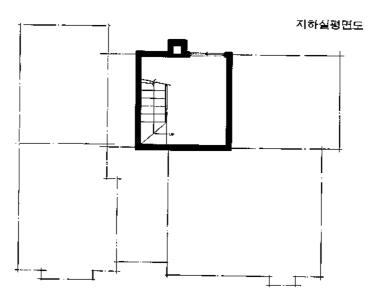


정면도









建築家의 집

金 大 植 (김건축연구소)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대지면석 / 323 .4㎡ · 건축면적 / 1층 -85.8㎡, 2층 -75.9㎡, 지하 -47.9㎡ · 연면적 / 209 .6㎡ · 건폐율 / 27.75% · 용적율 / 57.4% 구조 / 벽돌조적조 설비 / 오일 보일러

□본적/서울 □생년/1939. 6. 29. □주요학·경력/헌양대건축공학과/規· 김건축연구스 대표□주요작품/가정표 양발사옥/경기도 인양경찰서/남광 토 건(주)사목/계원예술고등학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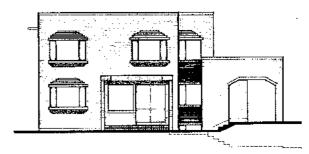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지형은 남북으로 결고 2면이 6마터 도로에 경사자게 결계 접하여 있는 대자로써 건축가가 자기집을 계획한다는 것이얼마나 아려운가 새심느끼며 지하치고의 줄입국의 - 대문과의레벨을 1.8마터 두고 본 건물은 1.2마터 더 울라가 결국 치고의 충고는 3마터가 되도록 기본 계획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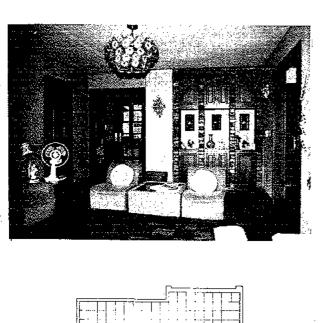
대문과 정원 및 건물현관은 레벨의 자이를 두어 동선을 직결하지 않고 계단을 두어 돌아가므로 통선의 편리함과 주출임에 여유있는 현관포자가 생기계 하였다. 내부 계획은 노모1인 자녀2인 내외 도합 5인 가족으로써 각방에 붙임장으로하고 내외방은 별도의 옷보관방을 두어 처리하고 1층 거실에 일부에레벨 차이를 두어 거실의 천정고를 좀 높게 하고 주생활은 1층거실에 중점두되 인략함과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폐쇄형으로 하고 노모방은 부엌으로 연결된 별도의 통선을 두어 유사시는 큰식당(가족외 여럿이 식사활 때)으로 활용 거실에 외래객이 있어도 뒷정리나 출임에 불편이 없게끔 2개의 출입문을 두었다. 내외방과 자녀방은 2층에 두어 침실전용으로 하되면소 욕실은 탈의실(옷보관병)과 복도로 연결된 2개의 출입문을 내어 처리하고 훗날 주인방(설계실)은 2층 테라스에 중축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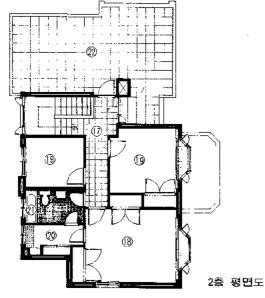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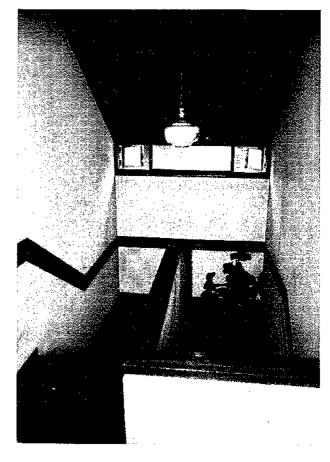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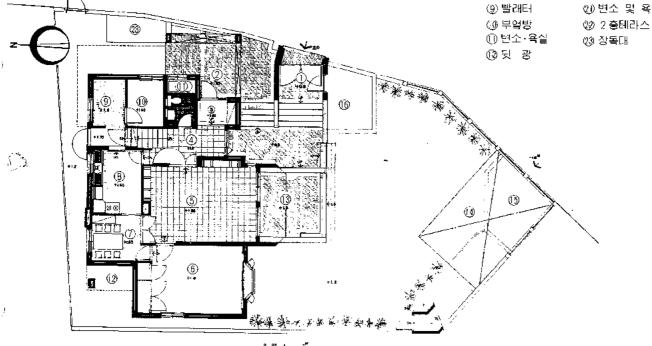








- ①대 문 ② 현관포치 ③ 현 관 ④ 현관홀 ⑤ 개 실 ⑥ 노인방
- ⑦식 당 ⑧무 얼
- ③ 거실포치
- ④ 지하차고
- ① 연 못
- (6)은 실
- ① 계단실 및 복료
- ⑱안 방
- ③ 학생방
- ② 탈의실 및 옷장
- ② 변소 및 욕실
- ② 장독대



배치 및 1층 평면도



朴刈 住宅

朴 吉 築 (三元엔지니어링)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평창동.대지면적 / 331㎡ 건축면적 / 지하층 - 29.52㎡, 1층 - 79.88㎡ 2층 - 31.76㎡건폐율 / 24.13% 단방 / 온수 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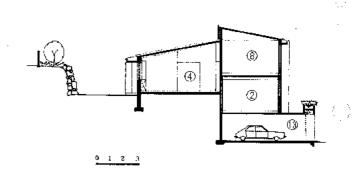
□본적 / 서울 □생년 / 1940. 8. 1. □주요학·경력 / 한양대건축공학과 / 서울 시 도시계획국 / 谀·상원엔사다여링

■ 設計概要

최소한의 거주면적으로 하되 거실 위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설계 외뢰를 받고 현장 답사하다 대지는 물론 대지를 둘러싸고 되는 도로의 고저자가 심하였으나 도심지내 무공해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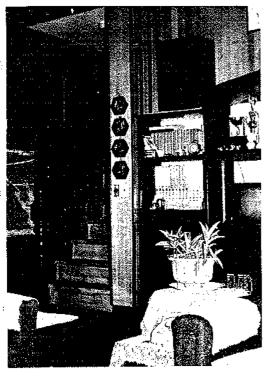
고저차를 이용 SKIP로 처리키로하고 Dead Space 를 줄이기 위하여 1층과 준층 거실 그리고 2층과의 연결을 복모 대신계단으로 해결하고 고저차가 있는 정원의 이용을 쉽게 하기위하여 남측정원은 거실에서, 북측정원은 주방 식당에서 출임토록 준층에 거실과 주방 식당을 두었다. 그려고 테라스는 자연조경과 이율리도록 호박들을 깔았다.

주방에 다용도실이 없는 대신 준층 거실옆 욕실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면적 만큼 약간 크게하고 욕실 바닥과 약간의 단을 두어 처리하였고 각 침실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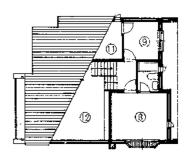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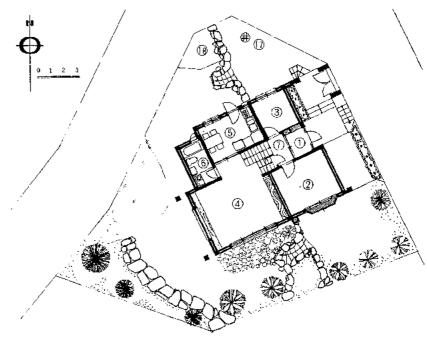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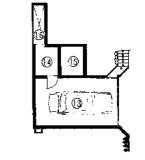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① 현 관 ş ② 할머니 · 딸방
 - ③ 아들방
 - 4;거 실 .5/ 식**당** · 주방
 - ③ 욕실·세탁실
 - (j) 계단실·창고 (8) 주인방
 - (🦫 방

- ⑪ 욕 실 ⑪ 물탱크실·창고
- ҈) 거실상부
- (경) 가실장무 (경) 차 고 (경) 보이라실 (경) 저수조 (경) 짓 트 (경) 장독대







朴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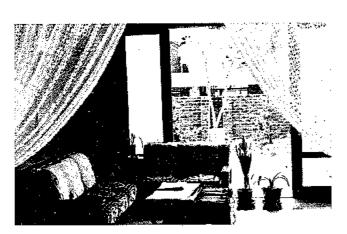
俞 鉄 鉀(유림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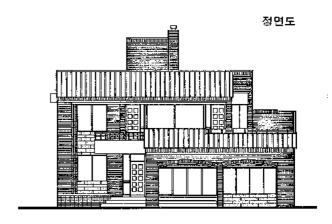
소재지 / 전북 전주 풍남동, 대지면적 / 290.4㎡ 건물면적 / 지층 - 36,72㎡, 1층 - 104,72㎡, 2층 - 59,78㎡ 연면적 / 201.22㎡

□ 본적 / 전북 □ 생년 / 1947. 4、14 □ 주요화·경력 / 홍역대건축과 / 중전대략교지역개발대략원 / 現· 옷링건축연구소대표 □ 주요작품 : 전주 및 고려에식장 / 거북아파트 / 전주대략교인문관 등.

■ 設計概要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조건과 단단한 소가족 생활 음악가의 취향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성 창조성 및 일조를 고 려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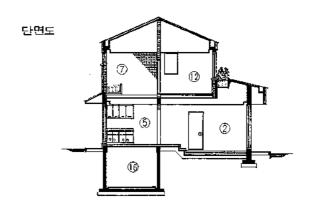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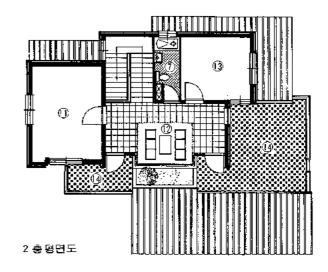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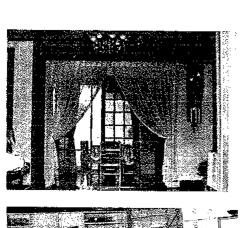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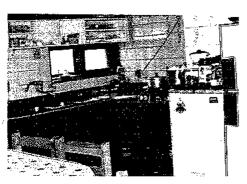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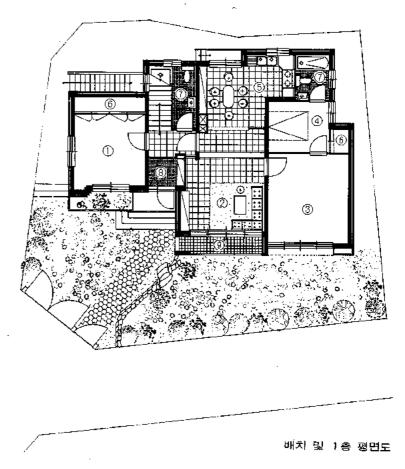
① 침	실	9	ы	라	<u> </u>
② 거	살	10	서	재	슽
③ 주 인		0	서	재	숕
④ 주인	침실	12	용	졉	$\stackrel{\sim}{=}$
⑤ 식당	주방	(3)	40	농	슽
⑥ 반	심	(14)	배	랻	Εŀ
⑦ 목실	화장실	3 9	Ë	显	Ŀį
⑧ 편	관	16	몆	일근	실













S 州 住宅

崔 東 奎 (서인건축연구소)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후암동.대지면적 / 722.17㎡ 건축면적 / 260.66㎡ 연면적 / 322.98㎡, 1층 - 193.31㎡, 2층 - 91.35㎡, 지하층 - 38.32㎡ 구조 / 조적조.설비 / 온수난방

□본적 / 중북 □생년 / 1947. 12. 10 □주요화 · 경력 / 한양대 건축공학과 / 한국 건축연구소근무 / 및 · 서인건축연구소 대표 □주요작품 / 상업은령 연회통지점 / 요성기계장원아파트 / 팔당칸프리물립하우스 / 주택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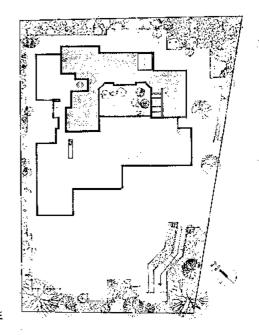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남산 관광도로를 끼고 그 밑에 위치한 본 대지는 처음 계획을 의뢰 받았을 때, 도시주택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풍부한 수목과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 주위 환경에 어울리는 건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리적인 사항으로는 전면도로와 후면 관광도로와 무려 10 이상의 차이기 나는 점 (두 도로가 다 이용이 가능하다)과 건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경사가 심하고 임반이 많이있 어 절토가 어려운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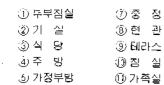
숙고의 결과 주출입을 전면도로로 잡고 후면 관광도로는 부 출입으로 이용키로 했다. 또한 건물배치는 절토의 어려 움을 고려지형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배치를 하였고, 기능삼으로는 아래윗층이 응별로 분리되었으며(아래층은 주인 및 도모, 2층 욘 자녀들 공간)상하층의 공간의 콤뮤니 케이션을 중정이 그 역활을 감당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외벽재료는 건축주와의 합의로 회색전돌을 사용케 되어 건물전체를 단일재료로 통일시켰다. 무엇보다도 건축주와 시공자의 이해와 통일된 호흡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이말할 수 없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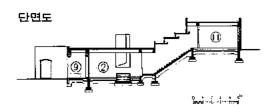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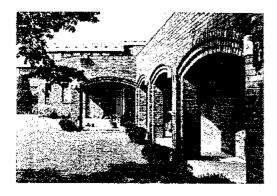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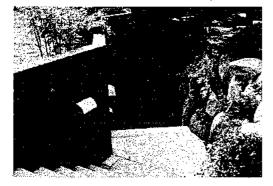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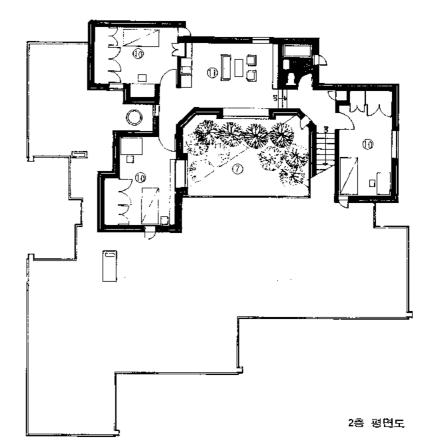
⑥ 노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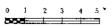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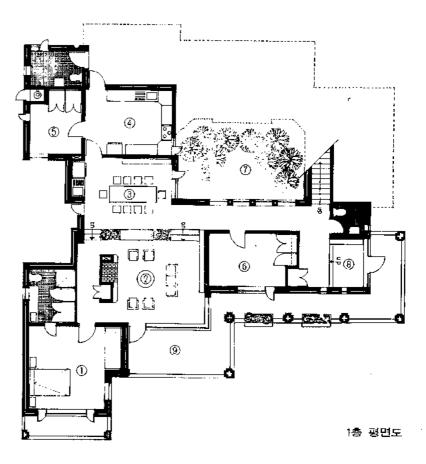














N교수 댁

李 永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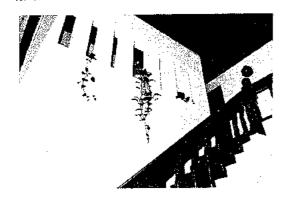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대방동.내지면적 / 611.0㎡ 연면적 / 348.31㎡ 지하층 - 97.32㎡, 1층 - 138.26㎡, 2층 - 112.73㎡ 구조 / 조적조 슬래브 외장 / 붉은벽돌, 스패니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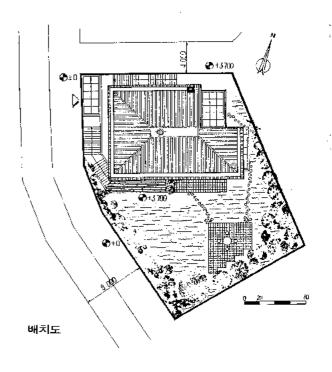
□본적 / 경복 □생년 / 1938. 5. 29 □주요학 · 경력 / 서울대 건축용학과 / 국 회사두처기좌 / 境 · 건화사 (함등) 소장 □주요작품 / 한국외환운행마산 · 부산 지 점 / 대통청주공장 / 부산 및 시울 교라운호텔 등.

■ 設計概要

비교적 넓은 면적에 동남축 8.0m도로에서 4.0m LEVEL UP 된 평탄하며 동남측으로 시야가 열린 좋은 입지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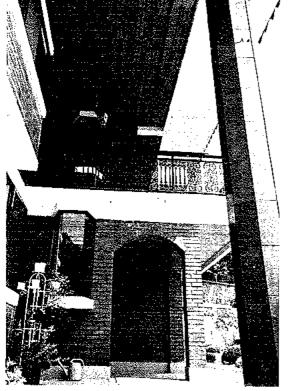
주된 도로 LEVEL에서 현관 및 PORCH를 배치, 일단 마음을 쉬었다가 변화있는 계단을 타고 거설(정원이 보이는)층으로 유도할까 했으나 그보다 잘꾸며진 정원을 감상하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이 한층 자연스럽고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평면의 흐름은 결정되었다. 여러번 경험한 일이지만 도면이 "테블"을 떠나 현장으로 옮겨진뒤 좀더 시간과 성의가 할에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건축가의 의도가 벽면 하나 하나구석구석 보다 더 정본되게 심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① 차 고③ 가 실② 몰탱크실③ 욕 실

③ 예비실

4 PLAY RM

9 옥 실10 다용도실

⑤ 가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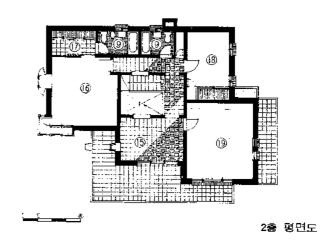
① 갱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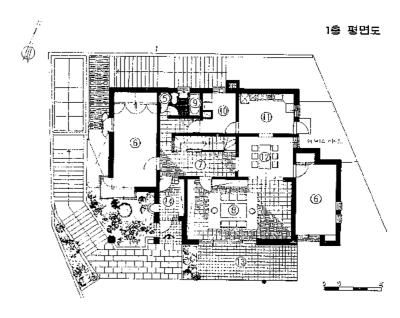
(8) 아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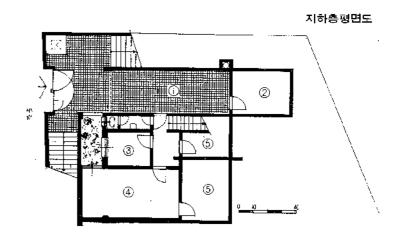
⑩서 채

⑥ 주인침실

- (1) 주 방
- ⑤ 창 고 ① 식 당 ⑥ 온돌방 ① 테라스
- () Teo () 에너스 () 홀 () 현 관









朴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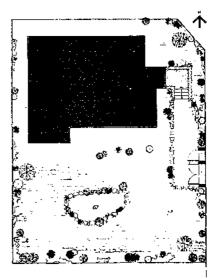
金 秦 勲 (신신건축연구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서초동.대지면적 / 445.42㎡ 건축면적/ 1층 - 117.09㎡, 2층 - 76.62㎡, 지하층 - 117.09㎡ 연면적 / 310.80㎡ 구조 / 조적조

□본적/경북 □생년 / 1940. 3.1 □주요화·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연세대대학원 건설공학과 / 연세대학교 강사 / 規・신신건축연구소 소장 □주요 작품 / 태평양화학 본사사옥 / 인덕전문대학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관 등.

■ 設計概要

통촉과 북측이 도로에 면한 대자로서 정남향이고 비교적 넓고 조용한 위치라 주택자로서는 좋은 곳이라 생각된다. 대문을 들어서면 현관에 이르기까지 시원하게 출입할 수 있고 정원의 정적공간을 깨트리자 않도록 현관을 측면에 배치하면서 좀 돌줄시켰다.

지하층은 건축주의 사업상 필요로 하여 창고 면적이많아 졌고 설계시 1층 계단실 밑에 둔 변소가 시공중 건축주의 뜻에따라 자하층에 옮겨진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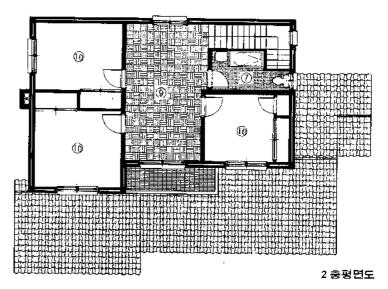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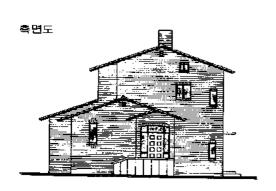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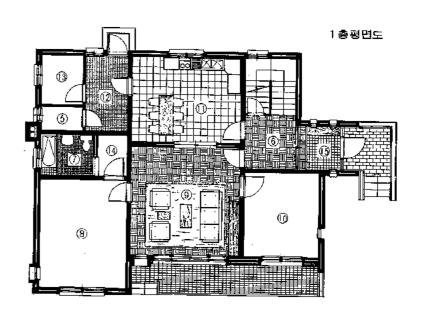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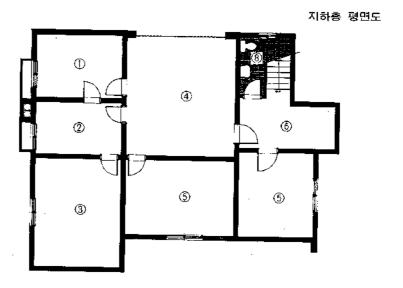
정면도



- ① 연탄보일러실 ② 기름보일러설
- ③ 대피실
- ④차 고
- ⑤창 고
- ⑥ 계단실
- ⑦ 화장실
- ⑧안 빙
- ⑨거 싵
- ⑩방
- ① 식당겸 부억
- ⑫ 다용도실
- ⅓ 가정부방
- ④ 갱의실
- (5) 현관









H 刈 住宅

黄 一 仁(종합환경연구소 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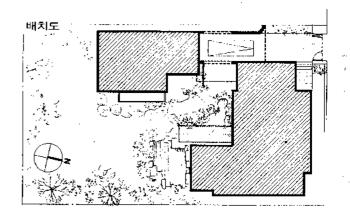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방배통.대지면적 / 500㎡ 연면적/294㎡ 1층 = 170㎡, 2층 = 46㎡.지하층 = 78㎡ 구조 / 벽돌조적조 몰 탈위 본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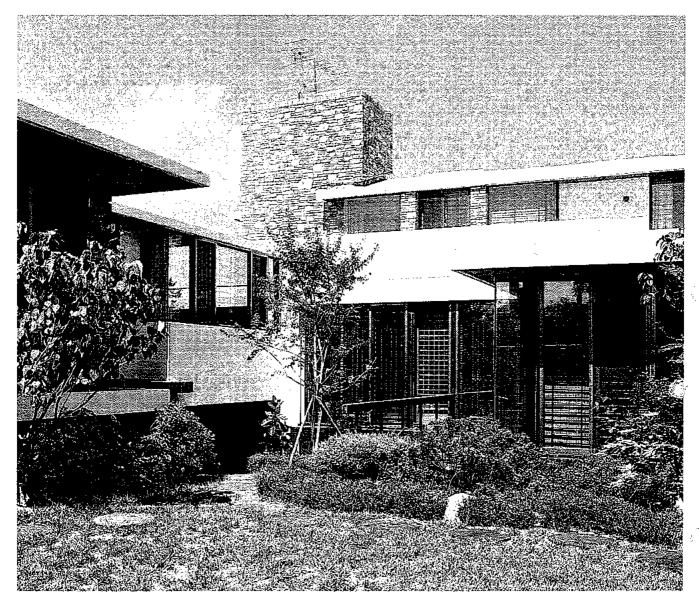
□본적 / 경남 □생년 / 1341. 11. 7. □주요확·경력 / 서울대 건축공학과 / 이화여대강사 / 됐·종합원경연구소 일건 대표 □주요작품 / 호텔서울가든 / 천호상업고등학교 / 울산궁대 (학생회관, 교수아파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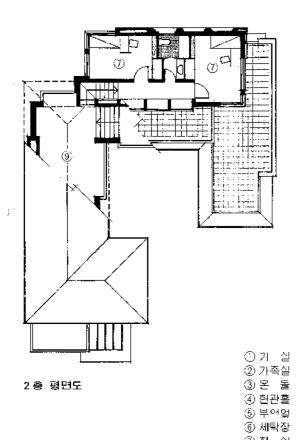
■設計概要・

중정(中庭)을 둘러싸고 있는 3개층의 서로 다른 레벨로 구성된 주택이다. 거실과 가족실(식당)이 주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3세대]의 가족들이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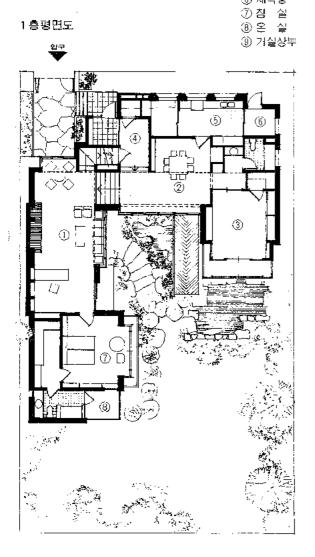
북축대문으로 부터 마당에 이르는 사이에 거지게 되는 중정 은 보는 정원으로써 지하실에 자연스런 채광이 되도록 고려되 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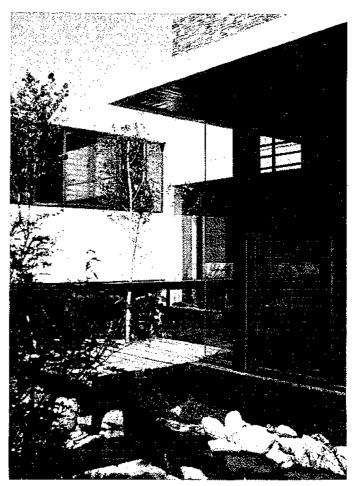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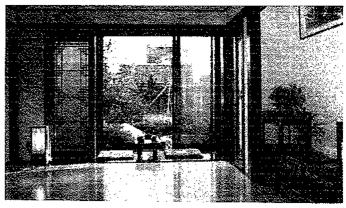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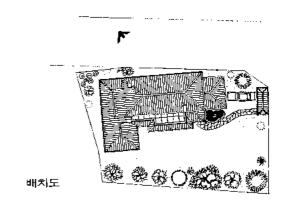
金씨 住宅

 소재지 / 서울 도봉구 쌍문동 대지면적 / 493㎡ 건축면적 / 115.02㎡ / 연면적 / 215.01㎡ 용적율 / 43.6% 구조 / 벽돌조적조 설비 / 기름보일러

 □ 본격 / 서울
 □ 생년월일 / 1934. 1. 7
 □ 주요학 - 경력 / 항망대건축과 / 연 세대건축과감사 / 项 · (주) 중합건축설계사무소공동대표
 □ 주요작품 / 불교 회관 / 일신산업오류플랜트 / 결소카우트회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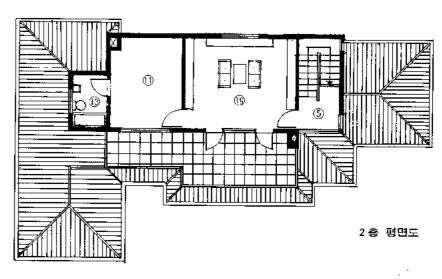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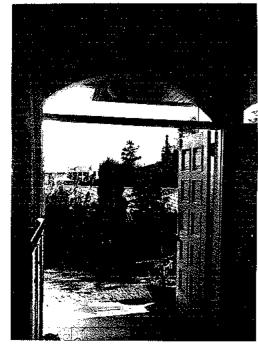
조용한 주택자의 환경과 대치의 여건으로 보아 동서로 길게 배치하여 각강의 채광통풍에 역점을 두었다. 겨실의 FIREPLA CES를 중심으로 각방으로 연결 온돌방과 침실을 노로와 떨어진 대자의 깊숙한 곳의 남쪽으로 배치 아늑함과 동시에 채광통풍에 역점을 두었다. 주방에서 곤란한 작업을 유타리타로연결배치하고 식당을 건물의 중심부에 두야 식사시간의 동선을줄이고 현관과 계단을 같은 1일에 두고 2층으로 올라오면 단순한 형식으로 서재를 단란실 겸용으로 살수있도록 하였다.전면에는 발코나를 두어 개방감을 갖도록 하였고 침실에서 바로욕실로 연결 동서로 간 형식의 건물에 동선의 간략에 주력하였으나, 지하층에는 보이라실과 지하증의 유타리타와 연결하였으며 테라스 밑에는 온실을 두고 지상과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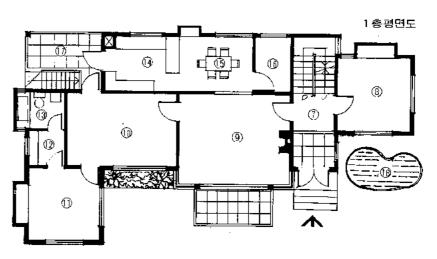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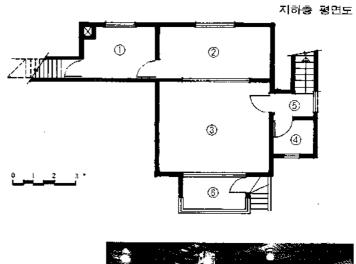
(1) 로이라?	NI	á b	침	살
	_			
② 다용도(≅	ĮĮ	갱 의	⊋
③ 지 하: 1	è	Û	욕	싈
④ 장	고	(4)	주	방
(5) ڇ		IS	실	당
® € 3	될	16	가정두	방
⑦ 현 관 🤅	喜	Û	유타리	ŒΙ
⑧ 확 생 9	랑	(g)	연	못
⑨ 거 :	¥	(ĝ	서	재
(1) 온돌: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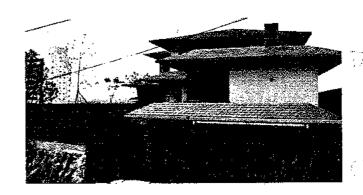
임씨 住宅

·洪 淳 寅 (대우전축연구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상동 대지면석 / 5/3.21㎡ 건축면적 / 153.43㎡ 지하층 - 18.31㎡, 1층 - 141.63㎡, 2층 - 79.3㎡ 건폐율 / 25% 외부 / 벽돌위에 백색 아크릴수지스플레이 지붕 - 천연 스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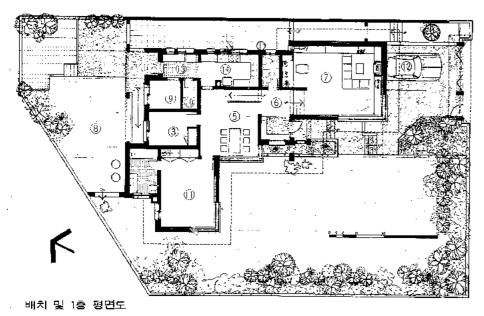
□본적/경북 □생년/1943. 2. 25. □주요화·경력/종약대 건축과/홍약대 대학원/중양대 예술대학 건축미술과 경시/형·대우건축연구소대표 □주요작 봉/출판문화학관/종류 CORF 빌딩/중북대학교 캠퍼스 미스터 플랜등

■ 設計概要

건축주와 설계자의 단남은 항상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어기에는 신뢰와 성실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건축주에 대한 애 정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장에 가서 본 대지가 또 한 다음에 들면 그야 금상점화 릴까, 설계기간 또는 공사 기간의 긴 여름날이 즐거운 시간이였고, 마지막에 입주시에는 건축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언제나 끝났을 때의 야쉬움은 자신의 노력의 결핍으로 돌리며 다음 프로젝트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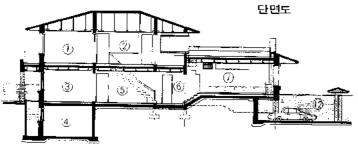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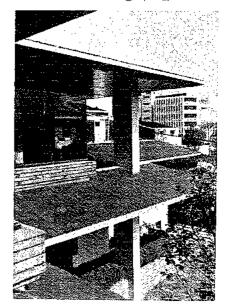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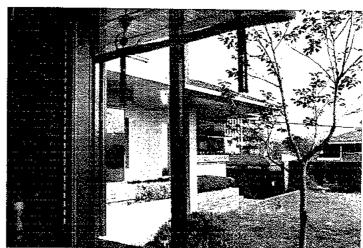
① 침 실 ⑧후 정
② 가족살 ⑨부얼방
③ 할머니당 ⑩ 장 교
④ 작업실 ⑪ 안 망
⑥ 역 당 ② 차 교
⑥ 현관를 ③ 세탁장
① 거 실 ⑩ 부 얼







2층 평면도





K 似 住宅

公 日 坤 (공일근건축)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방배동 대지면적 / 304㎡ 건축면적 / 70.5㎡ 연면적 / 152㎡ 구조 / 세덴트백돌조 위 몰탈마감, 지봉 - 천연스레이트얹기

□본적/경남 □생년/1937. t. 5. □주요학·경력/서울대건축공학과/감 수 근건축연구소/規·공일군 건축대표 □주요작품/안성교사/파시픽호텔/새한미디아 공장/주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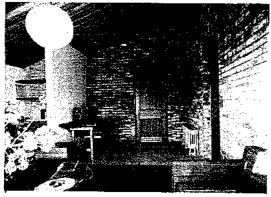
■ 設計概要

1층은(21평)부모가, 2층은(21평) 결혼한 딸 부부가 살도록설계한 서면주택이다. 낮에는 딸 부부가 맞벌이로 집을 비우면 노 부모가 1층에서 개방된 상태로 정원 및 외부 출입까지관리할 수 있다.

최소한도의 공사비로 지을 계획이 었으므로 평면 및 입체적으로 불필요한 기복이나 요소는 일체 없애고 단순한 구조에 의한 현대적인 표현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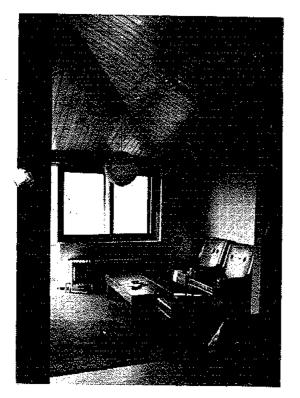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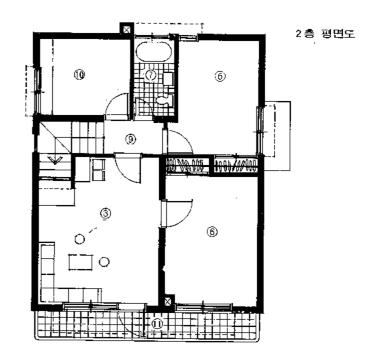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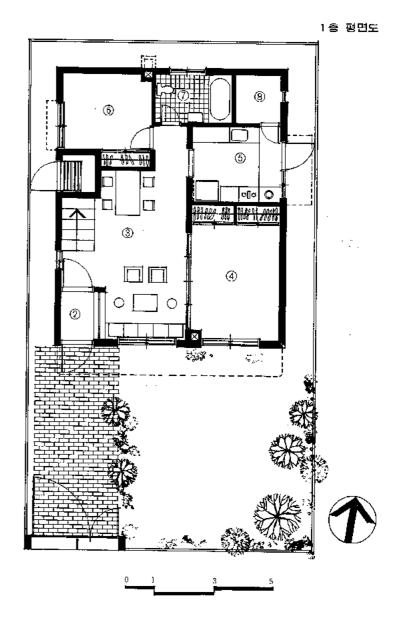


① 대 문 ⑦ 육 실 ② 현 관 ⑧ 장 교 ③ 거실검식당 ⑨ 2층복도 ④ 부모침실 ⑩ 다용도실 ⑤ 부엌 ⑪ 2층발코니

⑥ 짐 실









K 州 住宅

李 忠 彦 (전축연구소 원일)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방배동 대지면적/1,340㎡ / 건축면적 / 지하총 - 38.07㎡, 1층 - 185.64㎡, 2층 - 99.53㎡ 연면적 / 323.24㎡ 구조/조적조, 파벽돌 치장쌓기 설비/기룡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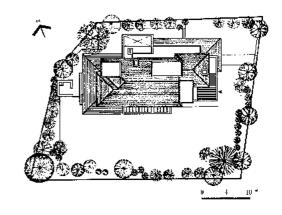
□ 본적 /경북 □ 생년월일 / 1941. 8. 15 □ 주요화·경력 /한양대건축공학과 /한양대대학원 /호남정유건축담당 / 평·건축연구소 원일대표 □ 주요작품 / 서울위생종합병원 /여수크립하우소 /구파방 성당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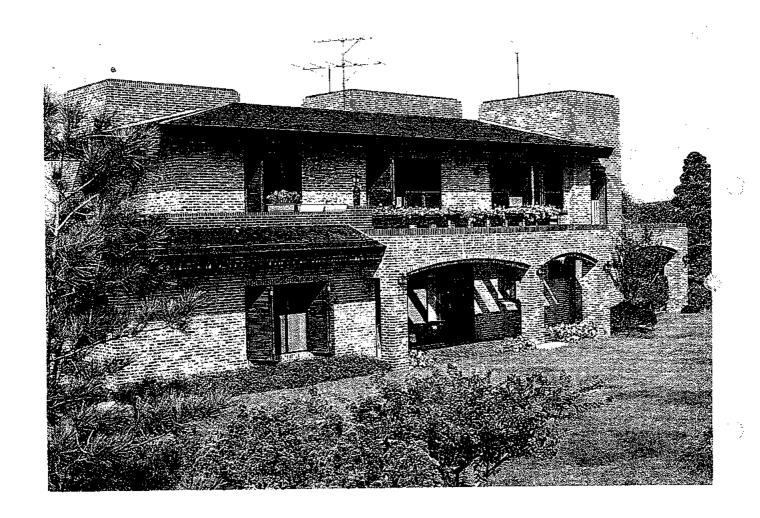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남향으로 트인 주거공간에서 바라보이는 푸른 정원은 바로, 푸르 룸의 한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따사로운 햇볕이래 온 가족이 마음껏 뒹굴 수 있는 푸른 잔디, 그리고 풀냄새에 묻혀 간단한 식도락을 즐 길 수 있는 바베큐 코너는 더욱 자연의 운치를 남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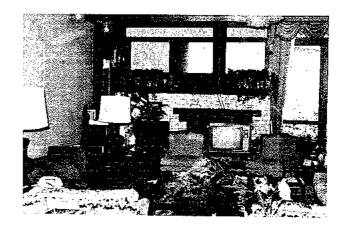
실내의 분위가는 아늑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구분과 이에 걸맞는 재료를 써서부드러운 구성을 꾀하였다. 조도 역시 밝고 어두움에 강약을 두어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거실의 벽난로는한 겨울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욱 감돌게 할 것이다. 각실은 가족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살리도록 건축주의 의도를 중분히 살렸으며 추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부의 작업동선을 최대한 줄여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게 꾸며 나갔으며, 고지대에 위치한 대지의 북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시가지의 전경은, 후면에 자리잡은 테라스와 상증발코니의 적절한 배치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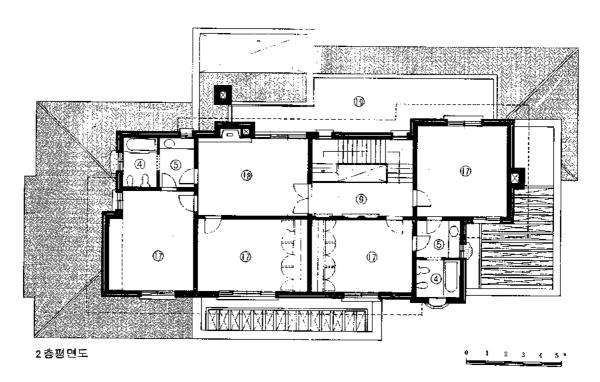
발코니에 앉아 펼쳐진 시가를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 그리고 머리 위로 뚫린 파고라의 틈으로 간간히 보이는 흰구름은 이 집의 작은 멋 이라 할 수 있겠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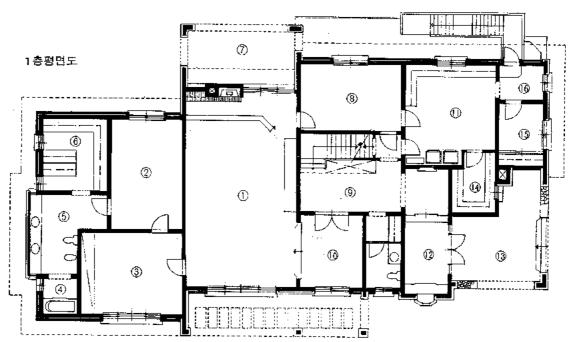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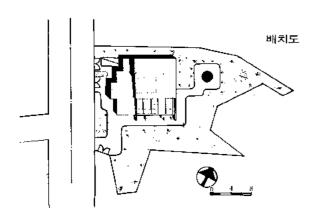
K씨 주택

洪 哲 洙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소재지 / 서울 도봉구 공능동.대지면적 / 594.9㎡ 건축면적 / '층-115.67㎡, 2층-39.86㎡, 지하층-33.05㎡ 연면적 / '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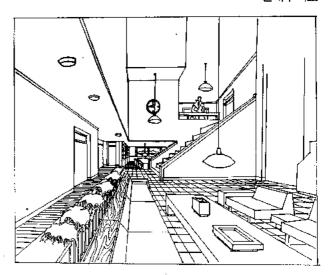
□본적/종남 □생년/1933, 8. 18. □주요확·경력/홍의대건중과/ 홍의대 한경대학원/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상수상/與·한국건축문화연구소대표□ 주요 작품/남강발당/원진례이운공장(용안)/제일정말창원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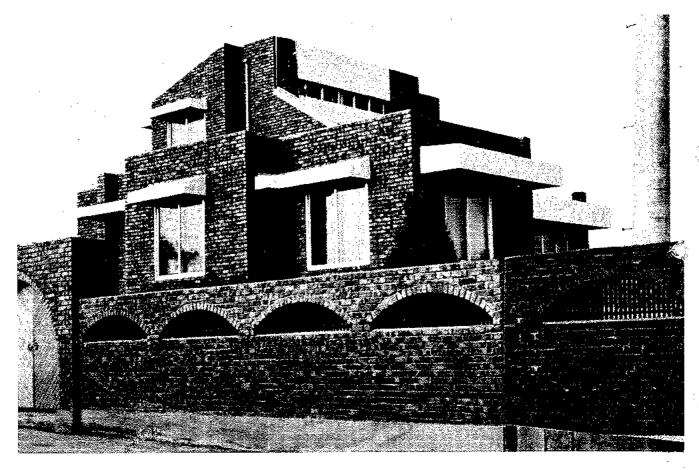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주택은 육사 정문 근처에 지어진 것으로서 육사 건물의 시각적 건축제한 때문에 2층 면적의 평수 제한 문제와 높이제 한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또한 풍치져구이기에 건축규 모에도 제한을 받아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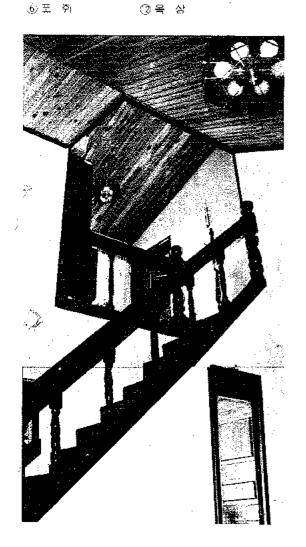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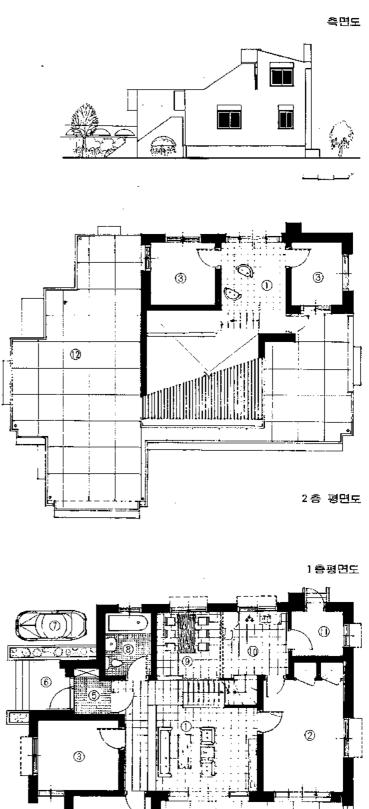














황씨 住宅

金 昶 — ((주) 정립건축)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통, 대지면적/654,77㎡ 건축 면적 /191,86㎡ 연면적/325,18㎡ 구조/조적조 설비/중앙 공급식난방

□본책 / 서울 □ 생년 / 1941. 2. 14 □ 주요학·경력 / 연세대건축공학과 / 한국운행왕선과근무 / 됐·(주) 정립건축 . 어사 □ 주요작품 M8 C 여의도 스튜디오 / 뉴설악호텔 / 프라자호텔 등

■ 設計概要

일단의 구획된 주택자임을 감안,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단순한 분위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남동축으로 펼쳐진 OPEN SPACE는 공간의 HIER ARCHY 를 위하여 현관과 거실을 통하여 내부로 관업될수 있게 주 D-ESIGN POINT로 생각되었다.

크게 구분된 기능을 그대로 노출하여 단순한 형태적 만남으로 유도하므로써 동일재질로서 보여질수 있는 공간의 전개를 적나라하게 하였으며, 반면에 각부의 상세는 더욱 정말한 가공을 통하여 가구적 친근감을 강조하므로써 공간의 밀도를 높이고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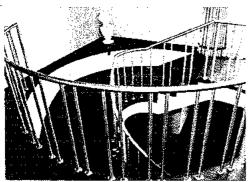
공간의 순리적 질서가 삶의 여유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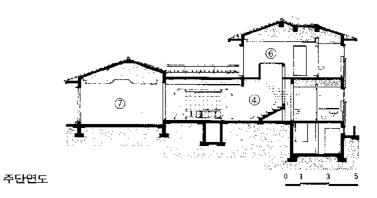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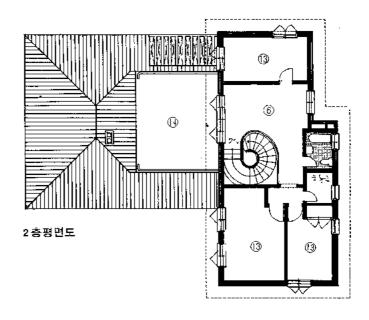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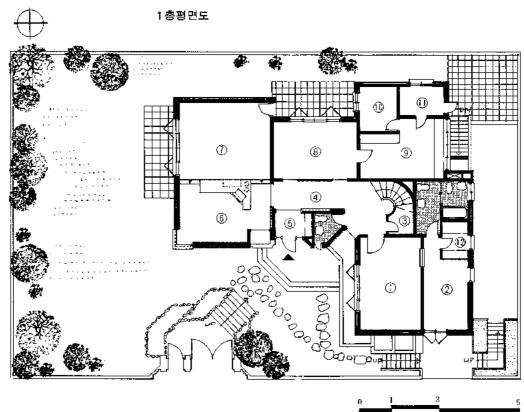














任州 住宅

片基 (신동아합동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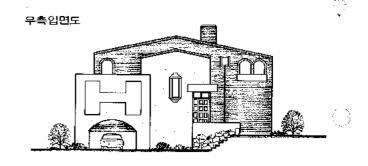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 대지면적/520,62㎡ /건축면적 /168.30㎡ 연면적/320,10㎡ 구조/벽돌조슬래보지붕 건 폐율/32% 용적율/60%

□ 본적 / 서울 □ 생년 / 1939, 5, 6 /방송공사근무 /現・신통아합동건축대표 □ 주요작품 / 선산및공주경찰서 / 체 신부태화전화국사 / 용산노라이 파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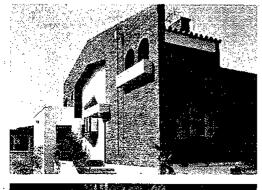
주요화·경력 / 한양대건축공학과

■ 設計概要

본 건물은 영통 산중턱에 자리한 주택으로, 주위 경관이주 거지로시 매우 쾌적한 느낌을 주고있어 대부공간에서도 외부 자연공간과의 느낌을 더 만끽하도록 거실에 오포닝과 대형창 효물 중삼으로(백단로 설치)계획하고 본래의 지형의 고저 차 를 이용한 대문에서 현관줄입을 정원계획의 호름에 따라 유 도케하고, 상충부분의 주거공간은 외부 발코나를 두어 줄입을 자유로이 하므로서 외부자연 공간과 접촉을 원활히 되게 계획 하고, 주위 경관에 맞는 구배진 기와지붕과 외장을 적벽돌과 본타일 통의 단일한 재료로 환경 및 경관에 배치되도록 작품 계획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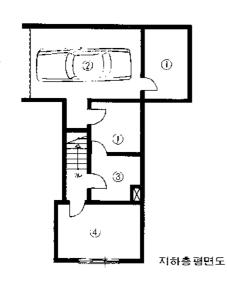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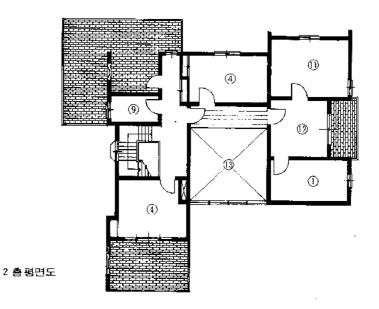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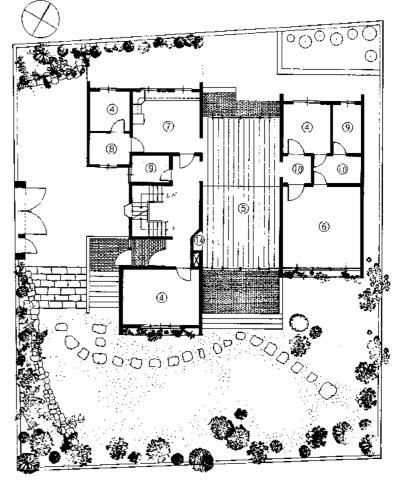












배치 및 1 쏡평면도

⑧ 다용도실 ① 창 \mathbf{I} ② 차 (9) ≘ 고 ③ 코이러실 1) 전 ① 0: 토 룸 @ 방 : ⑤ 개 (2) 서 재 실 ⑥ 안 ③ 오프닝 방 ⑩ 벽난로 ⑦ 주방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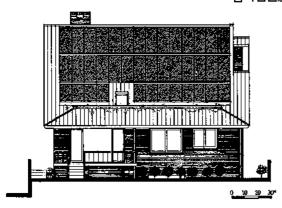
H씨 태양열 住宅

소재지 /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면적 / 391,50㎡ 건축면적 / 157,24㎡ 연면적 / 298,15㎡ - 구조 / 조적조 - 층수 / 지하1층 지상 2층 설비 / 농동형 난방시스템,집열판 / 삼성집열판

李 康 植 (완종합건축(주)) □본적 / 경기도 □생년 / 1938. 4. 28 □주요확·경력 / 한당대 건축공확과 / 現・완종합건축 (주)대표 □주요작품 / 장향동공고등학교 / 설약산유스호스텔등.

서측임면도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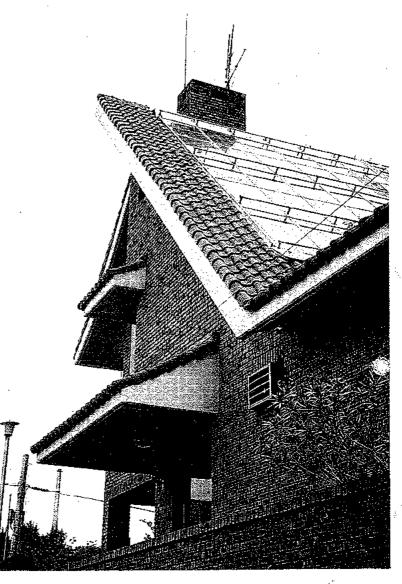
1980년 7월에 착공하여 1981년 2월에 준공된 본주택은 경사진 슬래브위에 부착된 태양열집열판(solar collector)과 1층의 넓은 개구부를통한 태양열의 집적이 이 주택의 주열원 이며, 보조열원으로서 Boller와 연결 사용하였다.

외벽은 50mm 스티로폴을 2중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개구부는 2중창,2중유리로하여 충분한 단열효과를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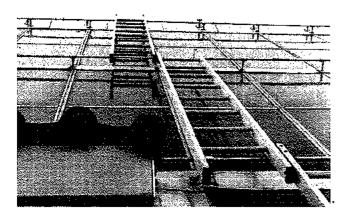
외부조형에서는 집열판의 Mechanical 한 분 위기를 부드럽게 보이도록 2층 테라스 부분에 조경처리를 해주었으며, 외벽은 붉은벽돌로 자 봉은 Spanish Style 기와로 마감하였다.

본대지는 도심에 인접한 계획된 주거 지역으로 좀 경직된 감이 있는 대지이며, 따라서 주변 주택과의 조화의 문제와 태양열 주택이라는 특 수성 사이의 갈등의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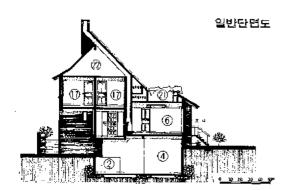
대자연의 순환이란 의미에서 태양열주택은바람작 하다. 아직까지 전적으로 태양열로만 난방에 이용될 수 없으며 또한 연구의 과제라 생각한다. 무공해 난방 방법으로 한편 oil shook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좀더 복합적인 SOLAR HEATING. SYSTEM을 연구하는 시간적인 아쉬움을 가져다준 주택이며 Collector 와 얼마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에 연구의과제로 남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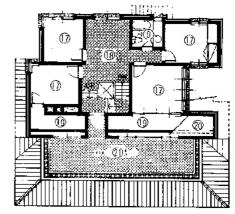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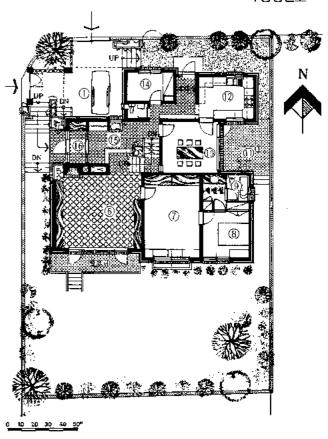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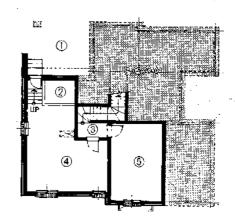


2 총평면도

1 총평면도



지하층평면도





李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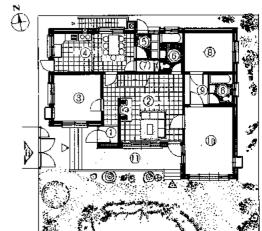
鄭 賢 洙 (고려건축연구소) 소재자 / 대구직할시 달서 제1지구.대지면적 / 261.03㎡ 건축 면적 / 108.67㎡ 연면적 / 157.03㎡ 건폐율 / 41.63% 용적율 / 60.16% 구조 / 조적조.설비 / 오일 · 연탄 겸용 보일러

□본적 / 경북 □생년 / 1940. 2. 19. □주요확 · 경력 / 엉남대학교 건축과 / 規· 교려건축연구소 대표 □주요작품 / 수성한의원 / 송라제일교회 / 포랑교회/ 양문교 회 / 씨주택동

■ 設計概要

남축의 사업장과 인접해 있으나 별도의 도로를 통한 주택 출입으로 순수 주택으로 유도했으며 평면은 일층을 어른의 장으로, 이층을 어린이의 장으로 서로간의 독립된 세계로 구분 하면서도 거실의 천정 OPEN으로 서로가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노력했다.

외관은 대지의 폭이 좁아 처마가 없는 형을 택하면서 전체 구상은 정답게 서로 손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면서 대 화하는 형으로 구상해 보았다. 거실 내부는 지나치게 인공적 이 아니도록 노력했으며 언제나 친근한 붉은 벽돌을 노출시켜 그 특유의 소박함을 좀더 가까이에 두었으며 정원은 사업장의 뒷문과 부드럽게 사엇길로 연결시켰으며 나무플로 분리를 시 도했다. 나무들은 가족의 취향에 따른 나무들과 꽃들을 적절 히 배치 했다.



① 현 관 (6) 욕 실 (1) 테라스 ② 거 실 (7) 장 고 (1) 역난로 ③ 응접실 (8) 침 실 (13) 둘탱크실 ④ 식당 및 부엌 (19) 탈의실 (14) 복 도 ⑤ 다용도실 (10) 내 실 (13) O P E N





K 씨 태양열 住宅

소재지 / 경남 마산시 평화동,대지면적 / 212,02㎡ 건축면적 98.0㎡ 연면적 / 215.0㎡ 건폐율 / 46.3% 구조 / 조적조 슬래 보경사지붕,층수 / 지하1충 지상 2층

金 孝 — (원건축연구소) □본적/부신시 생년/1941. 12.16. □주요확·경력/화양대 건축공학과 /한 양대대학원 건축공학과/심일로 발팅신축본부근무/現·원건축연구소대표□주 요작품/아욱실리물센터/우학쇼평센터/고려호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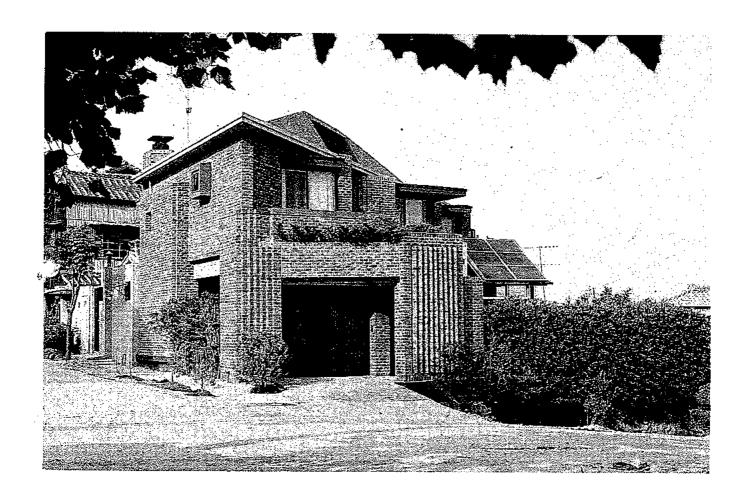
■ 設計概要 (Passive Solar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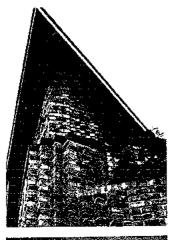
인간의 쾌적요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연에너지원과 지역환경, 그리고 복잡한 현대생활양상에서 오는 다양성과 그것을 통합하는 질서를 설계상의 주요소로서 평면과 조형을 구상하였으며, 완공후 1년동안 연구, 검토해 본 실험주택이다.

- ●배치계획:최대한의 일조효율과 정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서쪽 도로변에 붙이고, 차고공간도 개방시켜 넓게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2면 도로에 산호수울담으로 둘러진 주위환경과 도로에 지형반화에 따라 건물을 일체화되게함.
- ●평면구성: 각실을 정 4 각형, 원, 삼각형, 황금비구형 등으로 작도하였고, 엄격한 정남향배치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충별로 기능을 분리시켰다.
- ◆내부공간: 기하학적인 입방체, 삼각추, 원통을 상호 복합 시켜 다양한 변화의 접속공간을 구성하며 BOX 개념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도록 동질성의 공간을 피하고, 용도별로 독특한

개성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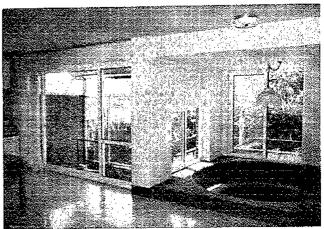
●자연에너지원 활용과 설비기능. 외부와 접한 면에는 철저한 단열시공을 하였고, 지하증과 1층은 암체적으로 온실과 접합시켜 자연난방하고 야간에만 2층 침실 부분에 기계난방 하여 최소학의 유가를 절감, 특히 지하3m의 자열(7~8월: 1617°C, 2~12월: 15~17°C)과 온실에서의 복사열을 동시에어용하여 겨울에 18°C, 여름에 25°C~26°C 공간을 유지할 수있어 풀륭한 냉난방효과를 독할 수 있다. 단 여름우기철에표면 및 내부결로 현상과 내장재선택에 각별한 검토가 뒤따라야한다. 그리고 태양열집열판으로 상시 온수를 쓸 수있고, 보이라와 연결된 굴뚝은 계단실에 노출시켜 배기열을 전부 이용함으로써 등일규모의 주택에 비하여 40~50%이상 기름을 절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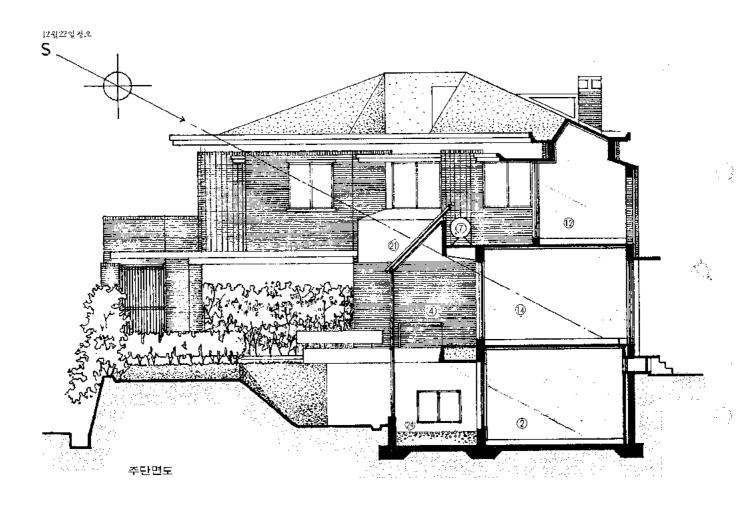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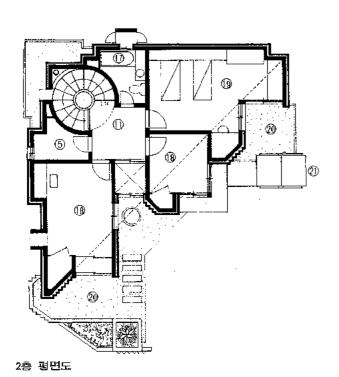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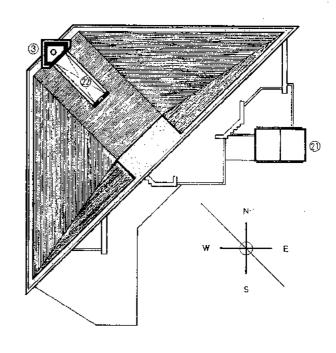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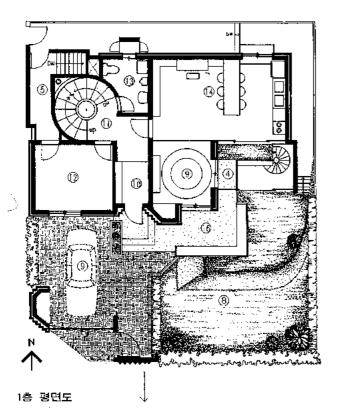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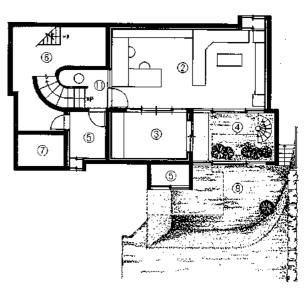
지붕 평면도

- 계단실
 아뜨리에용접실
- ② 아뜨리에종섭일 ③ 한식방
- ④ 은 살
- ④ 본 월⑤ 창 고
- ⑥ 보이러실
- ⑦ 물탱크
- ⑧정 원

- ⑨차 고
- ⑩ 현관홀
- ① 계단실
- ① 잠 실
- ③ 화장실
- ⑭ 식당 및 주방
- ⑯ 가족살
- ③ 테라스

- ①욕 실
- (8) 아동실
- ⑲ 주인침실
- ② 2층테라스
- ② 태양열 집열판
- ⑫ 계단살 천장
- ② 글 뚝
- ② 축열자갈충





_、지하층 평면도



유씨 住宅

소재지 / 경기도 평택군 비전리, 대지면적 /421,05㎡ 연면적 / 233.75㎡ 충수 / 지하 1 충, 지상 2 중 구조/조적조

金 永 奭 (국동중합건축연구소) □ 본적 /경남 □생년 /1933. 7. 11 □주요학·경력/부산대 건축공학과 /정부양곡보관창고기술용역단장 / 및 · 극봉중합건축연구소 대표 □ 주요작품 / 농렵대학교부실 및 도서관 / 농협중앙회 전남도지부청사·영동포 농산물공판장 /경기도농협연수원 등.

■ 設計概要

본 주택의 주인은 50대의 공두원으로써 노령의 부모, 신혼의 아들과 은행원의 딸을 둔 가죽이다. 노령의 부모님은 1층에 운돌방을 두고 같이 모시도록 했으며 2층에는 신혼의 아들과 은행원에 다니는 딸을 위한 점실을 두고 또한, 2층에는 신혼의 아들을 위한 발코니를 두어 분위기를 살려봤다.

① 지하실 .

⑥ 주방 및 식탕

② 보일러실

① 화 장 실

③ 온 돌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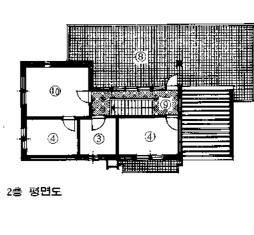
⑧ 베 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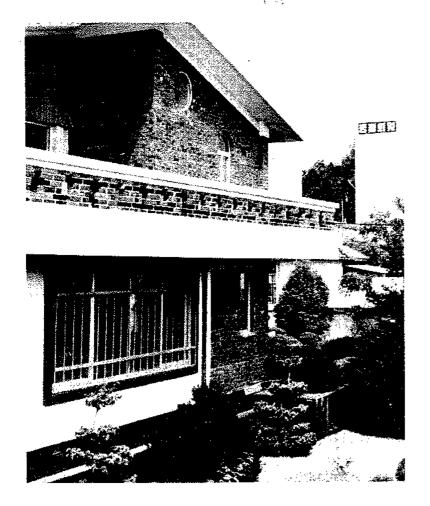
④ 침 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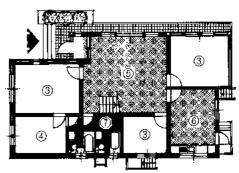
⑨ 홑

⑤ 거 🏖

10) 공 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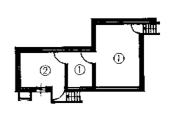






1총 평면도

배치도



지하층평면도



金氏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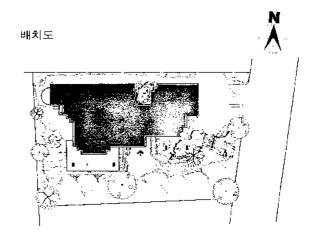
李 起 **範** (도시건축공사)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평창동.대지면적 / 819.8㎡ 건축면적 / 231.96㎡ 연면적 / 471.9㎡ 지하실 - 105.6㎡ 1층 - 224.4㎡, 2층 - 141.9㎡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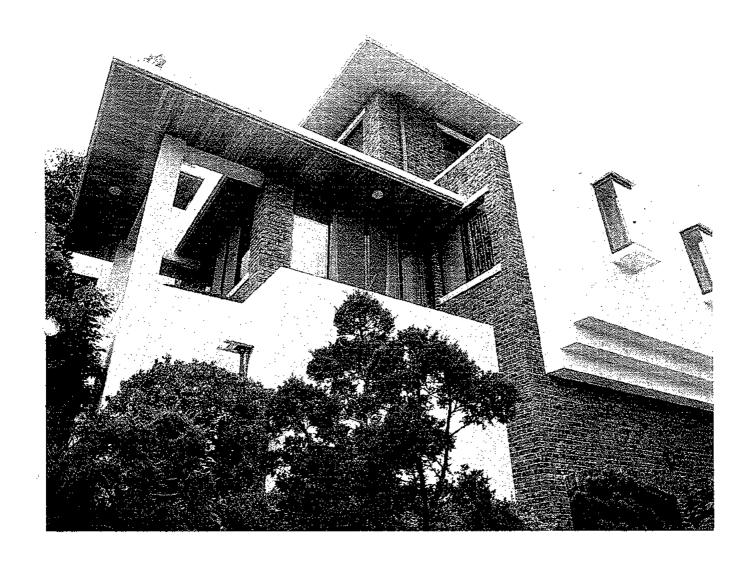
□본적/서울 □생년/1936. 6. 21 □주요학·경력/한양대건축공학과/대한 석공여의도본사신축지병현상설계 1등 당선/병·도시건죽공사 대표 □주요작 품/피정의 센터/부산아리랑관광호텔/신성교회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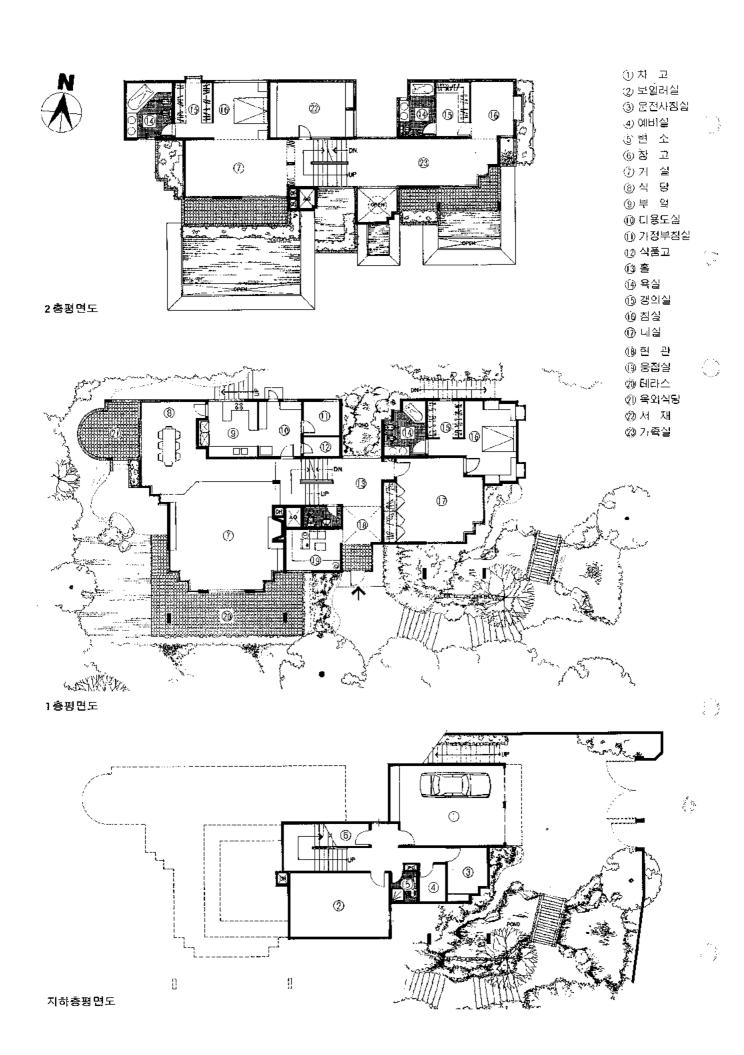
■ 設計概要

콘크리트 숲 사이를 수 많은 공해와 부닷치며 도망은 곳. 여기에 또다른 어떤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악이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도로에서 무려 5 -6미터 언덕위에 있는 대지, 그곳까지 이어지는 조금 긴 Approach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장검다리, 물,돌과 나무, 잔디, 그리고 꼭 그곳에 현관을 만들어야 했고, 아쉬움 때문에 중정이 필요했으며, 시간따라, 계절따라 변하는 한폭의 동양화같은 북악산의 절경, 그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인위적인 공간속으로 끌어들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벽체를 꽝꽝 허무러뜨려 창을 만들었다.

필연적인 Mezzanine Floor,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오르자.아직 3막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피곤하다. 이제는 아늑한 곳을 찾아 포근히 쉬어야겠다. 분명 내일 일어나면 자연과 인간이 빚어 놓은 물체가 어울려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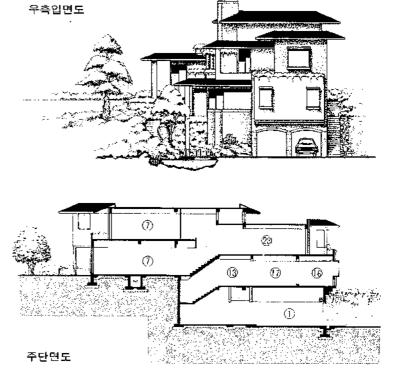














李州 住宅

在達 (중부산건축절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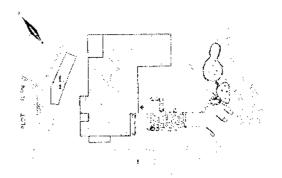
소재지 / 부산시 서구 당리동,대지면적 / 462,88㎡ 건축면적/ 152.89㎡ 연면적 / 282.09㎡ 구조 / 벽돌조(공간쌓기) 설비 / 난방 · 공조 · 위생 · 진기

□본잭/부산 □생년/1922. (1. 2). □주요학·경력/부산공전건축과(旧·부 산공림집업) / 歲→중부산건축설계사무소 대표 / □**주요작품** / 고려생명보험부산 재정사옥/부산일보사 사옥/유진화학진혜 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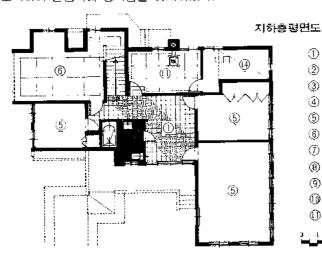
■ 設計概要

원 부지보다 1.5M 높게 서북층에 위치한 이면 소로(小路) 를 의식(본건물이 통로보다 낮으면 불길)한 건축주의 의향을 반영시켜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지하층을 설치 계획 하였으며 장차 2층 증축을 감안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을 조성한위에 목조트러스에 천연스레트 잇기지붕을 구성하여 다 락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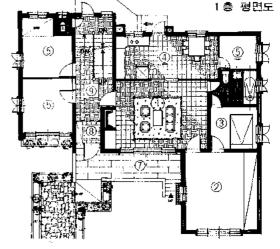
수조를 지붕 내부에 설치하여 미관을 살림과 동시에 한맹요 로 부터 보호하였다. 재래의 폐쇠적인 담장 내문을 대담하게 개방하여 1층 건물과 대문과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대문 우축 에 소규모의 폭포(瀑布)를 설치하여 낙수 소리를 들을 수 있 도록하여 출입시에 정서감을 갖게하였다.



배치도



- ① 거 실 ② 안 방
- ③ 침 실 (4) 식당 · 부엌
- ⑤ 방
- ⑤ 차 고 ② 테라스
- ⑧ 현 관
- ⑨ 喜 (1) 물탱크
- ① 기계실







金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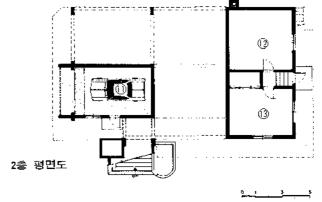
金 守 賢 (금강전축) 소재지 / 제주시 상도통.대지면적 / 387.0㎡ 건축연면적 / 202.20㎡, 1중 - 130.90㎡, 지하층 - 71.30㎡ 구조 / 벽돌 조적조. 술래보위 기와있기

□본적 / 제주 □생년 / 1941. 9. 3. □주요학·경력 / 한양대 건축공학과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 / 형·금강종립건축대표 □주요작품 / 강동화학 구연산공장 / 용존진 통청 제주시험장 / 숙산업협동조합 제주도지부 청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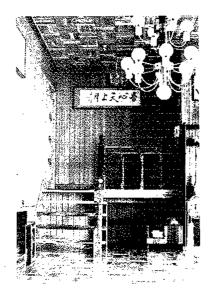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남쪽으로 한라산, 북쪽으로 무한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 위치로, 도로면 보다 낮은 지형을 이용하여 바닥층고 를 높임으로써 지층에 자고와 보이라실을 마련하였다.

부부와 국민학생 1인, 식모만이 단촐한 가정으로 2층 규모보다는 단층구조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동서로 긴 평면구조에 부부의 참실과 아동실을 포함한 부분의 바닥을 높게하여 내부공간에 변화를 두었으며, 길다란 지붕경사의 단조로운 외관에는 테라스부분 지붕을 한단계 낮게 처리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해 보았다.



배치 및 1층 평면도



① 현 관 용주 방 ② 거 실 9 육 실 ③ 주인방 (① 다락방 ④ 심 실 (① 차 고 ⑤ 학생방 (② 보이러실 ⑥ 서재실 (③ 관리실

⑦ 식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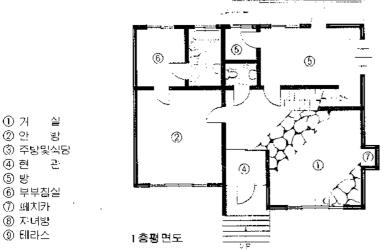
Ⅰ국 무관 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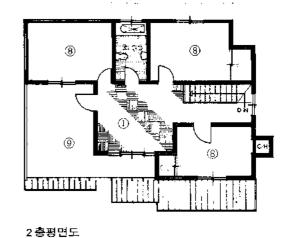
소재자 / 서울 강남구 역심동 대지면적 / 354 ,42㎡ 건축면적 / 125 .40㎡ 연면적 / 301 .62㎡ 구조 / 조적조 설비 / 온수 난방

金 大 魯 (한미건축기술공사) □ 본적 / 서울 □ 생년월일 / 1931. 11. 16 □ 주요학·경력 / 영남대건축과 / 한 양대대학원건축과 / 한성프리훼브 (주) 설계심장 / 現・한미건축기술봉사대표 □ 주요작품 / 선파워밧데라공장 / 영일고등학교 / 상환기업본사사육 등

■ 設計概要

대지가 경사점으로서 윗집 대자와의 그저차가 4.5m 낮아서 될수있는한 그 차를 좁하기 위하여지면으로 부터 2m 매립하여 도로면과 차고바닥을 동일면으로 하여 주차줄입에 원활을 도 모하였다. 건축주를 설득하여 응접실은 양식응접실과 한식 응접실(방)로 계획하고 후자의 경우는 한국고유의 가구 장식 품을 진열할 수 있게 하였다. 明 対 左







元老建築家探訪

사회적 공헌위해 作品활동 많이 해야

□出生地/平南大同郡 □本籍/서울 維別區 平洞 28 -1 □學歷/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京城高等工業學校/美國미네소타大學院修了/延世大大學院工學博士 □主要經歷/中央聽에서 局長歷任(48년)/三正土建 社長/綜合建築所長/서울工大待遇助教授/大縣建築學會會長/延大教授/延大工學部長/產業大學院長□賞罰/서울시文化賞/建築學會作品賞/國會議事堂設計 및 監理로 大統領표창 □著書/教會建築 計測/建築計勘 各論(共著)/한국의 종교建築에關한 연구□主要作品/ 明洞성모병원/종로YMCA/장춘채육관/연대학생회관·중앙 도서관/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다수

○ 對談 / 金奉勲〈본지편찬위원〉

□빈름없는 만날의 준비

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부터 아홉까지를 차 근 차군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그리고도 마지막 열을 한번 더 준비해야 가능하다.

건축가 金正秀 博士.

그는 짧은 동안의 만남을 위해 하나부터 열사이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기기에 열중한다. 오히려 그 에게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을 더욱 소 중하게 하려는 준비과정을 더욱 사랑하는 듯 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그러하듯이 한채의 귀한 전축물을 빚어 놓는 작업과도 흡사했다. 큰 기붕, 하찮은 못(釘) 하나라도 소중스레 다루는 듬지한 건축가의 의연함이 거기있었다.

이런 일면은 그의 화갑기념 대담에서 그의 제자가쓴 글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의 사상은 기능을 위주로 하는 건축표현"이라고~. 허석없고, 충실을 가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비록, 가을 어느날 오후 대학캠퍼스 깊숙한 연구성에 서의 반남여었지만 -. 작은 만남을 위해 김박사는 적지 않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조금도 서두르 지 않았다. 아니, 끝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金 正 秀 刈



□ 형님 권유로 건축전공 택해 적성에도 맞는것 같아 계속해. -

□ 全 새학기도 시작되어서 퍽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 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요즘 근황은 어떠시지요.

□金正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니까 늙었어도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늙으니까 건강이 문젠데, 4,5년전 에는 인생을 다 산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만해 져서…, 젊어서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요. 운동도 잘하 는 편이어서 유도가 3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건강 이 괜찮아졌어요.

□金 모습이 좋아지셨읍니다. 다행입니다. 근 40 여년 간 건축계에 몸을 담으시고 관(官)에도 계셨고, 시공 회 사, 설계사무소도 직접 경영 하시다가 지금은 후진양성 을 위해 학교에 계신데 건축가로서 지난날에 대한 회고담 같은 것을 들려주시죠. 김박사님 자신에 관한 것과 사회 적인 측면에서….

□金正 제가 건축을 한것은 형님 친구가운데 건축을하 신분이 계셨는데 그게 좋으셨던지 형님이 나한테 권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또 적성에 맞는것 같기도 해서… 그런것이 그럭저럭 40여년이 되는데 맨처음에는 官에 10 여년있다가 6.25천후에 시공회사를 한 2년, 그리고 설계 사무소를 10여년, 그리고는 학교에 20여년 있었으니까 결 국 학교에서 가장 오래 있는 셈이지요. 요즘 생각해 보면 한군데 계속있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 러곳에 있었으니까 고루고루 경험을 할 수도 있었다는 느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도 연세대에 제일 오래 있었고 한양공대, 서울 공대, 고려대 등에도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진 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었다는게 제게는 큰 보람이라고 여겨지 는군요. 특히 연세대에서는 천여명 가까운 후진들을 내보

□ 새로운 工法은 하루속히 받아들여 우리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냈으니까 유일한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학교에 있는 사람은 겸직 금지로 해서 작품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 입니다. 건축가가 본연외 일을 마음껏 못했으니까요. 作品활동을 소실껏했으면 사회에 좀더 공헌할 수 있었을 텐데말입니다.

□건축계 40여년, "내소신껏 해본 作品없어 아 쉬워…"

□숲 네, 건축가로서 사회에 공헌한 수 있는 결은 좋은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재적가차로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을 남기는 길일텐데 그것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金正 건축이 인간사회에서 어떤역활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역활을 하고 있는가는 저보다는 건축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은 한나라의 문화의 최도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의식주의 하나로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생활필수품이라고 하겠죠. 특히 건축은 건축이 표현할수 있는 존엄성이라든가 소박 간결 친근감 등등 감정을 표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건축을 잘함으로서 국민 생활을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건축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것이 건축가가 보는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죠.

□金 김박사님 말씀을 돌으니까 건축가의 사명이 무거 운 것을 깨닫겠는데…, 상당히 힘들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건축이 나갈길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金正 한국건축이라고 해서 세계건축과 동떨어져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겠고, 세계적인 흐름에 주류를 타야 되겠죠. 따라서 최근의 경향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훗날 오늘날의 건축양식을 볼때는 분명히 과학적 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과학적인 면을 표현해야 할줄 알고 특히 한국 건축은 한국 적인 전통을 살린 건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건축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굴암이라는가 불국사 또는 근세에 와서는 경복궁의 경회루라는가 하는 건축물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러던것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런전통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그후 우리

것을 차츰 찾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흐름에서 우리만의 전통, 특색을 가져야 할 때 입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이나 새로, 설비면에서 다른 나라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법, 지반안정공법이라든지 기초말뚝공법등 비록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다고 해도 새로운 공법은 속히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법은 벌써 오래전에 생겼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고있지 않아요.

또 요즘은 컴퓨터가 디자인 계획에서 부터 견적, 구조계산, 시공, 제도까지도 해 내는데 이런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빨리눈을 떠서 첨단을 가야한다는 겁니다.

□세계건축 조류에 따라 고유의 전통 살려나가 는 작업이 한국건축의 나갈 길.

□ 숲 바로 그런것이 후진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인것 으로 알겠습니다. 한데 요즘 대학출신들이 시공회사로 나 가잖아요.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도 진출하도록 유도가 안되겠읍니까?

□金正 양쪽을 비교해서 당장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 시 공회사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저도 학생들에게 한평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그 계획에 외해 방향을 정하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당장 좀 어려워도 앞날 을 내다보고 설계사무소로 가는 사람이 차츰 늘어 나는것 같아요.

□金 좋은 현상이군요. 간혹 시공회사에 있다가 나이 가 들어서 설계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딱 하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그런것이 지양되었으면 합니. 다.

김박사님 그동안 하신 작품중에서 대표작을 소개해 주 셨으면 합니다.

□ 金正 지금까지 내 소실껏 마음대로 해본 作品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 그 원인은 건축주가고집을 문 려 못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물은 자문위원들이 많아 이사람 저사람 말이 많아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든지 해서 소신껏 못한 경우도 있읍니다.

해서 그동안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작품이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한것이지만 國會議事堂,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연대 중앙 도서관, 성모병원, 장춘체육관 등이 있읍니다만, 앞으로 죽기전에 두세개 作品만이라도 내 소신껏, 마음대로 해봤으면 하는게 소원입니다.

□ **金** 박사님은 또 종교건축에 조예가 깊으신결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장래위해 원대한 포부를 갖고 당장의 어려움 참	가고나가야
□종교건축자료 수집하다 보니 자연히 손대,교 회, 불교, 유교 건축 등 史的관심 커져.	거나 또는 건축관계 연구나 계속해볼까 합니다. 다소 나마 젊은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다할 작정이구요.
□ 全正 종교건축은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동기라면 연세대가 종교계통인 관계로 손을 대 게 되었다고 하겠고 또 과거 설계자료중에서 종교 건축에	□건축가의 사회적공헌은 좋은 作品통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남기는 것.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일본인들도 가르차주지 않았고 그래서 후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선 교회건축자료를 수집해서 대충만들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만들다가보니까 불교건축도 연구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불교하면 인도, 티벹, 중국 그리고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승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차츰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유교건축도 살펴보고 천도교등도 자료를 수집했읍니다.취미도 생기고 그게 동기가 되서 요즘은 동양건축도 史的인 것을 탐구하려고 마음 쓴것은 아닌데 조금씩 취미를붙여 간다고 생각이 드는 군요. □ 숲요즘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 숲正 먼저 원로건축가라고 이렇게 찾아오니 나도 이젠 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역시 그런 감이 듭니다. 이젠 늙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이어 받아야 되겠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수적으로도 많고 — , 나같은 사람은 잘한다기 보다는 다만 초창기에 했다는것 뿐이지. 요즘 젊은사람들 상당히 잘하고 있읍니다. 활약상이 대단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남은 시간동안은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책을 쓰	□金 연전에 편찮으셨다가 완전히 회복하셔서 좋아지신 첫 같은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자? □金正 건강관리라고 특별히 하는건 없어요. 다행히 집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 주어서 요즘은 아주건강하게 지내고 있읍니다. 방안에서 체조정도 하는 것이고각이죠. □金 앞으로 학교에 4.5년 더 제시게 되겠죠? □金正 아마 3년 남짓 정도입니다. □金네, 그 후엔 뭐 특별한 계획같은 것 있으신지 □金正 앞서 말씀드린 저서나 연구를 계속해야죠, 또취미라면 잔디나 화초가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속에서 지냈으면 하는데 물도 맑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화초도 가꾸고 새도 걸러 봤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는 너무 적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생각중 입니다만 — □金 내, 부디 건강하셔서 자라나는 후진들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正 나보다 더 바쁜사람들이 찾아줘서 오히려 더고맙습니다. (*)
国家技術資格 검정시행 9 - 기술검정	일정공고
□ 제8회 기술계자격증 건축기사[등	실시 합격자발표 / 11월 2일예정

北歐 紀行(Ⅱ) (SCANDINAVIAN)

崔昌奎(新進建築)

北歐 5個国中 "덴마크"와 "네넬란트"는 1972年에 가 보았고, 今般"폴랜드"에 왔던김에, "핀랜드""스웨덴" "노 르웨이"를 꼭 보고 와야겠다고, 出發時부터 決心하고 떠 났다. 이 北歐圈은 아마도 現在 地球上에서 가장 살기좋 은 나라이고, 社會保障制度가 그 어느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各国의 国旗에는 十字가 그려있고, 첫 外的인 外交, 軍事는 勿論, 国際會議나 行事같은것도, 5 個国이 共同으로 하는 境遇가 많다. 北歐에서 가끔있는 U. I.A.와 関係되는 세미나나 會議같은것은 이때까지 거의 合同으로 한일이 아주 많았었다. 그들 五個国은 地政学上 으로도 서로 隣接해있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点에 共通 点이 많다. 即 모두가 王国이라는것, 政治制度가 完全한 自由民主主義같으면서도, 經濟体制는 共產側과 가깝다. 또 国家建立의 厂史가 비슷한 時代에 이루어 졌고, 自然 條件이 治似하다. 創世紀라는 朏을 보면, 現在의 "그린랜 드"는 完全히 얼음과 눈이 덮혀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이 름과 같이 푸른 동산이었다는 것이고, 氷河時代에 侵蝕된 山脈들이 海岸에서 톱니빨처럼 峽谷을 이루어 所謂 "피요 르드" (FJORD) 란 狀態로 되어서 迷路같은 小縛들이 無 数히 있어 "바이킹"들의 根據地가 되었고, 各国마다 国土 内에 엄청나게 많은 湖沼가 생겼고, 地盤이 거의가 岩盤 이어서 그의 祖上들이 海運,漁業으로 成長하였다가 歐羅 巴에서 흙을 배로 운반하여 森林을 育成해서 今日과 같은 아름다운 国土를 만들었다고 한다. 氣候는 北極에 가까워 서, 소위 白夜라는게 있고, 極光을 볼수도 있고 겨울에는 밤이 길어 暗黑世界를 聯想케하고 日光이 不足해서 햇빛 만 나면, 日光浴을 하는것이 生活化되어있다. 人口密度가 적고 自然이 아름다워 맑은 空氣와 맑은물, 푸른 숲을 그 들은 "Green Gold"라고 부르고, 国家的으로도 이 세가 지는 保護하고 있다. 社會面에서의 国民에 対한 保障制度 는 놀랄만한 것이 많다. 即 老後, 失業, 疾病, 勞動, 姙 娠、敎育、健康等이 거의다 保障되어 있어, 살아나가는데 무엇하나 걱정할것 없이 自己가 願하는 職業에 묵묵히 勤 勉하게 일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政治, 外交面에서는 隣 接한 强大国으로 因해 無言의 同盟国으로 相互協同으로 対應해야 하는 必然的인 賢明한 政策을 쓰면서, 거의 完全 한 中立을 지키고있다. 폴랜드 勞動者의 英雄인 "바웬 사"도 바로 이 北歐의 政治와 經濟体制를 은근히 指向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듯 地球上의 樂園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北歐各國 은 運이 좋아서 그리된것은 아니다. 그들의 厂史를 考察 해보면, 苦難의 厂史인 것이다. 賦存資源이 없는 峻險한 自然의 試練을 克服했고,勤勉으로,努力으로 莫大한 犧 準을 무릎쓰고 冒險的인 試圖로서 開拓해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오직 그들을 爲한것 뿐만이 아니고, 온 人類를 위 해서도 北歐人들의 模範的인 開拓은 높이 評價되어야한다. 例를 들면 "아문젠"의 南・北極 探險이라든지, " 한자同 盟"에서의 役割、"콘지키" 号의 漂流記錄""바지"号戰 艦의 沈没、北海 油田의 探索등이고、文化・ 藝術面에서 民族音樂家, 画家, 彫刻家, 建築家들이 많고, 바이킹의 後 爲들이라 海運의 開拓等等… 우리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못 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다. 火藥을 發明하 고 그 利用이 建設보다 破壞에 使用되는 것을 後悔하고, 巨額의 基金으로 平和, 物理, 化学, 文学等의 賞制를 制 定한 "NOBEL", 体育에서도 陸上의 英雄"누루미"를 비 롯해서 氷上 SKI의 先驅者들, 우리 建築界의 大家인 "알 바 알토" "이로 사리넨"等 "솔베지" Song의 作曲家 "그 리그"比族音樂家"시베리우스"等 이루 헤아릴수 없는 人 類文化에 貢献한 偉人들이 北歐에서 태어났고, "덴마크"나 "네델란드"의 思想家,藝術家들까지 들고나오면 人類文化 의 半은 이 北歐人둘이 이루어 놓았다해도 過言은 아닐것 이다. 附言하거니와 저 有名한 "SAUNA"나 "BOUFFE-T"(바이킹의 食事形式),는 北歐의 專有物인것이다. 솔 찍히 말해서 나는 北歐에 対해서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았 다. 旅行 出發前, 北歐에 対해 若干의 工夫를 하고 떠났 으나 直接 그곳에 가보고는 "百聞이 不如一見"이구나!하 는 生覺이 實感이 났다. 그 나라들의 空氣를 呼吸했고 물 을 마셨고, 사람들을 接해보고서야 비로소 北歐의 眞価를 알게되었다. 大部分의 境遇, 旅行을 하고 돌아오면 묻는 말이 限定되어 있는 法이다.

即, ①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살기좋은 나라들이던가? ② 政治, 經濟, 文化가 어느 程度의 水準이던가? ③ 그 나라의 建築이 우리와 比較해서 어떠하던가? ④ 그 나라 의 출과 女子들은 어떠하던가? 等의 못에박힌 質問들을 많 이 듣게된다. 때문에 北歐의 나라別로 이 普遍的인 네가 지의 質問에 答하고자 한다. 무릇 旅行이란, 職場과 家庭 의 모든 制限에서 解放된 狀態에서 하기 마련이다. 이런 狀態는 原初的인 自然人의 모습이요, 心理狀態일것이다. 그저 興奮하고, 感動하고, 明朗하고, 즐겁고, 신나기만한 것은 아니다. 感傷的이 되고, 외롭고, 피로하고, 아니곱 고, 화도나고, 신경질도나는 그런 것이다. 特히 建築家屋 의 旅行이라, 一般 觀光旅行이나 業務旅行과는 判異한 点

이 많다. 보는곳, 보는面, 찾는곳이 確實히 다르다고 生 覺한다. 우리들의 今般旅行도 그 範囲에서 벗어나지는 못 했다. 우선 그 나라에 들어서면서부터 空港建物과 그 構 造를 살핀다. 찾는 곳은 建築物이나 그 遺蹟이고, 가는곳 은 博物館 美術館, 学校(大学建物等)로 먼저간다. 그래도 時間이 있으면 冊房을 뒤진다. 그러노라면, 그곳에서 時 間의 餘裕가 없어 다른나라로 떠나야 한다. 때문에 百貨 店에서 Shopping을 한다거나, BarthNight Club에 가서 즐길 時間도, 資金도 없어진다. 慾心들이 많아서, 무리해 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뛰어다니니 몸이 疲勞해서 입술이 부르를 지경이고 보면, 旅行을 즐긴다기 보다는 重勞動을 하는 셈이된다. 이런 日程을 反復하여 몇 나라를 돌다보 떤 歸國해야 할 日字가 되고, 엄벙넘벙거리다 보면, 金浦 에 와 있다. 時間과 旅行에 시달리고 쫓기다 끝나는 것이 다. 남은것은 "그것도 저것도 보고와야 되는데!"하는 아 쉬움뿐이다. 이렇게 虛無하여도 旅行은 해야한다. 建築 家는 더욱 그러하다. 제아무리 고달픈 旅行이라도 반드시 언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謙讓, 奪發, 自信을 얻고, 自 己位置가 設定된다.

"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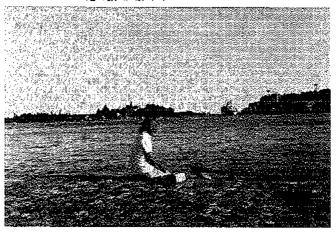
六月 22日 午後 一時, WALSAW 空港을 出發해서 北歐의 第一與門인HELSINKI 로向했다.機内엔會議場에서 낮여은 FINLAND建築家와 同席했다. 자기네 나라로간다니까 理由없이 반기며 나라자랑을 늘어놓는다. 또 東洋의 韓國이란 나라에 対해서도 興味로운지 여러가지 質問을 해왔다. 우리도 若干은 誇張을 해서 자랑을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놀란 表情이다. 전혀 韓國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FINLAND 建築家는 50세 程度의 美男인 AUEASALO PENTI (아우에사로 펜티)이다.그는Hotel 予約은 되었느냐?얼마나 머무를 것이냐?를 묻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空港에서는 旅券도 보지않고 通過시킨다. 即 Check Point가 기의없다. 점을 찾고 Hotel로 가려고하니 그가 하는 말이 "기다라면 自己 딸이

FINLAND의 아름다운 国土



車를 가지고 올 것이니 Hotel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 이었다. 이윽고 그의 달(21세)과 아들(13세)이 기다리 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보고도 반기지도 않고 우리 두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자기 아버지가 처음보는 東洋人 2 名과 이야기하면서 나오니, 異常하다는 表情들이었다. 그가 우리 두 사람을 그들에게 紹介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반긴다. 그의 딸은 魅力的인 美人이었다. 勿論 그녀가 運轉하여 Hotel 까지 데려다 주 었다. 車中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걸었더니, 英語 는 못한다고 했다. 딸은 英語를 잘했다. 그는 우리들 에 게, 자기 딸을 FINLAND에서 머무르는 동안 案内 秘書 로 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職場이 없다고 했다. 우린 勿 論 拒絶했지만, 실은 秘書까지 고용하고 다닐 처지가 못 되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장사조로 나오는 구나기 하고 의아스러웠던 때문이었다. Hotel Lobby에서 헤어질때, 그는 來日아침 9時에 Lobby에서 기다리면 자기가 市内 를 案内해주겠다고 했다. 우리 두사람은 Hotel 房에 침을 풀고, 沐浴을 하고는 輕裝으로 地圖를 들고 나섰다. "알 바 알토"의 建築作品은 來日 보기로 하고, 우선 埠頭 : 캬 로 나갔다. 맑은 물, 푸른 숲, 푸른 하늘, 흰 구름, 北歐 人들이 Green Gold 라고 부르며, 아끼고 가꾸는 뜻을 알 경만 같았다. 날씨가10°C程度이어서, 半소매로는 추웠다. STOCKMAN 이라는 市内에서 가장 큰 百貨店에 가서 두 터운 하늘색 運動服을 사입고 다녔다. 이 運動服은 北歐 三個國 旅行中에 아주 緊要하게 씨먹은 旅行服이 되었다. 港口안에는 많은 汽船들이 있고, 碎氷船도 2~3척보 였 다. 이 碎氷船을 보니 아-北極의 港口구나!"하는 實感 이 든다. 港口나 거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기 旅 行者들이 HELSINKI 港을 "발트海의 處女"라고 부르는 理由도 알만하다. 맑고, 조용하고, 아름다우니까 말이다. 이 거리는 1920年代의 建物과 二次大戰後의 現代 建築이 巧妙하게 対照되는 거리이다. 이곳 出身으로서 世界的인 建築家는 "알바 알토"와 "이로사리넨"을 들어야 할 것이 다. 人口가 겨우 六十万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 OLYM-PIC(1952)이 열렸고, 蘇聯의 影響을 받고 있으면서, 우

HELSHINKI港埠頭에 앉아서



랄-알타이"語來인 FINLAND는 十六世紀頃 덴마크의王. "구스타프바자"에 依해 都市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917 年 蘇聯의 屬國에서 獨立했으나, 二次大戦 當時 対 蘇戰 에 敗하여 北歐國中에서는 唯一하게 波亂曲折이 많은 나 라지만, 國民들이 勤勉으로 再建해서 現在에 이르고 있다 고 한다. 깨끗한 뒷골목길도 걸어보고, 商店도 기웃 거려 보고, 親切한 市民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말도 걸어보고, 질가는 女人들에게 "왕크"도 보내면서 中央 鉄道驛 前의 廣場에 나왔다 . "사리넨"의 設計로 된 이 驛은 亦是 構造 가 建物外部에서 認知할 수 있는 Design 이다. 市内에서 가장 繁昌한 곳이라 할만하다. 나는 그 廣場에서 초라한 차림의 東洋人 學生을 發見했다. 그도 다가와서, 우리를 日本人으로 알고 人事를 했다. 日本 北海道의 札幌 大學 의 木工藝科 三年生이라고 하면서 홀로 다니니 외롭고 쓸 쓸하니, 좀 같이 거러다니자고 했다.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北歐의 家具나 木工藝는 世界에서 가장 質좋고 優 秀한 것인데, 그들은 絶対로 工場에서 量產을 하지않고, 手工藝로 家庭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分野의 手木 工藝大學도 많다고 들었다. 이 日本人學生은 바로 이 나 라의 그런 木工藝를 보러왔다는 것인데, 그 風貌가 貧弱 하고 못생긴, 키작은 學生이지만, 이들이 이나라의 手工 藝를 터득하고 가서는, 日本人 特有의 흉내 내는 손재주 로. 房안에서 방석을 세개나 겹쳐 깔고 앉아서 손을 씻고, 재주를 부릴것임은 틀림없은 즉, 우습게 볼일만은 아닌것 같았다. 저녁때가 되어, 우린 "Greece 食堂에 갔다. 이 나라는 海洋國이므로 海產物이 有名하다. 特히 "연어"로 만드는 料理는 아주 有名하다. 우리나라의 멸치젓같은 첫 잘類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나라의 名物인 海 漁類의 料理도 먹어보았다. 젓잘온 우리나라의 젓잘과 다 름이 없었다. 하도 쏘다녀서(徒歩로)몹시 疲勞하다.이 나 라의 名物인 "SAUNA를 經驗해야지", 하고 Front 에 물었드니 Hotel에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每日하 지 않고, 진짜 SAUNA는 郊外의 숲속에 오두막처럼 있 는 SAUNA幕에 가야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한다. 原 来 SAUNA 란 北欧人들에 特有한 것으로서, 이들은 우

이로샤리넨 설계의 中央鉄道駅



리가 住宅을 지을때 반드시 浴室을 만들 程度로 大概 의 家庭에는 이것을 갖추고 있다. 共同 SAUNA도 있고. Hotel들도 거의다 施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 즘 流行하고 있지만, 名物이란 本고장에 가서 진짜를 해 봐야하는 것이다. 엉터리 흉내내기로서는 流行일뿐. 그 眞味를 맛볼수 없는 것이다. 人間들이 原初의 모습인 純 裸体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면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確 実히 무엇인가 그中에서 通하는 点이 있을것만 같았다. 中国人들이 阿片을 마시면서, 政治와 商談을 공통한 精 神状態에서 이룩했다든지, 日本人들의 浴湯에서의 密談, 💮 페르샤人들의 水煙을 피우면서의 政談、商談、埃及人 들 의 閨房구석의 으슥한 곳에서의 経綸을 내세우는 일, 印 度人들이 寺院內에서 요가의 姿勢로 政略을 세운다는 일 과, 北欧人들이 SAUNA를 하면서 万事를 生覚하고 処 理한다는데는 무엇인가 一脈相通하는 것, 即 人間은 맹충 맹숭한 正常状態로서는 잘되지 않는 그런면이 있나보다. SAUNA는 北欧人의 自然과 地理的 与件에서 開発된 것 임에 틀림없다. 海洋에서의 소금끼에 젖은 몸을 씻고 푼다는 点들이나, 寒冷한 "존드라" 平原에서 馴鹿사냥을 하고난 疲労한 心身을 녹인다는 点에서, SAUNA는 適格한 装 置라 하겠고, 더우기 바로 이웃에 맑은 湖沼가 있어 100℃ 에 가까운 乾湿의 空気에서 달아오른 몸을, 그 湖沼에 식히고는, 또 反復하는 일은 北欧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快感이오, 特権인 것이다. Hotel의 SAUNA에서 나와보 니, 疲労가 가시고 気分이 메우 좋아 日記를 쓰기 시작 했다. 나는 旅行中에는 아무리 疲労해도, 그날 그날의日 記는 빼놓지 않고 꼭 쓰는 習慣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밤 11시인데, 우리의 初저녁같은 밝음이다. 이런 現状은 12時半까지 継続되고, 새벽 3時半쯤 되면 날이 밝아온 다. 結局 밤은 3時間도 못되는 셈이다. 이런 現状은 여 롭에 나타나며, 겨울에는 이와는 反対로 낮이 아주 짧다 는 것이다. 이들은 여름의 이런 現状을 "NIGHT SUN (白夜)"라고 부른다. 겨울에는 日光이 그리워서 日光浴 을 그 짧은 時間에 모든 사람들이 하게 마련이다. 그래 서인지 北欧人들의 皮膚色은 굉장히 화다. 特히 巨驅의 健康한 女人들의 皮膚는 희다못해 透明해보일 程度이다. 우린 北欧엔 美人이 많다고 둘어서 알고 있었다. "枯葉" 이란 映画의 "마리아 셀" "누구를 為하여 鐘은 울리수》 의 "잉그리드 버그만", 等 絶世의 美人들이·다 北欧人임 을 알고 있다. 옛부터 물좋은 곳에 美人이 난다고 했다. 北欧는 물, 하늘, 空気가 다 좋으니 美人이 날 수밖에 / 男性들은 男性들대로 閉拓精神과 冒険心이 強하고, 野性 的이면서 純朴한 体軀들을 가지고 있는 부러운 나라들인 것이다. 나는 이 白夜에 日記를 다쓰고 나서, 명하니 여 러가지 生覚에 잠기었다. 白夜나 極光등은 北欧에서만 볼수 있는 創世紀以来의 変함없는 大自然의 現状이다. 나는 이번 旅行에서, 出発 三日前에 清州大学에 特講을 갔다가, MAYA와 INCA의 遺蹟을 説明하다가, 버뮤다

三角海域의 不可思意한 Black Hole에 対해 얘기를 했더 니, 同席했던 忠南大 朴萬植 教授가 "훼 · 創世紀"란 어 원 킨스버그"의 蓄書률 꼭 읽어보라고 하기에, 이 卌을 사서 旅襲에 가졌왔었는데, L.U機가 北極을 通過할 때, 이 冊을 다 읽어 버렸다. 그 때 機下 地上 에는 萬 年 白雪에 덮힌 北極의 氷山과 氷原이 보였다. 이런 光 景이야말로 原初 創世紀의 그 모습, 그 빛깔 그대로인 光 景을 보면서, 이 冊을 읽었었다. 무-드가 合致된 状況 下에서의 讀書는 異状한 느낌을 주었다. 아득한 - 創世紀 人이나 된 그런 느낌이었다. 바로 지금 회미한 白夜속에 서 또 그런 느낌을 다시 느꼈다. 電力이 豊富한 이 나라 는, 人跡이 없는 밤거리나, 店鋪의 Show Window에 皹 惶하게 電灯을 다 켜놓고 있다. 취죽은듯 고요한 밥거리 를 내다보면서, 創世紀를, 人生을, 建築을 生覚하다가 잠 자리에 들었다. 23日 아침 9時 Lobby에 "Auea salo"氏 가 어제의 約束대로 車를 가지고 와있었다. 우리는 PO-LAND에서부터의 冊字와 油印物을 배꾸러미나 만들어서 航空郵便으로 発送시켰다. 그것은 아직도 旅行할곳이 많 은데, 冊은 무게가 나가서 不便했기 때문에 旅行때마다 늘 이런式으로 했었다. "Auea salo"氏의 車를 타고 그의 案内로 数많은 곳을 구경했다. 먼저 HELSINKI에서는 무어나해도 "알바 알토"의 建築을 列挙하면서 보여달라 고 했더나, 그는 웃으면서, 어떻게 "알바 알토"가 韓国 에까지 그렇게 有名하냐고 불으면서, 率直히 말해서 自 己는 그의 建築을 좋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사리넨"쪽이 더 좋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차례로 "알토" 의 建物을 案内해 주었고, 博物館이며 Olympic競技場, "우스펜스키"그리이스 正教寺院,"데페리아 우기오"教 会를 案内해 주고 熱心히 説明해 주었다. 이 教会는 岩 石壁의 地下教会로서, 저불만이 地盤面에 半球型 透明体 로 나타나있고, 入口서부터 地下턴넬로 들어간다. 内部 의 周囲壁은 自然그대로의 岩壁이다. 이 敎会는 1967年 "스오마라이엔"兄弟가 設計하고 施工한 것으로, 아주 異 状한 雰囲気를 자아내는 教会로서 名物이 되었다. 숲이 우거진 公園에 民族音樂家 "SIBELIUKSEN(시베류스)"

알바 알토의 建物앞에서



의 頭上 銅像과女性彫刻家가가 만든 記念 Monument가 있 는데, 많은 Pipe로 構成한 이 Monument는, 바람이 불면 그 Pipe에서 音樂이 흘러나오게 돼있어, 더욱 音樂家를 記念하는 碑로서는 特異한 構想이었고, 深刻한 表情의 銅 像앞에서 그의 表情올 흉내냈드니 몹시 웃었다. 그는 우 리를 新開発区域인 TAPIOLA地区로 案内했다. 이 곳은 市中心部에서 西쪽으로 10km程度의 거리에, 새로운 都市 計劃을 典型的으로 한 人口 16,000名의 80%가 労動者등 로서, 그 地域内에 職場을 가지고 살고있었다. 中央部에 13層의 建物이 이 衛星都市의 管理建物이다. 人工의 못 과 요트장, 各種 慰樂施設이 允足된 숲속의 아름다운 새 都市인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現実的인 地上의 樂園을, 人為的으로 大自然과 周囲環境에 調和시키면서, 建設해 가고 있다. 우리와 같이 拙速이나 點數따기式의 計劃이나 實踐을 하지않고 堅實하게 觸次的으로 나무도. 물도 가꾸어가면서 즐겁게 建設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립기반했다. Olympic 競技場前面 廣場入口側에 있는 力 走하는 모습의 民族体育의 英雄"누르미"의 銅像이 等身大 의 크기로 있다. 내가"아-저것이 "누르미 구나"했더니 "當身들은 FINLAND 에 対해서 어떻게 많이 알고 - 있느 母!"

하면서 갸웃뚱한다. "그 程度는 常識이 아니냐?" "韓国의 教育은 世界的인 広範囲한 것이군요./" "아니다. 그렇지는 않으나, 나는 偶然히도 "누루미"가 그려진 포스터며, "서베류스"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 잘 안다."고했다. 그는 놀랍다는 表情으로 微笑짓는다. 그는 아마도우리를, 또는 韓国을 우습게 보았던 모양이나, 三日間의우리와 接觸에서 生覚이 確実히 달라진 모양이고. 韓国엘 꼭한번 가봐야겠다고 하며 명함을 달라고해서,우린명함을 交換했다. 우린 저녁때 그의은 終日안내에 答礼하기為해 蘇肝食堂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蘇斯飲食과 술을마셨다. 밤 10時가 넘었는데, 밖은 初저녁 같았고, 그와 우리와의 対話는 끝없이 継續되었다. "너는 우랄알타이 語系의 言語를 하고 비용에는 SCYTAI 的인 냄새가 난다.우리 韓國文化의 原流이자 뿌리라고 했드니, 그는 더욱놀

民族音楽家 시베류스銅像



라면서, "그러면 우린 兄弟가 아니냐?"하며 大笑하였다. 말로만 들던 北歐의 첫나라 FINLAND를 우린 來日 아 침에 떠나야 한다. 짧은 時間이나마 情들었던 "Aueasalo" 氏, 그리고 HELSINKI 市, 當身들은 幸福한 사람 들이 오. 그리고 꼭 錦繡江山인 우리 與國을 찾아주시오. 우리 는 較善을 다해서 當身을 맞아 줄 것이오.

안녕 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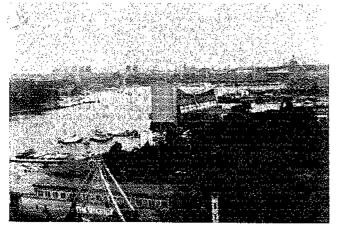
"SWEDEN"

6月 24日, 8時 30分發 SAS 機로 50分도 봇걸려서, SWEDEN의 首都 STOCKHOLM 에 到着했다. 어제 Hotel 과 機票를 다 予約해 두었기 때문에 , 空港에서 바 로 Oden Stockholm Hotel 로 直行했다. 快晴의 날씨인 데 SAS 機가 Stockholm 上空에서 低空으로 飛行하니 많 은 湖沼와 우거진 숲들이 보인다. 이곳 SWEDEN도 FI-NLAND 와自然環境이비슷하고, 3 일後에 칼 NORWAY 도 地理的 環境이나 自然條件이 비슷한 나라들이다. 먼 옛 날 氷河時代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條件下에 오 늘날까지 生成, 發展해 왔다고 보아야겠지만, 다만 그 自 然속에 살고있는 人間들만이 많은 事件과 變動을 겪어왔 다고 봐야겠다. 이곳 出入國 旅客들에게는 하등의 抵抗感 을 느끼게하는 일따위는 없고, 그저 술쩍 旅券을 보고는 通過시킨다. 豫約한 Oden Stockholm Hotel 은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Hotel이다. 大部分의 旅行者들의 말에 依하 면 北歐各國의 大小 Hotel 들은 그리 大規模이거나, 施設 이 洗練되었다기보다는 淸潔하고 素朴하면서 親切하다는 것이었다. 이 Oden Stockholm Hotel 은 施設도 大端치않 고 房面積도 적지만, 淸潔했고 아주 親切했다. 簡少한 施 設임에도 손님이 必要한 것은 少規模이나마 갖추어 놓고 있었다. SAUNA 는 勿論, 地下層에는 食料品店과 과일 店까지 있었다. 그 位置가 아주 조용한 뒷거리 같은 곳으 로 生覺되었으나, 市内地圖를 잘펴보면, 都心에 아주 가 깝고 名所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 우리는 運좋게도, 우리 에게 알맞는 Hotel 올 잡았다고 생각했다. Hotel 이름의 Oden 이란 北歐人들에겐 아주 큰 意味가 있는 말이다. 即 그들의 神의 이름으로, 北歐人들은 이 Oden 神을 자주부 르는 버릇이 있다. 西方國家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듯이 말 이다. 特히NORWAY人둘은죽을때는 반드시Oden을부르고 죽는것이 常習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一説에 依하면, Oden은 바이킹들의 守護神인 海神이라고 한다. 때문에 北欧에는 商店名이나 会社名 等에 Oden이란 單語가 많이 使用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짧은 時間에 볼곳은 많아서, 地 圖를 들고 軽裝으로 거리로 나섰다. 이곳 Stockholm 은 "北欧의 베니스"라고까지 불릴 程度로, 바다와 湖沼와 숲 이 많아서 아름다운 곳이다. 国土의 半이 完全히 우거진 숲이고. 全国内에 86,000個(直経 200m以上의 것만)의 湖 沼뿐만이 아니라 "아기페"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大小諸島

가 24,000個나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SAS의 本部도 이곳에 있고, 그 옛날엔 "한자 同盟"의 本據地였다. 人口 는 140万으로 적은便이지만, 19世紀 後半부터 都市整備가 始作되어, 섭과 섭사이의 橋樑이나 湖沼의 相互連結 등 으로 自然美를 그대로 살린 現代都市의 標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벨賞 受賞式을 비롯해서 많은 国際的 모임이 開催되는 곳이기도 하다. 날씨가 아주 快晴하고. 気候도 알맞고 해서, 우린 地圖를 들고 그리 큰 都市가 아니므로 건기로 했다. 国立 建築大学과 "바자"公園, 大聖堂, 繁華 街를 걸었다. 寫眞을 찍고는 또 걷고, 蘇聯, 큐바 等의 文化院이나 航空社에도 기웃거리면서 절었다. 큐바文化 院에서는 以北의 포스터가 있기에 팔라고 했더니, 한장밖 에 없어서 안된다고 했고, 蘇聯 航空社壁面의 붉은 広場 의 寫眞을 찍고, 蘇聯의 旅行案内書等을 거두고, 中共文 化院에서는 在来의 中国珠算(수관)을 하나 紀念品으로 샀 다. 精神없이 쏘다니다보니, 波労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맥도날드 햄버거집을 찾고있는데, 韓国의 中年婦人을 만 났다. 처음엔 日本人인줄 알고 日本말로 말을 걸었더니, 그 婦人이 韓国語를 해서 "우린 韓国서 온 建築家들이오. 반갑습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 婦人도 自己도 서 울에서 왔으니 安心하라면서 우리와 어울렸다. 우리 셋은 햄버거집에 들려서 점심을 하면서, 이곳 이야기를 물었 다. 그 婦人은 長老教 牧師婦人으로 여기온지 一年밖에 되지않는다고 했고, 韓国人은 이곳에 公館員까지 150여명 있다고 했고, 北韓大使舘과 그의 家族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우린 다짜고짜로 韓国食堂을 물었더니, "아리랑" 이라고 하나 있기는 한데! 하면서 망설인다. 이유인즉 그집 主人은 韓国에서온 音樂家인데, 親北傀人士라면서, 僑民会에도 나오지 않고해서, 그집에 가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우린 어떤 親旧인가 하고 만나보자 생각하고 그 婦 人이 가르쳐준 "아리랑"食堂을 찾아갔다. 들어서자마자, "安寧하시오, 김치먹으러 왔소, 밥과 김치를 주시오, 그 리고 主人을 좀 만납시다."했더니, 日本人 男子職員이 안 🦾 主人을 불러냈다. 그 婦人은 30이 좀 넘은 神経質的인 얼 굴로 우리를 수상쩍게 바라보다가, 主人은 출타中이고,自 리가 안主人이라고 紹介한다. "이 食堂에 韓国사람들이 많이 오십니까?" "韓国사람들은 別로 오지않고 朝鮮사 람들이 많이오지요"한다. "아-그래요, 우린 韓國사람() 이오, 이야기나 좀 합시다."하고 食事를 시키고, 그 婦人 파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韓国政府에 不満이 있 었든지, 要注意人物이었는지는 몰라도, 如何間에 韓国올 등지고, 여기와서 北韓人들과 接触이 많을것은 確実하다. 우린 그女子에게 요즘의 서울얘기와 旅行의 自由와 経済 成長等을 얘기했더니, 그女는 아주 놀라면서, "그럴수가 있느냐!"라고 했다. "우린 지금 共産国家인 POLAND 에 가서 2週日間이나 会議를 하고, 돌아가는길에 各国 을 旅行하고 있지 않소?" "出国時에달러 는 얼마나 주는 데요?그렇게 긴 旅行을 할수 있는가요?"라고 反問을 한

다. 그女의 말에 의하면, 六年前 自己들이 나올때는 千 \$밖에 못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우린 三千\$를 주지 만, 旅行事情에 따라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수가 있고. 夫 婦同伴도 可能하며, 学生들도 旅行할수가 있다."라고 했 더니, 그女는 몹시 놀라면서, 大端한데요? 한다. "서울 에 와보시오, 当身네들도 마음놓고 왔다갔다 할수있오. 아무런 抵抗도 없이 말이오." "왜 韓人僑民会에 나가지 않소, 거가가면 우리말의 真否를 알수있을 것인데!""当 身들은 接触도 안해보고 真相을 어떻게 알수있고?,여기 엔 韓国人들이 相当히 많이 와있오, 商事나 個人으로 말 이오,"이런 式으로 그女를 몰아쳤다. 그 女도도깨비에홈 린것처럼 멍해, 듣고만 있다가. 自己쪽에서 서울 이야기 를 꼬치꼬치 물어왔다. 우린 事実대로 얘기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바깥양반이 오면, 韓国僑民会에 나가 봐야겠어 요."라고 했다. 우린 마음이 흐뭇했다. 밥도, 된장찌개도, 김치도, 이렇게 맛있을수가 있을까! 선이나서 오랫만에 韓国飲食을 飽食했다. 그집에서 나와 거리를 쏘다니다가. 하도 걸어서 다리가 아파 Taxi를 타고 Hotel로 돌아왔다. 車內에서 運転手에게 "어디 좋은곳은 없느냐?"라고 했 더니, 그는 웃으면서, "알았다, 알았어"하는 表情으로, 어느 Sex Show하는 집앞에 車를 세우고, 看板을 보라 고하며 웃는다. 내려서 보니, 바로 우리가 잡은 Hotel 옆 골목이 아닌가! "燈下不明이로구나!"했다. 時間이 너 무도 이르기에 開店時間을 불어보고, Hotel로 돌아와서 SAUNA를 했다. 저녁은 먹었겠다. Official한 일은 끝 났겠다, 快晴에다 気温은 20℃内外, 沐浴도 했겠다. 万事 享通이다. 구경이나 하자하고서, 例의 Show店엘 갔다. Live Show따위는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作乱気로 들어 가 보았더니, 이것은 全혀 零囲気가 다르다. 勿論 Sex Show이지만, 이때까지본 乱雜한 것이 아니고, Show 다 운 차분하고 점잖은 Show이다. 그리 乱雜하지 않고. 真 擊한 演技에는 무언가 Sex란 오직 動物的이고 추잡한것 만은 아니구나!하는 生覚을 가지게하는 順序와 内容이 었다. 그러나 Show는 틀림없는 Show인 것이다.우린白 夜의 밤에 이 고요하고, 淸潔한 거리에서, 性에 対해 다

STOCKHOLM의 內港과 바자号 博物館



시 生質해야겠다고 하면서 Hotel로 돌아왔다. 地下層의 과일店에서 若干의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깔깔 냈다.

6月25日,木曜日, 흐리고 若干 비가 내리다 말다한 아 침이다. 오늘은 이거리의 名所를 모조리 찾아볼셈으로 運 動靴은 신고 나섰다. 市立 劇場, 博物館, 中央駅, 市庁 및 広場, 近代 美術舘, 国立 美術舘, 王宮等을 보고 埠 頭에 나가서 遊覧船을 타고, 스칸센島로 건너갔다. 거기 는 우리의 어린이 大公園格인 티보리遊園地 및 바자号博 物館이 있고, 스칸센 野外 動物園이 있다. 잔잔한 内湾을 約 20分程度 배로가서 티보리에 들어가니, 高等学生들 (男女)의 音楽 演奏競演이 벌어져있었다. 女学生들의 超 Mini制服이나, 가슴의 装飾들이 요란하고, 音楽教師의 전 나는 指揮모습도 우스웠다. 特히 女学生들의 회 脚線美 는 아주 肉感的이었다. 높은 回転塔에 올라가서. 湾内와 全市를 撮影했다. 果然 아름다운 港都라고 느꼈다. 遊園 地옆의바자号博物館은 SWEDEN의 大戦艦 바자号가湾 内에 浸没된지 300년만에 引揚되어, 그배 자체가 博物館 으로 되어있다. 이 戦艦 바자물에 対해서 많은 逸話가 있 다. 当時의 木造戦艦으로서는 最大, 最強의 戦艦 이라는 것을 알았다. 옛부터 이 발탁海는 事故가 많은 바다이다. 적은 海域에 蘇聠의 발탁艦隊 , FINLAND, SWEDEN. NORWAY, DENMARK, NEDERLAND, DEUTSCHL-AND等 많은 나라의 海軍이 옹기종기 있었으니, 事故나 말썽도 날만한 곳이다 西欧 歷史에서, 이 발탁海가 차 지하는 比重은 아주크다. 特히 現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最近 新聞에 나는 蘇斯의 발틱艦隊가 160隻이나 集結해서 示威하는 곳도(対 POLAND内政에) 바로 이 발틱海域인 것이다 原来가 海洋国家들어었던 北欧 5個国의 活動舞 臺도 발탁해인 것이다. 近者 이 나라들이 北海油田의 発 見과 開発을 둘러싼 발탁海의 風雲은 険悪하기만 하다. 가는비가 내리는 湾内로 湾船을 利用하여 다시 돌아왔다. 우린 아리랑食堂에 가서 SWEDEN의 마지막 夕食을 갈 비와 까두기로 했다. 비내리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오면 서, 우린 언제다시 이곳에 旅費와 時間의 餘裕있는 旅行

STOCKHOLM의 비오는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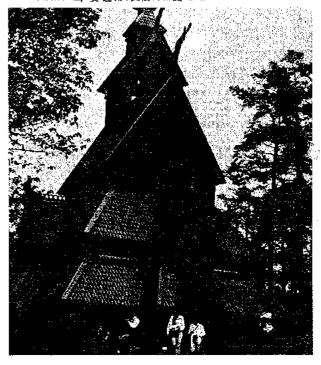
을 와서, 더욱 차분히 이 나라를 보아야겠구나! 하는 生 覚을 했다. 이 나라들은 確実히 現在 地球上에서 가장 살 기좋은 나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너무도 살기가 좋으니 `自殺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 다니, 人間이란 이 地球上에 가장 怪常한 動物임엔 틀림 없다.

"NORWAY"

6月26日, 조용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 5時 半에 눈을 떳다. 너무도 조용한 아침이다. 朝飯后 곧장, 空港으로 나갔다. 남은 몇닢의 SWEDEN貨로 뜨거운 Coffee를 마셨다 空港에는 乘客들도 적었다. 飛行機는 축축히 젖은 滑走路를 離陸했다. 機內도 비어있었고 조 용하다 나는 아들녀석과 外孫子의 写真을 꺼내보았다. 집을 떠난지 一個月이 다되니, 집생각도 난다. 두툼했던 飛行機票도 다 떨어져나가고 몇장 남지않았다. 一時間도 못되어 시골飛行場같은 OSLO空港에 到着했다. 予約한 SCANDINAVIA Hotel은 最高級 Hotel이었다. 人口 50 万밖에 되지않는 이 首都는 깨끗하고 조용하기만 하다. 一 週에 二日을 쉬는 나라이다. 北欧외모든 나라와 同一한 環 境이다. 한마디로 閑暇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나라는 뭐니뭐니해도 바이킹의 나라이다. 우리는 바이킹에 対해 서는 많은 映画나 冊을 읽었다. 西欧人들은 그옛날, 이 바이킹들을 北戎、即 北쪽의 野蠻人이라고 불렀다. 無数 한 FJORD, 即 톱니 같은 적은 符들은, 그 옛날 바이킹 들의 根據地였다. 요즈음 서울에서 流行하는 "부페"式 食事는 여기 NORWAY의 바이킹들의 食事方法인 것이다. 馴鹿의 野生的 引狩獵, 海運, 木材業, 鉄広業号 引 発展 되어 있고, 特히 배의 模様이 独特해서 바이킹船은 有名 하다. 木造의 曲線이 심한 날씬한 배둘이다. 春季의 馴 應 사냥의 모습은 壮観이라고하며, 이 時期에 村処女 들 도 사냥에 참가하여 生捕한 馴鹿의 内臓이나 陰部를 도려 내어 生食한다고 하니, 西欧人들이 野蠻人이라고 할만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勤勉하고 愚直하며, 健壮해서 胃険 心이 強하다. 峻厳한 大自然과의 闘争이나 "아문젠"같은 南北極의 探険家를 낳고, 저 有名한 "페이킨트"의 伝説의 民族音楽家인 "그리그"의 "솔베이지 송"은 萬人이 다 즐 기는 노래이다. 文学에서는 "人形의 집"의 著者, "입센" 이 있다. 体育界에서 스키와 스케이트는 NORWAY의 独 占場이다. 到処에 大規模의 SKI場이있고, 滑降台가設 置되어있어. 国民的인 運動으로 되어있다. 나는 NORW AY나 OSLO에 対해 別로 아는바는 없지만,中二때 "OS-LO HERGEN"이라는 Skate가 사고싶어, 할머니를 졸라 当時 8원50전으로(当時는 滑走用의 Skate였다)사서, 咸 興 城川江에서 그 Skate를 타고 으시댔던 生覚이 나며. 한발로 밀고 한발을 들었을때, 그 끝을 얼음에다 살짝대 면, "재링 재링"하는 軽快하던 金属声이 아직도 귀에 들 린다. 지금 그 Skate를 以北 故郷에서 四寸 조카녀석 들

이 타고 있는지? 当時 咸興 高普에서는 나와 또 한학생 반이 이 OSLO HERGEN을 가지고있어, 많은 学生들의 羨望의 対象이 되었고, 校内 試合에 나가서는, 이 Skate 를 타고 賞도 많이 탔는데, 옛이야기가 되었다. OSLO市 는 꼭 시골의 閑寂한 都市와 治似하다. 歷史的으로는 덴 마크의 属国이 된때도 있었고, 크리스찬 4세인 덴마크 王이 이나라의 王을 겸한때도 있었다. 1624年의 大火災 後, 아케르스프城塞後方에 이 都市를 建設해서, 近世까지 도""크리스티아나"라고 불렀다가 最近에 와서 OSLO 라 고 했다고 한다. 우리가 留宿한 Oden Scandinavia Hotel은 國際 Hotel List에도 나와있는 最高級 Hotel 인데, 美国의 中年紳士가 不平을 하면서 房이 적다니, 비 싸다느니 하며 不平음 털어놓는것을 보고서, 異常한 生 覚이 들었다. Lobby에서 家族을 거느린 韓国人을 만나 인사했더니, 大教産業 金専務이다. 光化門에 있는 大 教 Building計劃時에 있었다고 하면서, 嚴德紋氏에게 安否 를 伝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곳에 商事의 支店을 開設 하려고 와있다고 했다. 우린 地図를 들고 計劃한대로 곳 곳을 구경했다. 적은 都市라 그리 時間은 걸리지 않았다. 바이킹 博物館, FJORD, OSLO大寺院, 王宮, 国立 美術 舘, 歷史 博物舘, FROGNER公園, 市庁 및 週辺 埠頭街, MUNCH美術館, 海洋 博物館, OSLO大学, 民族博物館 등 많은곳을 구경했다. 特히 콘지키号(Kon-Tiki)博物館 에서는 海洋学者인 THOR - HEYERDAL이 自己 学説을 証期하기 위해 갈대로 작은 배를 만들어, 同僚工名과 원 숭이 한마리를 데리고 南半球 PERU에서부터 8,000km를 101日이나 걸려서 漂流記錄을 낸 배인데, PERU의 인디 오들이 BC 500年代에 使用한 칼대배를 본따 만든것이다. 그는 古代 埃及의 배를 본따서 1970年에 大西洋도 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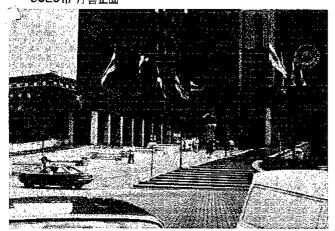
VIKING의 옛 建物(民俗博物館에서)



断에 成功했다는 "라-2世号"가 이 博物館에 KON-Tiki 号와 같이 展示되고 있다. 그의 海洋 冒険은 世上이 다 알고있다. FROGNER公園은 彫刻家 Gustav-Vigeland(18 69-1943)가 OSLO市를 為해 人生의 一生을(태어나서죽 올때까지)表現한 敎百個의 彫刻으로된 公園이다. 이 많은 彫刻을 그의 一生동안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彫刻公園 은 OSLO의 圧巻이오, 世界的인 名所인 것이다. 人間의 一生의 喜怒哀楽을 表現한 彫刻物의 하나하나의 表情 이 精巧한것으로 보아, 그가 그많은 彫刻中의 하나도 소 홀히 다루지 않고 精力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画家인 MUNCH는 現代美術에 있어 너무도 有名한 存在 이다. 나는 서슴치않고 그의 画集을 샀다. 그의 그림은 소름이 끼칠 程度로 무섭고 싸늘하다. 그것은 그의 作家 的 思想의 冷徹한 表現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끼치게 하는 것으로 生覚된다. 하여간에 모든 建物들이 鬱蒼한 숲에 쌓여있고, 欧羅巴王들의 夏季宮들도 到処에 있다. 近代 建築에서는 OSLO市庁舎를 들어야 하겠다. 이 建物은 建築雜誌에도 많이 記載되어 世界人이 다알고 있다. 1950年 OSLO市의 900年祭를 記念하여 이 나라의 많은 芸術家들이 總綱 羅되어, 合同으로 建設했다고 한 다. 두개의 높은 塔을 가진 純朴한 建物이나 아주 아름 다웠고, 前面의 港口며, 바른편 海辺의 絶景이나 建設에 임한 職工들의 作業하는 姿勢의 彫刻의 位置나 噴水広場 이 完備되어 있고, 그 規模나 外樣을 보아도, 이런 都市 의 庁舎로는 아까울 程度이다. 徒歩로 쏘다니다보니 - 몹 시 波労해서 中国飲食店(北京)가서, 맵고 뜨거운 국과 白 飯을 먹고서야 몸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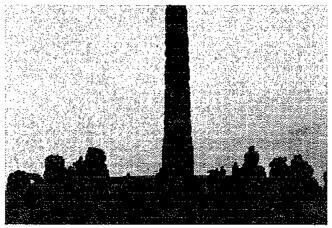
6月 28日(日曜日), 昨日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인지, 아침늦게까지 잠잤다. 서울의 꿈도꾸고,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午後엔 西独으로 떠나야 한다. 午前에 채 못본 곳을 찾아나섰다. 옛날 要恶며, 現代의 兵営 등을 두루 구경했다. 어느곳에 가나 나무가 무성했다. 無公害의 北欧, 空気, 물, 하늘, 숲, 거리, 人間, 建物 모두가 清潔하고 純朴하고 親切했다. 이런 環境속에서 生活하면 살맛이 날것만 같았고, 떠나기가 싫어졌다. 永遠히 이런곳

OSLO市 庁舎正面



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時間에 우린 北欧 三個国을 돌아다녔다. 우리 서울을 어떻게해야 이 런 都市로 만들수 있을까? 우린 왜 나무를 심지 않는 가? 서울을 OSLO, HELSINKI, SDOCKHOLM 같이 만들수는 없는가? 거리에서 巡警하나, 軍人 한사람 보 지 못했듯이 이 거리들은 어떻게 秩序가 整然하고 깨끗 하고 아름다울까? 술취한 사람, 다투는 사람, 証明書보 자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보지못한 이 거리들! 妄想아닌 望想에 잠겨서 걷다가도 어쩐지 자꾸만 서울과 比較해 보 게되었고, 우울한 気分이 되어버렸다. 돌이켜 生覚해보 면 나무다, 나무를 십어야 한다. 나무가 많으면 景観이 아름다워지고, 물이 맑아지고, 空気가 清澄해지고, 人心 이 너그러워진다. 이것은 真理이다. 이런 生覚은 아주 前 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힘이 없었다. 能力 도 財力도 없었다. 때문에 나는 내가 못했던 일을 시키 기 為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녀석은 農大 林学科에 보냈 고(현재 高大 農大 大学院 林学科 学生임), 곧 西独으로 보내서 林学을 철저히 工夫시키기로 했다. 北欧에 와서 나무에 반했고, 나무의 効能을 実感했기에 그를 林学을 專攻시키기를 잘했구나! 하고 満足했다. 나는 그에게 늘 말한다. 한나라, 한民族을 위한 나무가 아니다. 地球를 為한, 全 人類를 為한 林学을 해야한다. 公害는 人類哥 滅亡시킨다. 이것을 막는 것은 科学도, 機械도, 宗教도 아니다. 오직 林学뿐이다. 헐벗은 地球가 感気걸리면 肺 炎이 생기기 쉽다. 옷을 입혀서 구해야 한다. 西独에 가 면 西独処女와 結婚해도 좋다. 부모가 죽어도 林学을 이 루지 못하면, 돌아오지마라! 라고 極限的인 말을 하곤 한다. 男兒立志 出郷関, 学若不成 死不還이란 글을 써서 그의 冊床에 붙여 놓았다. 그도 그런 決心이다. 今年 九 月엔 西独으로 떠날 것이다. 北欧人둘이 말하는 "Green Gold / 果然 縁色은 숲인 것이다. 다음 紀行에 쓸 埃及 紀行에도 이 나무이야기가 나온다. 나무가 많은 北極은 永遠하리라! 人間이 地球上에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나 무를 심고 아껴야 한다고 確信한다. 이것은 萬古不変의 真理인 것이다. (※)

OSLO 조각公園 中央塔



□ 이 - 눈 - 섹스順으로 노화

본보기를 쓰는것을 누구나 성어한다. 그것은 벌써 나도 늙었구나 하는 엄연한 사실이니까 무리는 아니다. 확실히 찬 많은 눈의 노화 현상이고 대개 40대 후반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의 노화 현상은 40대에서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진을 찍을때 카메라의 조점을 맞추려면 몇번 렌즈를 조절해야만 된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의 눈은 자동석으로 잘 되어있다.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볼 때는 당장활자에 조점이 맞고 앞을 걸어가는 아가씨가 보고 싶으면 순식간에 미니스커트에 조점이 맞는다. 그런데 이런 자동조점 조절장치가 나이가 들면 잘 인든게 된다.

가까운 물체가 잘 안보이고 신문을 보 려면 멀리 떼어 놓아야 겨우 보인다. 이 와같이 老眼이란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 추는 눈의 조절이 안되는 상태를 말한 다. "이(齒), 눈, 섹스"의 순서로 몸의 노화가 온다고 한다. 눈의 조절력이 줄 어든 것은 렌스역활을 하는 눈속의 수정 체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이 다.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려면 수 정체를 부풀려서 빛을 많이 굴절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주정체가 노화해서 탄 력성이 약해지면 부푸는 힘이 약해진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곳에 관트를 맞추는 것이 어렵게 된다. 최대한도로 똑똑히 볼수있는 눈앞의 가까운 겨리를 近点이 라고 하는데 수정체는 나이가 들수록 딱 딱해 지니까 근점도 나이가 들수록 눈에 서 멀어진다.

통계에 의하면 10대 어린이의 근점은 눈앞 10cm이내인데 30대가 되면 눈잎 15 cm 정도가 되고 40대 후반에는 근점이 눈앞 40cm 이상으로 멀어져 손을 뻗어야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된다.

□ 잘맞는 안경선택중요

50대는 50cm이상이고 60이 넘으면 70 cm 이상이 된다. 이것을 보면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퇴하는 눈의 노화 현상이란 40대에서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수있다. 어린시절부터 전신적인 노화현상은 25세쯤 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눈의 수정책에 있어서는 더 어릴 때 부터 시작한다고 보이야한다. 적어도 10세 선부터 수정체의 노화가 시작하는 것이 확실하다.

어린이 때 부터 노확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스운 일어지만 눈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다만 40대 후반까지는 아직근점이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써야만 신문을 볼수있다고 해서 어제는 다했구나 하고 갑자기자신을 잃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기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60을 지나서 이

/ 건강포인트 〈I 〉/

노안(老眼)과 돋보기



전문직업인의 건강관리, 특히 40代이후 신체 각 가관에 따라 변화하는 노쇠 현상을 제크해서 그 예방책과 건강관리의 묘룡 알아본다. 그 첫번째 시리즈로 눈(眼)에 대해 寡門鹽의 진단을 받아본다./편집자/

□ 老眼보다 壯眼으로 해야

제부터 인생을 살아보자는 요스음 40대 중반에서 老服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가 혹한것 같다.

차라리 別帳이라고 이름만이라도 고쳤으면 돈보기를 쓰는 사람의 마음도 한결 가 버워질지도 모른다.

돈보기는 이름 그대로 물채가 크게 돋보인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임진왜란때 중국 사신이나 일본 승려가 돋보기를 쓰고 책을 잘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전만해도 돋보기는 크게만 보이고 가까운 책이나 잘 보이면 그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노점에서 40대는 40경(鏡), 50대사람은 50경 식으로 눈에 맞는 것을 골라서 끼는 수가 많았다.

돌보기를 맞추는 것도 눈의 모든 상태를 고려하고 또 개인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정확히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은 다음 안경점에서 만들어야 된다. 또 돋보기는 잘 보인다고 강한 것을 끼우면 눈이 피로해져서 머리까지 아파지는 수가 있으니 좀 약한것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눈의 조절력(調節力)은 나이가 불수록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돋보기도 적어도 2년에 한번쯤은 다시 처방을 받아서 갈아 끼워야 된다.

그밖에 돋보기를 맞춘지 얼마 안되어서 돌보기를 써도 책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눈에 이상이나 전신질환이 있는 증가 일수도 있기 때문에 곧 전문의를 찾도록 해야 된다. 즉 중년이후에 많은 병의 하나인 당뇨병에 걸리면 老腿이 빨리 을 수도 있고 또 일단 안경을 마춘후에라도 쉬 잘안보이게되서 안경을 자주 바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들보기안경 하나를 마출때라도 눈의 여러가지 잘환이나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바늘귀나 잔글 씨가 훤히 보인다."고 자기의 넘치는 스테미너를 過價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환限은 됐어도 近視가 있기 때문에 돌보기가 필요없던지 일반사람보다 늦게온다는것 뿐이다. 슬픈 일이지만 發始皇이이 찾던 不혼長生의 영약은 현재도 없고 본化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 흔히 나이가 들면 近視가 되고 近觀인 사람은 눈이 좋아진다고 말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이것은 오해이다. 단지 근시는 돌보기를 없이도 가까운 것은 잘 볼수 있는 경우가 많고, 원시인 사람은 노안이 남보다 더 빨리 온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돌보기 안경쯤이야 하고 간단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먼곳을 보통 안경과 마잔가지로 안파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맞춰야 한다.

특히 그런기회에 마다에 오기쉬운 여러가지 눈의병이 있는지를 아울러 점사 받는것이 바람작한 일이다.

支部巡訪

전라북도 지부



文尚植 支部長

全北支部巡訪은 本 協会 文尚植 全北支部 長斗 紙上 対談으로 道内의 開発行政方向。 建築士業務와 관련하여 当局 에 하고 싶은 애 기 建築許可制度의 改善建議 等에 対례 일 아본다.

문:全羅北道의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요.

답:全北地方은 우리나라의 西南쪽에 位置하여 智異山脈 盤若峰의 東西쪽 기슭인 北緯 35도18분을 最南端으로 하고, 益山郡 龍安面 多根里津 北緯 36도09분을 北端 으로 하여 南北 9분1초 사이에 결쳐 있으며東西로는 茂朱군 茂豊면 金坪리 走峙嶺 동쪽 832고지(東経127도 54분 40초4)를 東端으로, 沃海郡 米面於青鳥의 西쪽 끝(東経 125도58분10초 4)을 西端으로 하고 있읍니다. 本道의 面積은 8076. 18km²로써 南韓 全面積(98,913.86km²)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9道4市 가운데 7 位의 넓이이며 인구는 2백36만 2천여명이고 家口数는

本道의 도청 소재는 全州로 新羅 景德王 16년(757)에 州治所가 設置된후 이후로 고려가 亡하고 이씨조선이 일어나 全州가 璿源縣発 之基로 神聖視됨에 따라 全羅道按察使를 全州에 계속두었으며 그이후 1896년에 23 府制가 다시 13道制로 바뀌면서 전라남북도로 분할 됨에 本道의 지방 행정 수도로 현재에 이르렀음니다.

43만 9천 7백 6家口로 行政区域은 5市13郡145面 14邑

으로 되어있읍니다.

조철권 本道지사께서는 살기좋은 전북건설을 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사회정화, 애향운동,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생활안정과 복지사회의 실현 영농기계화 촉진, 고생산성 농업의 전개, 간선도로망 포장 확대, 도시개발사업 확대, 매력있는 관광권의 창조, 全郡 공업벨트기반조성, 전북의 대 역사 전주권 개발 추진등 10대 시책을 중점으로 불철주야전행전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읍니다.

문:도내의 개발 행정 방향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십시요

답:本道지사께서 道政시책에서 밝힌 개발 行政 내용을 본인이 아는대로 개략하면,

- 1. 전북 대 역사 전주권 개발
- 2. 全群 공업 벨트 기반 造成
- 3. 도시개발 사업의 확대
- 4.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시설 확충
- 5. 매력있는 관광권 창조등으로

특히 이중 전북 내 역사 전주권 개발과 全群 공업벨 트 기반 조성을 들수 있읍니다.

세계 은행 차관과 정부의 내자 지원등 총 1,202 억원을 82년부터 86년까지 투입하는 지역개발사업(주요내용: 2개지구 120만명 공단 조성, 6개지구에 4만6천 M/D상수도 시설, 1개 지구에 4천평 시장중설, 3개지구 36만7천평의 주택단자 조성, 2개지구에 12만M TP하수처리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역사적인 전북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78년부터 86년까지 1,182억원이 투입되는 全群 공업벨트 기반 조성

은 전주, 군산, 이리 3시를 연결하는 공업벨트권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농공병진 도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할것입니다. 특히, 郡山 공단은 장대 서해안을 배경으로한 국제 무역에 대비토록 착안함으로써 면모를 과시하게 될것입니다.

문 : 건축사 업무와 관련하여 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 으시면 해주십시요.

답: 1. 건축 行政은 국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하다함은 어쩔수 없다고는 하나 行政당국이 성의를 다해 민원을 파악, 개선하여야겠습니다.

가. 허가를 독하는데에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도 첨부 서류가 복잡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나. 행정당국은 건축 담당 요원을 좀더 늘려서라도허가사항을 빠른시간내에 처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 각종 공채 및 허가 수수료는 허가를 독한후 납부 함이 바람직합니다.

라. 건축사의 처벌대상 한계가 너무 모호하고 일방적입니다.

2. 건축경기 부양책으로 건의사항.

가. 취득세 양도세의 대폭할인

나. 건축법의 완화(대지의 최소 면적을 확보함에 상업지역등 특수 지역의 최소확보 면적을 하향 조정, 일조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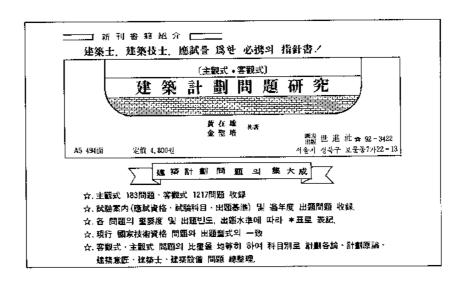
다. 공업지역내외 주택 건축에 대한 시장, 군수의 재 량권이 부여된 허가 대상지역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사, 고시. 문: 건축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바라는 말씀과 참 신한 건축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말씀해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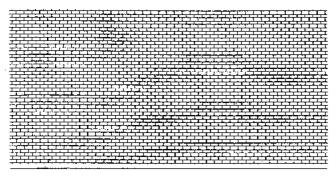
답: 1. 회원총화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겠으며,

- 2. 사회로부터 영리만을 추구하는 영리인이라는 그릇 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겠고,
- 3. 비리와 부조리등을 척결하는데 솔선수범하여야 겠으며.
- 4. 건축사는 건축 기술만을 제공하는 사회인이 아니라 자식인이며 예술인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 를 겠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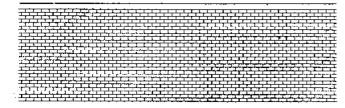
5. 본협회 윤리규약을 준수합시다.

우리 건축사들은 성실과 정직과 청결, 봉사를 선 조로 하여 꾸준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왔으며, 신뢰받는 건축 사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사회로 부터 떳떳한 대우와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의감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정화하는데 술선수범 참신한 건축사상을 부가시켜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유도하여야겠으며 회원 총화체제를 더욱 공고히하여 국민총화에 밑거름이 되어아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무철한 국가관, 사회관을 확립하여 국민을 선도하고 지도하여야 할지식인으로써 사명과 예술인으로서의 궁지를 가지고 주택 건축설계 하나라도 열성을 다하여 작품을 제작하는자세로 임무에 충실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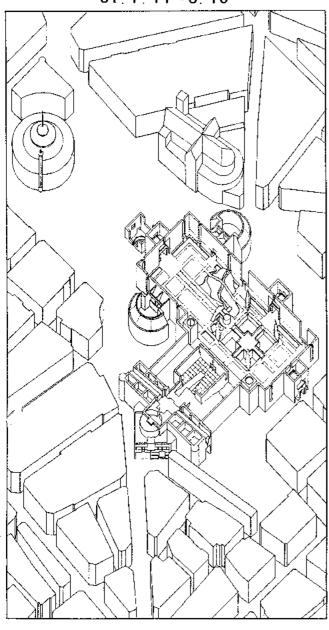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81, 7, 11~8, 10



아파트 住居用外 사용금지

서울시는 15일부터 아파트를 사무실 주점 미용실 의상 실 전시실등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아파트주인을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거환경을 정화하기위 해 지난 14일까지 자진정리기간으로 정해 주민의 신고 또 는 구청직원의 조사에서 적발된 3백92가구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었다. 시는 우선시정지시가 내려졌던 3백92 가구의 타용도사용아파트를 조사, 시정기시를 여행않은 아파트 주인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38조 2 항)을 적용, 고발하고 그밖의 타용도 아파트도 적발되는대로 고발키 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내에 산재한 복덕방에 대해 서는 현재건설부가 추진중인 공동주백관리령 개정이 끝 나는대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주거용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사무실, 주점, 전시실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축진법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사용 을 금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단 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용법 등 정비시급

国土의 효율적이용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土地이용 올 규제하는 법률이 都市계획법동 75개에 이르고 있는데 다가 이들 법률의 관장부처가 서로다르며 법률상호간에도 相衝되고 어느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것이냐에 대한해 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 로지적되고 있다. 토지어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건설부가 도 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등 도시개발 과 国土이용, 주택건설계획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상공부 는 공장부지확보와 산업재배치에 관한사항, 농수산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또 산림 보전 및 취득세, 地籍에 관한것은 내무부에서, 양도소득 에 관한사항은 재무부에서, 각각 다루고 있어 일관성있는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 지이용 규제는 시, 읍, 면지역에는 도시계획법, 기타 농 촌지역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전국적 도시화 내지 都農간의 구분이 불분명 해지는 추세에 비추 어 현행과 같은 2 원적토지 이용규제는 재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저적되고 있다. 英国은 이미 79년에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임원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을 단 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82년부터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고 5차 5개년 계획의 시 발연도라는 점에서 각종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자 역, 지구, 구역등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동일 목적이 거나 유사한 저역, 지구, 구역들은 통합해야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전문가들은 1차 국토종합 재발계획기간중(72~ 81년) 제정을 검토했던 토자이용 기본법을 제정, 이를 기 본으로하여 관계법률을 정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地下層은 연면적서 제외

경제장판회의는 2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건축물의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에서 연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용적률 제한과 상관없이 지하층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번주중에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인이 개정안은 또 6층이상의 건물에는 승강가를 반드시설 치해야하나 6층건물은 3백㎡ (약90평)이내마다 계단을 설치하면 승강기 설치의무를 면제키로했다. 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각 지방자치단체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나 단독주택은 제외시켰으며 최저 고도지구에서기존건축물을 개축할때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허용키로했다.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아 중축이 제한된기존공장의경우도 열병합발전을 위한 건축물을 중축할때는 이를 허용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KS표시 건축자재에 도어 크어로우저,도어 로크, 배관용밸브 수도꼭지로 정했다.

国民住宅 경쟁을 높을듯

25평이하 坪数대형화. 物量감소 따라 주택업체들의 갑 작스런 坪数대형화로 지역에 따라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다시 인기평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 택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 의무화 철폐, 분양가격의 자 율화에 따라 입지조건이 좋거나 매입가격이 비싼토지를 가진 업체들은 아파트의 설계년경 붐을 맞고 있는데 서울 의 江北, 永東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 택이 전혀없는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8~9월중 선 규사업을 벌일 업체가운데 한양住宅(瑞草동), 韓信工営 (盤浦동), 三益住宅(安岩)등은 당초의 국민주택병행건설 계획을 바꿔 모두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대형평수로 전환 시키고 있는등 앞으로 입지조건이 좋은지역에의 국민주 택 분양은 물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청약의 우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택청약예금제로 인해 평수의 대형화추세로 큰 변동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1만 8천 2백71명에 달했던 주택청약예금가 입자중 59.1%를 점한 2백만~3백만원예금자 1만8백 2명이 큰 타격을 입게되어 갑작스런 대형평수의 허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게되었다. 한편 가격의 자율화와 평 수의 대형화 추세로 그동안 분양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이 규모의 신축물량감소에 따 라 재분량이 훨씬 수월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고분 9월까지 자율처분

非業務不動産 합동조사본부는 主去米銀行 여신관리 대 상기업과 관련 기업인이 소유한 비업무용부동산 신고 및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자진신고 부동산중 기업의 비 업무용부동산과 自己資本指導比率에 미달하는 기업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업 및 기업인이 오는 9월말 까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권장하고 그때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土地開発公社에서 82년 4월말꺄지 때 입을 끝낼 예정이다. 未申告 부동산으로서 합동조사결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밝혀진것은 빠른지일안에 土開公어 土地債券을 발행 일괄매입토록하여 조속히 企業資金化하 도록 함으로써 기업財務構造개선에 기여하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課稅문제에 있어서 처분비용을 增資 또는 貸出金상환에 사용, 自己資本비율 올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資金出処調査를 하지 않는등 당초약속대로 혜택을 줄 방침이며 미신고분 은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금출처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합동조사결과 밝혀 진 미신고부동산은 토지 4천8백27件에 1천89만 8천평, 건물 6백81件에 5만4천평등 모두 5천5백8건에 1천 95만 2천평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기업소유 토지로서 [신문] 고하지 않은것이 5백7件에 1백45만3천평이었고 관련 기업인 소유는 9백25만4천평(3천8백97件)타인명의소 유토지는 19만 1 천평 (4 백23건)에 달했다.

토지건물 등 土開公서 매입

銀行돈을 많이빌어쓴 企業 및 企業人들이 자진신고 안했다가 적발된 토지가 5천5백8件에 1천95만 2천평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작년 9.27조치(기업체질강화대책)에 의해 은행 빚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0월 15일까지 모두 신고받은 다음 숨김것이 없는지를 다시 조 사했다. 31일 기업 및 기업인소유 부동산 합동조사본부 (본부장 金壽鶴국세청장)는 未申告부동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5천여건의 2천 9백 83만평이 새로 드러났으 나 同名異人등 해당없는 것을 가려내고 정밀対査를 해보 니 未申告부동산은 1천95만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로써 작년에 신고한 1천 1백98개 企業의 부동산 4억3 천 6백95만평(국영기업을 제외하면 3억2천61만평)과합 쳐 기업 및 기업인 소유부동산은 모두 4억4천여만평에 달한다. 새로 밝혀진 未申告부동산은 토지 4천8백27건 1천89만 8천평 건물 6백81건 5만 4천평이며 소유자이 름을 보면 토지의 기업체소유가 1백45만 3천평(5백7년) 관련인 9백25만4천평(3천8백97건). 他人명의 19만1 천평(4백23건)이다. 정부는 적발된 未申告부동산은 빠 른 시일안에 土地開発公社로 하여금 土地債券을 발행 일 팔 買入하도록하고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유수에 대한 자 급출치를 조사할 방침이다. 申告부동산은 9월까지 자율

적으로 처분하도록 권장하고 그때까지 처분되지않은 부동산은 土地開発公社에서 내년 4월까지 전부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중자 또는 貸出金상환동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優秀시공業者에 入札우선권

건설부는 정부発注공사를 성실하게 施工한 업체에 대 해 정부공사入札에 우선권을 주는 優秀施工업자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우선 건설부発 注공사부터 시행하고 점차 정부부문 공사전반에 확대적 용하게 된다. 건설부와 재무부가 합의한 우수施工업자 지 정기준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土木建築업자로 20개이내 의 업체를 우수施工업자로 지정키로했으며 선정기준은최 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施工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반 은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건설부 공사실적이 6억원이 상인 업체 不渡 지체보상금 발생 国税 및 地方稅체납통 이 없는 신용과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 指定전년도 1억 실이상 공사에 대한 건설부施工評価表에 施工능력우수업 자로 인정된 업체로 되어있다. 우수施工업자로 지정되면 내년도에 발수된 3억원이상의 신규공사중 30%이내에서 指名경쟁 입찰자격을 갖게된다. 실제운영은 우수施工업 자로 지정된 업체를 都給限度順으로 3개群으로 나누어 群別로 대형공사를 공평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우수지공 업자세도는 78년 12월에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79 년 9월에 개정된 契約事務처리 규칙에 지정근거등이 마 련됐으나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 도는 지급까지 건설업체에 대해 不実施工어 있을경우 영 업정지, 면허취소, 入札자격제한등 제재만 가해오던것을 工期단축, 品質향상, 工事費절감등을 기한 우수업체에 대 해 入札우선권을 줌으로써 성실施工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다. 이같은 제도는 日本, 싱가포르동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 왔다.

市級 도시계획 재조정

정부는 전국46개 市級지역의 전면적인 도시계획 재조정 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이 번재조정 작업은 5년주기의 정기적인 것으로 도시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택지 수요에 맞춰 많은 자연녹지 지역이 주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조정작업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82~91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책정된 도시별 목표인구가 주어지며 이 목표인구에 맞추어 기존도시계획이 수정된다.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음달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건설부는 도시계획 재조정과 함께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도 아울러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市級지역의 재조정 작업에 이어 문級이하 지역의 도시계획재조정작업도 1년에 있을 예정이다.

上水道공사비 定額制로

수도공사비 계산방법이 종전의 실제거래별로 계산한 実

費制에서 10월부터 전화 가설과 定額制로 바뀐다. 서울시는 5일수도공사비 징수 방법을 정액제로 바꾸고 연건평 50이하의 가정용은 대로변에서 최저 16m, 최고 24m이내에서는 일률적으로 29만원(이하가 설비수도채권 구입비는 제외)다소 거리가 덜어 대로변에서 24m를 초과할 경우 초과 공사금액만 추가로 물고 연건평 50평이상의 주택의경우 정액금액 29만원에다 1평당 5천 9백40원을 추가로 물고 10평미만 영세민 가정은 총공사비의 30%를 감면 해주고 동시에 6개월에 걸쳐 분납의 혜택을 주기로 했

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종전에 수도를 가설 할

때 가구당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3만원을 물었던것이 전

체 96%를 차지했는데 앞으로 일룰적으로 29만원만 내면

수도를 가설할수가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와같이 수도물의 부정사용을 뿌리뽑기위해 부정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전평 현행 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공사비를 정 액제로 바꾼것은 수도시공업자의 공사비 과다징수를 방 지하고 지역별계획급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9만원의 산출근거는 과거 4 년간 서울시 가정용 수도공 사비를 산출평균으로 산출 연건평 50평미만의 가정으로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접어들어 16m이내 가정이며 공사비 가 29만원 가량이다.

대로변 인접경우 종전 옆집에서 가설비가 15만원 밖에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29만원을 내어야 하다.

대로변 30m이상 떨어진 경우 구청수도과에서 공사비 계 산결과 43만 5천원 미만이면 29만원만 내면 된다.

공사비가 43만 5천원 초과할 경우

대로변에서 거리가 멀어서 공사비 산출에서 5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수도과에 낼 공사비는 43만 5천원에서 초과한 6만 5천원과 정액공사비 29만원을 보면 금액만 내면되다. 즉 35만 5천원을 내면 되는것이다.

50평이상의 경우 50평까지는 기본정액 공사비가 29만 원이다.

非業務用부동산 매입

작년 9.27조치에 의해 매각해야할 기업소유·非業務用不動産은 총 3억3천 1백56만坪(국영기업소유분포함 4억4천 7백90만坪)으로 이중 自進申告한 것이 3억2천 61만坪, 합동조사결과 밝혀진 미신고 부동산은 5천 5백 8件에 1천95만평으로 최종집계되었다.

新規이파트 分讓없어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7월은 신규아파트 분양이 없는달이 될것같다. 1개월동안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분양이 한전도없는 것은 지난해 8월이후 처음있는 일

인데 이달중에 분양을 계획했던 冠岳子 新林동의 2백80 가구(라이프住宅)는 담보해제로 분양시기를 8월초로 미 루고 있으며 龍山子 梨麥院동의 6백36가구(清和企業)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새 버스터미널 세우기로

서울시는 8일 동대문구 상봉동 83의1 망우역앞일대1만 1 천여평을 망우시외버스 터미널부지로 정하고 은평구 대조동의 불광시의버스터미널을 현재의 6백85평에서 2천 4백여평으로 늘려 도시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도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외곽이전계획에 따른것으로 망우터미널은 춘천과 퇴계원 방면의 시외버스를 수용하게된다. 서울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동대문구 상봉동의 망우 강남구 서초동의 영동 성동구 구외동매립지의 동부은평구 대조동의 불광 영등포구 철도공작창부지의 남부 도봉구 창동의 북부동 6개지역인데 남부와 북부를 제외한 4개소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터미널의 위치를 지하철역 부근에 잡고있는데 이는 연계 수송을 감안한 것이다.

아파트 防音시설 義務化

- 서울시는 고속도로변과 강남대로변의 아파트주민 들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 지역에 건립되 는 모든 아파트에는 방응벽과 수립대, 페어글라스 등 그 실정에 맞는 소음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 라 서울시는 처음으로 강남구 藥院동 12번지에 전립되는 한신 1,2차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고속도로변 사 이에 폭 30m 정도의 나무들을 심어 수림대를 조성키로했 으며 고속도로변과 인접하는 외부의 창도 모두 폐어글라 스 구조로 시설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그동안 한 국표준연구소가 고속도로변과 강변도로변 아파트의 소음 실태를 조사평가한 결과 이둘지역의 아파트 소음이 소음 기준치인 55데시빌보다 월등하게 높은 70~80데시빌에 달 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수림대를 조성함 경우 소음 흡수 효과가 쿨뿐 아니라 녹지가 조성되어 주저환경이 향 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시에 소음도가 15~20데시빌 정 도 낮아 실내 소음도가 크게 낮아질것으로 보고있다.

元暁대교에 防音壁 설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元暁大橋 南等 連結高架道路 (램프)에 防音壁이 設置된다. 서울市는 오는 10월中旬開通予定인 元暁大橋 南쪽 連結高架道路가 汝矣島 示範아피트와 汝矣島國民学校사이를 지나게돼 앞으로 이 다리의 開通과 함께 車輛通行으로 因한 甚한 顯音을 막기위해 램 三両쪽 200m씩 높이 4m의 鉄製防音壁을 세우기로했다. 元暁大橋 連結高架道路의 防音壁設置는 元暁大橋를 지나 인터체인지를 통해 大方동쪽으로 나가는 接続道路의 경우 15도 가량의 傾斜가져 이곳을 通過하는 車輌들이 減速했다가 다시 出発하도록 돼있어 防音壁을 設置하지 않을 경우 車輌騒音이 120~150 ab가량으로 予想되고 있

다. 이러한 경우 住民들이 甚한 睡眠障碍를 받는등 騷音 公害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防音壁을 設置 하면 各種 騒音이 40ab로 낮춰진다. 防音壁의 施工方式 은 구멍이 뚫린 鉄板 2개사이에 유리繊維를 넣어 騒音* 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先進国에서 많이 利用되는 工法이 다. 市는 앞으로 새로 놓게되는 다리나 現在 建設중인 다 리開通으로 騒音이 予想되는 地域에는 이같은 防音施設 을 할 計画이다. 지난 78年7月 民資 258억원으로 東亜 建設産業(林元洙 서울)이 建設중인 元暁大橋는 幅 20mo[®] 길이 1천470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다리이다.

20戸이상 住宅신축 承認

国務会議는 7일下午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案을 議決 20家口以上 集団住宅일때는 반드시 市, 道知事의 承 認을 받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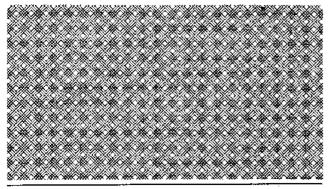
建設部가 마련 이날 国務会議를 通過한 이 改正案은 지금까지 5戸以上의 集団住宅을 建設하고자할때 事業計劃 承認을 반도록 했으나 이를 20戸以上으로 拡大하여 分讓 過程에서 不実 및 非違로 인한 社会的 物議를 最大限 予防하기로 했다. 또 改正案은 国民住宅의 転売制限期間을 2년間으로 하되 投機가 일어날 경우 住宅政策審委員会에서 転売期間을 따로 定하게 했다.

詳細계획制度도입 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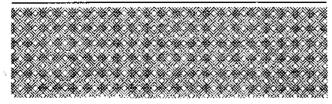
政府는 都市計劃에서 地区詳細計劃制度를 導入할 方針 이다.

建設部에 의하면 이같은 方針은 計劃性있고 아름다우며 快適한 生活与件을 갖춘 都市開発을 위한 것이다.

地区詳細計圖制度 라 都市計圖에 있어 地区別計圖에 따라 層数와 規模 및 方向등을 厳格히 規制建物이 제멋대로 둘어서는 것을 막는 制度를 뜻한다. 지금은 都市計圖 区域안이라 하더라도 建築法上의 建蔽率과 容積率만 規定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마음대로 建物을 지을수 있게 돼 있다. 建設部는 地区詳細計圖制度의 導入을 위한 立法化를 明年중에 끝내고 83년께부터나 施行에 들어갈 計劃이다. 이 制度는 새로운 開発地区에 우선 適用되며 이미 開発이 完了된 地区에 대해서는 再開発事業을 通해 施行程予定이다.



建築行政相談



81, 7, 11~8, 10



- 建築法에 關한 事項 -

문1 : 지하층 설치 적용 규정은?

답 : 지하층 200m²이상, 6층 이하는 건축연면서의 1/10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문2 : 기숙사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아파트 심의기 준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답 :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속 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제외되었으므로 심의 기준의 적용 을 받지 않읍니다.

문3 : 미관지구내 3m 후퇴한 부분에 추차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요?

답 : 3m 후퇴부분에 대하여 수차는 물론 화단동 식수도 할수 없옵니다.

문4 : 연근북축에 10평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없읍니다. 건축을 할때 이 대지경계선에서도 일조권에 필요한 거리를 띄어야 합니까?

답 : 띄어야 합니다.

문5 : 대지가 도로에 변한부분이 2M 인데 대지 현상길이가 30 M 입니다. 건축이 가능한지요?

탑 : 막다른 도로에 가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지로서 폭원 이 3M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6 :학교전축에서 천정고는?

당: 천정에 보가 없으면 천정까지며 보기 있을때는 보 밑까 지를 천정 높이로 한다.

문7 : 주거지역에서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여관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관계부서인 위생과 및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것도 있음)

문8 :경사진 대지에 4면중 1면이 노출되어 차고를 설치할 경우 지하실로 볼 수 있는지요?

답 : 4 면중 일부분이라도 2 층고 높이에 3분의 1이상이 지 상으로 노출되면 지하층이 아닙니다.

문 9:대중음식점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 관계는?

답 : 대중음식점을 사무실로 용도면경을 받고져 할 경우 설계자의 설계를 필요로 하여 해당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10: 미관도로와 후면도로가 고저차가 집한 경우 건축 물의 충수제한은 어느 도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지요?

답 :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목적은 주변환경과 주변 건 축물과의 조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미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총수제한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1]: 주거지역내에 200m² 이상의 택지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 주거지역내 150m² 이상의 차고는 불가능합니다.

문12: 준공업지역내 비공해공장 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 건축법상 지장은 없으나 서울지역에서는 공업배치 법에 위배되므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문13: 주택의 일조원에 의한 높이 제한 산정시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때 평균치로 하는지요?

답 :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산정시 각 부분별로 산정하여 야 함.

문14:추거지역안에서의 주백(기존)에 별통으로 점포를 증축

함 수 있는지요?

- 답 :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용도의 별통접포는 기타 건축법의 제한에 지장이 없을때는 증축이 가능합 니다.
- 문15: 병원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하 가사항업지요?
- 답 : 예,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문16:여유공지가 많아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가능한경 우는 어떠한 때문인지요?
- 답 : 건축법 제39조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의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수있는 여유공지가 있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됩니다.
- 문17: 로라스케이트장은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서 어느 용도로 분류하는지요?
- 답 : 건축법 시행령 부표 14에 의거 위락시설 중 유기장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문18:6층이하로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해도 되는 지요?
- 답 : 6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미만일때에 안해도 됨.
- 문19:대수선 범위를 알려주십시요.
- 답 :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1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建築條例에 關한 事項 -

- 문 1: 이관지구내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하여 건 축이 가능합니까?
- 답 : 1~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모두 30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 문 2: 미관지구내의 조례의 변경사항이 있는지요? (전례 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 답 : 미관지구내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변경된 사항이 없이 좋전대로 하시면 됩니다.
- 문 3 : 조례에 아파트부분 조례가 누락되었는데 그 적용은?
- 답 : 아파트부분조례가 누락되었어도 서울시 행정지도로 종 전대로 적용됨
- 문 4: 도시계획철거로 인한 대지적용 법위는?
- 답 : 서울시 조례로 지정된 바에 의하면 대지면적의 최소면 적의 1/2 까지 도시계획철거로 인한 잔여대기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합정되어 있읍니다.
- 문 5: 풍치지구의 용적율은?
- 답 :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풍지지구는 60%에서 90%로 완화 하였읍니다.
- 문 6:연립주택 12세대를 시공코져 하는데 건쾌율과 용적율은?
- 답 : 연립주택 12세대인 경우 서울의 경우 전폐율은 40% 미만, 용적율은 100%미만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 7: 서울시 조례에 공동주택조례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적용은?
- 답 : 서울시 조례에 빠져있으냐 공동주택은 당초 조례에 준하여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 8:서울 종로3가 미관지구인데 긴패율과 용적율은?
- 답 : 서울 4 대문 내 간선도로변은 전쾌율 40%에 용적율670 %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 문 9:제2종 미관지구 상업 지역으로 85평에 건축이 가능한

지요?

- 답 : 세 2 중 미관지구는 330m² (100평)이상의 대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기분할된 토지로 추후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령180조 4 항에 의하여 그 변경시로 부터 10년간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 문10: 서울 영등포관내 제2종마관지구에 접한 대자면적이 45 평위에 기존 한옥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 위험하여 대수 선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자요?
- 답 : 기존건축물의 대수선하는 경우는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 소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문11: 서울시 건축조례에 풍치지구가 원화되었다는데 건페율... 과 대지면적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요?
- 답 : 서울시 건축조례가 81. 6. 27자 개정되고 동조례는 공 교일(81. 6. 27)부터 시행중이며 동 조례중 중치지구 에 한하여 전체율은 30% 대지면적은 200㎡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12. 제 2 종미관지구에 있는 대지 54평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 달 : 제 2 종미관지구내의 대지 최소면적은 330m²이나 이에 미달되는 대지는 추가로 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70평까지도 가능하며 도시계획 시설로 자투리당이 된 경우에는 100평의 1/3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13: 주거지역 제 4 종미관지구이며 도시계획으로서 10 평이 저촉 나머지 41병으로서 기설건축 또는 본 건물이 가능 한지요?
- 답 :도시계획으로서 자부리땅은 대지면석의 1/3 이상이면가 능하므로 본건물은 물론이고 기설건물도 3층까지 가능하나 5년까지 시한부이며 준공검사와 가옥대장 동재는 불가함.
- 문14: 풍치지구내 별동으로 10평 미만의 방만 중축이 가능한 지요?
- 답 :가능합니다.
- 문15: 서울 등촌동 236-1 환지지구보서 제 2 종 미판 지구에 대지 62명 소유자로서 건축가능한지?
- 답 :제 2 종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00평이고 서울지 건축조례 제42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기준미달 대지에 대해 최소대지면적의 1/3 이상이면 가능하나 동 지번은 도시계획 시설로 기준미달된 대지가 아니므로 현재로는 건축이 불가하겠읍니다.
- 문16: 풍치지구내 대지면적 198m²은 건축할 수 있는지요?
- 답 : 풍치지구내 대지면적 200m²의 최소면적에 70% 까지의 30%를 건축이 가능함.
- 문17:미永도로에서 정남북방향에 일조권을 위한 건축율 墓 제한은?
- 답 : 20m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는 상호간에 1.0m 이상 거리를 둔다.

- 都市計劃法에 關한 事項 -

- 문 1:서울시 결동의 경우 주거지역인데 공용 주차장을 설치 코자 할 때 그 가능 여부는?
- 답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시설고시를 독하면 가능합니다. 👢 🖔
- 문 2:제2종미관지구내에서 현재공사중인 점포, 사무실을 예 식장용도로 번경 가능합니까?
- 답 : 반경 5km이내에서는 예식장 신규허가는 받을 수 없으

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철거 이전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문 3 * 주저지역내 시장용지에 5층 시장건물의 3 층부분을 예 식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요?
- 답 : 시장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전물은 도시계획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 규모, 위치를 정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것으로서 도시계획 실시인 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

- 駐車場法에 關한 事項 -

- 문 1: 안양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 답 :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일반 지구에 대해 2,000m²이상건 축물에 400m²마다 1 대의 바율로 설치토복하고 주차장 정비자구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 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2:지하실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동 주차 면적은 주차대 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 답 :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동부분 면적은 주차대수 면 적에서 제외됩니다.
- 문 3:주차장의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 답 :옥내주차장은 소요면적의 50%만 가능합니다.
- 문 4:도심지내 기계식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읍니까?
- 답 : 주차장법병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 5:근린생활자설과 업무지설이 복합된 건축물에 주차장 내수 산정시 어떻게 하는지요?
- 답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으므로 건축연면적 150m² 당 한대의 비율로 산정해야 됩니다.
- 문 3:용도변경시에 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건축허가가 되는지 요?
- 답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 (건축)하는 면적이 150 m² 미만일때는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되지만 150m² 이상의 변경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 기준이 강화 되는 쪽으로 용도변경할때는 강화되는 기준만큼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 문 7: 주차장 설치기준중 육내 및 옥외의 설치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답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시 건폐율이 50%이상 일때는 해당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고
- · 건폐율이 50%이하일때는 옥외에 26%에 해당하는 주차 장을 설치합니다.

- 其他 規程에 關한 事項 -

문 1: 건축하가사 건설업자가 선정되어야 할 대상은?

답 : 건축법상일반건축물은 150평 특수건축물은 200평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선정 시 공 토록 하여야 합니다.

- 문 2:당구장이 위탁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여부는?
- 답 : 건축법상 당구장은 위락시설이 아니나 보건사회부 규정 (81. 6. 2)에 의하면 당구장이 유기장으로 분류되어 있 읍니다.
- 문 3 :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하여 사업승인도록 하는 기 준이 강화되었다 하는데 사실인지요?
- 답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81. 8. 24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로 확대시행 되었음.
- 문 4:2급 건축사로서 3층 기존건물 위에 1층을 증축설계 코자 하는데 가능하지?
- 답 : 2급 건축사 업무 범위가 3층까지 1,500m²이므로 귀하의 경우 설계할 수 없읍니다.
- 문 5: 연립주택의 세대당 대지면저의 한계평수가 있는지요?
- 답 : 연립주택의 대지면적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읍니다. (다 만 서울시에서는 행정지도로 세대당 25평을 기준 으로 하고 있읍니다.)
- 문 6: 태양열 주택인 경우에 건축허가 절차는 어떠한지요?
- 답 : 건축하가 설계도면은 태양열 에너지 연구소에 추천을받은 도면에 한해 일반건축물과 같은 절차에 외거 건축하기를 받아야 합니다.
- 문 7: 연립주택 3층허가가 가능한지요.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이가요?
- 답 : 3층의 연립주택의 허가기 가능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 도는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하면 기능합니다.
- 문 8: 지독이 임야인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 서울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 9:건축물 이력표찰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는지요?
- 답 : 건축물표찰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병용주택, 아파트에 한하여 준공시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문10:예식장계획에 있어 객실에 출입문의 今는 몇개로 하여야 합니까?
- 답 :예식장 영업허가기준에 건물전체의 출입구는 2개 이상 이며 각 객실의 출입문도 2개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문11: 배양열 주택 건축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까?
- 답 :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세제상의 혜택(취득세, 등록세 면 제)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12:지하실에 대해서는 주택체권을 사지 않는다면 작업장 용도로는 사야 하는지요?
- 답 : 작업장도 거실에 포함되므로 지하실내의 거실은 주택체 권을 사야합니다.
- 문13:건설업자 선정한계는?
- 답 : 건설업법 제 4 조규정에 의거 일반건물인 건축연면적661 m²와 특수건축물 495m² 이상인 경우 시공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다음은 건설부령 제301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04호(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 설부고시 제327호(자동방화샷다기준), 건설부고시 제330호(접 도구역지정에 관한 고시)를 옮긴 것이다.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01호(1981, 7, 15 공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운동장등 시설에 대한 결정) 일단으로 구획되는 시설 중 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8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 미터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만한다.

제13조 본문중 "다음표의 기준이상의 가각을 전재하여야 한다" 를 가각의 절제변의 길이가 다음표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 2 및 45조의 3을 작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 2 (공원등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제45조의 3 (공원등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각각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 제 2 항제 2 호충 "시장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3호"를 "시장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3 호"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 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를 비축 및 저장하는 시설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사업법시행령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대리점이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유의 저장시설 또는 송유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74조 제 1 호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학교의 종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 81조체 1호 내지 제 6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외한 학교를말 한다.

제85조 제11호중 "중학교는 2개 내지 3개"를 "중학교는 2 개"로 하고, "고등학교는 3개 내지 4개"를 "고등학교는 2 개 내지 3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세 1 항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천 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의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 제304호 (1981. 8. 31 공포)

제2조 셰 1항제 3호에 터목 및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 및 방송시설의 중축과 그 부대시설의 실치.

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충 의 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제 3 조 제 14호중 "커"목을 "퍼"목으로 한다.

부 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방화샷다의 기준

건설부고시 제327호 (1981, 8, 27)

-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제 1 항의 자동방화샷다 (이 하 "샷다"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설치위치

샷다는 건축법시행령 제95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 방화문으로부터 3 m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자동방화샷다의 구성

샷다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열감 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장치등을 갖추고 화재발생 시의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채로서 재료·품질 개폐장치 및 연동폐쇄장치등은 다음각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품질등

샷다의 재료, 구성부재, 형상, 가공조립 및 설치는 한국 공업규격의 "방화샷다(KS F4510)중 갑종방화문용 샷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개폐장치

- (1) 샷다의 개폐장치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로 작동 되어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정저시킬 수 있는 구조 로 하고, 자중에의한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 (2) 샷다의 개폐용 전동기는 한국공업규격의 "저압 3 상유 도전동기 (KS C 4202)"또는 "단상유도전동기 (KS C 42 04)"에 적합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 (3) 샷다의 개폐기와 감아올리는 샤프트를 연결하는 "샤프 트 로울러체인"은 한국공업규격의 "전동용로올러 채인 (KS B 1407)"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연동폐쇄장치

샷다의 연동폐쇄장치는 화재발생시 열갑지기, 연기감지가 및 온도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열감지가, 연기감지기, 온도퓨우즈, 연동 세어가, 자 동폐쇄장치 및 예비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 (2) 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 (3) 열갑자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 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청작동온도가 60~70℃의 것으로 한다.
- (4) (2)의 연기감지기와 (3)의 열감지기와 설치방법은 소방 시설기술기준령중 자동화재탑재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른 다.
- (5) 연몽게어기는 연기감자기 또는 열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은 경우에 자동폐쇄장치에 가몽지시를 주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한 열로 인해 기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비전원 및 연동 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6) 온도퓨우즈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인 경우의 온도퓨우즈장치는 50℃에서 5분이내에 작동하 지 아니하고 90℃에서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7) 예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 지로서 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30분간 계속하여 샷다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성능시험

샷다는 다옵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 결과 모두 합격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가, 시험체

시험체의 재료 및 구성은 가이드레일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2,200mm, 세로 · 2,200mm의 시험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가열시험

- (h) KS F 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가열등급 2시간 가열시험으로 한다.
- (내) 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판정은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 방법"에 의한 B종의 성능을 가진 것을 합격으로 한다.

(2) 차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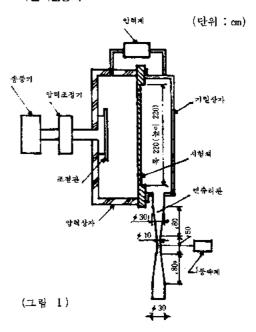
- (78) 시험장치는 시험체의 전면에 등분포 공기암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한다.
- (나) 시험장치에 부착한 시험체를 원활하게 개폐할수 있는 가를 확인한 후 폐쇄상태로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대) 시험체의 양면압력차를 $1m^2$ 당 $1 \log 2 \log 및 3 \log 차$ 이로 각각 3회씩 시험체의 양면에 대한 통기량을 측정한다.
- (화) 시험결과는 표준상태(공기온도 20℃ 1기압)의 단위 면적(m²), 단위시간(분)당의 통기량으로 환산하여표 시한다.
- (애 시험은 1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환경은 압력차가 1 m²당 2 kg의 경우에 측정값 모두가 매분 1 m²당 0.2 m² 이하이어야 하며, 자 압력차에 대한 측정값은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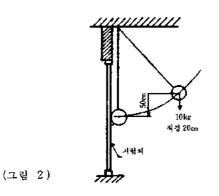
(3) 충격시험

- (개) 충격시험의 시험체는 가열시험의 종료 후 30분이내 의 시험체를 이용한다.
- (내) 그림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중량 10kg, 직경 20cm
 의 구상모래주머니를 충격개속의 직상에 쇠줄로 매고 충격개소로부터 연직거리 50c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대) 시험체의 충격개소는 가열뒷면증 구조상 약점부를 3개 선정하여 각각 1회씩 충격을 가한다.
- (m) 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판정은 과괴, 구멍 이 생기거나 틈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합격으 로 한다.

차연시험장치



충격시험장치



建築 積算 資料

(시리즈 1)

曹 浚 鉉 建設部 技術指導 課長 建築工事의 積算은 提示된 設計図나 其他 示方書에 依하여 正種別로 敎量을 算出하고 그 各 数量에 所要単価을 乗한 金額을 占算하여 工事費을 算出하게 된다.

工事量을 算出하고 工事費을 計算하는데 있어 基本 指針곱가 되는것은 政府(建設部)制定 建築積算基準 및 建設工事 標準품셈이 있다.

工種別로 主要하다고 生質되는 1981適用 建築積算基準의 内容과 積算하는데 必要한 資材의 規格 및 1981適用 建設工事 標準품정을 根幹으로한 一位代價表量 建築土 여러분이 実用함에 있어 多少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生 覚되어 本誌를 通해 紹介한다.

本誌의 紙面関係上 詳細하게 또한 全工種을 다 紹介하지 못하는 것을 아십게 여기면서 紙面이 許諾하는데로 또한 資料가 整理되는데로 継續해서 紹介해 드리고자 한다.

1. 假設工事

假設工事는 建築工事 期間中 臨時로 設備되어 建築物을 完成시키기 위한 施工設備工事로서 強度 其他 使用目的에 適合하면 材料의 反復 使用이 可能하고 工事가 完了된後에 解体·撤去・整理를 要하는 것이며, 假設工事는 一般的으로 設計図에는 全혀 表示되지 않고 示方書에도 簡単한 指示만이 있을뿐이고 施工者에게 거의 一任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이러한 假設工事性를 計算함에 있어 빠짐없이 綿密히 検討 反映하여야 할것이다.

假設工事에 所要되는 材料費는 大概 損料로서 計上하므로 工期別 損料、使用回数別 損料中 択一通用하되 工期 및 使用 回数는 全体工程을 勘案 検討한 後에 決定하여야 한다.

假設工事는 다음과 같이 間接假設工事의 直接假設工事로 区 分되다

間接 假設工事:假設事務所,假設倉庫、 き타리、規準等,假 設運搬路 等으로서 주로 現場管理 施設을 總稱한다.

直接 假設工事: 거푸짚, 동바리, 비계, 비계다리, 養生膽散 等으로서 工事施工에 直接 所要되는 施設을 말한다.

1-1. 積算基準

1-1-1 假設建物

1. 設計図書에 指定이 없는 假設建物의 規模는 工事場의 位置, 工事의 程度, 規模, 期間 等에 따라 다음에 依하여 次 定한다.

施設物 規模에 依む 区分

본건물의	〒里	200m²	1, 000m	3, 000mi	6, 000m	6,000m
종 별	닦위	以下	以下	以下	以 下	以下
감독사무소	m'	6	12	25	30	50
도급자사무소	m' '	12	24	50	60	150
기타자재창고	ฑื่	10	20	30	40	60
작업첫간	រាធំ	-	50	70	90	120

(解 説)

(1) 서멘트 倉庫 必要面積 算出

시멘트 불이 600包袋 以内일때는 全量을 貯蔵할 수 있는 倉庫를 假設하고 시멘트 불이 600包袋 以上일때는 工程에 支障이 없을 程度의量을 貯蔵할수있는 것을 基準으로한다. (2) 動力所 및 変電所 必要面積 算出

A→√W ×3.3 A=廁積 (m²) W=電力容量 (KWH)

- (3) 上記 1,2項 以外의 假設建物 規模는 必要面積을 設計하여 算出하거나 本表의 施設物 面積에 比例한 概算値를 適用할 수 있다.
- (4) 다음의 假設物은 必要에 따라 設置할 수 있다.
 - (邓) 劳務者 宿所 및 便所(高層建物의 假設便所包含)
 - (4) 大規模 建物工事의 現場事務所列 状況室、集会室、洗面室、浴室。
 - (다) 保安을 要하는 工事場의 警備초초 및 保安施設
 - (4) 安全施設(消防施設 包含)
- (5) 假設 電燈基準

(燈/m²當)

区分	数量	備 考
事務 室	0. 15	1.1 燈当 100 W를 基準
倉 庫 類	0.06	2.電燈設置에 必要한 材料는 別
作業場 (일간)	0.10	途計上.
宿 所	0.075	

2. 假設建物 材料는 損料로서 計上하며 使用期間別 損料는 · 다음과 같다.

	使用期間	别。	3 個月 以内	6個月	1個年	工個年 以上	1
区;		•	(%)	(%)	(%)	(%)	١
木		材	30	45	60	75	l
긴	비계	뽁	25	35	50	75	ľ
쭯·	은 비 계	복	12	17	25	50	Ì
ĺ	못		100	100	100	100	١
鉄		物	30	45	60	75	l
골	₫ <u>}</u> -	셕	20	35	55	75	l
鉄		線	100	100	100	100	l
루	^	핑	100	100	100	100	l
窓		j⊐	30	40	60	75	l
<u>유</u>		리	60	65	75	100	ļ

다만, 契約工程에 依하여 定해진 工事期間보다 実際工事 期間이 短縮 또는 延長되어도 工事金額은 增減하지 않 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1-1-2 水平規準量

- 1. 水平規準들의 平面配置図를 作成하여 귀 規準를 또는 平規準들로 나누어 個所数로 計算함을 原則으로 하되 建築面 街의 規模 및 平面構造上 不可避한 境遇에는 面積当으로 計算할 수도 있다.
 - 2. 水平 規準률의 木材損率은 80%로 한다.
 - 3, 2層 以上의 水平보기는 먹메김품을 適用한다.

1-1-3 동바라

- 1. [空㎡]의 體積은 上層 바닥板 面積(個所当 1㎡以上의 開口部 面積은 控除함)에 層놀이를 곱한것의 90%로 한다.
- 2. 동바리 材料는 損料로서 計上하며 使用 回數別 損料 는 다음과 같다.

가. 木材 損率

使用回数	購人量	購入量에 対한 損率	毎回数의 損率
1	100 %	37.1%	37.0%
2	110	45.1%	24,8%
3	120	52.4%	20.9%
4	130	59.0%	19.1%
5	140	64.9%	18. 1%
6	150	70.2%	17.5%
7	160	75.0%	17.1%
8	170	79,3%	16.8%
9	180	79.3%	15.8%
10	190	79.3%	15.0%

[例示] 동바리 所要量이 100이고 6回 反覆 使用할때

(1) 購入量에 依한 損料를 適用할 境遇

購入量: 100個×150%=150個 消耗量: 150個×70.2%=105.3個 (2) 毎回数의 損率을 適用하는 境遇.

消耗量:100個×17,5%×6個=105個

나. 꺽쇠 및 보울트

区	分	1	個	2	個	3	個	4	個
損	率(%)	1	.5	12	2.7	10). 8	g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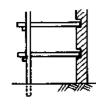
과외 및 보울트는 4回까지 使用하는 것으로 하고 5回以上 使用時에는 4回로 計上한다.

- 3. 木材 동바리 使用回数는 建築工事에서 普通 7回 使用을 標準으로 하되 特殊한 境遇에는 동바리 存置期間 및 損失程度에 따라 決定한다.

1-1-4 外部 비계

1. 비계는 工事의 規模,作業內容,重量物取扱等에 따라 構造를 決定하여야 하며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境遇에 使用 한다.

가. 외줄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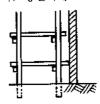
中, 低層 建築物로서 組積工事(벽돌, 블록工事等)의 軽量材量 使用하는 工 事에 使用한다.

나. 겹비계



외줄비계로는 積載荷重이 過多하여 補強이 必要한 工事에 使用한다.

다. 쌍줄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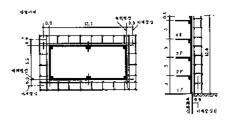
쌍줄비계는 作業工程上 외줄비계, 접 비계로는 作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와 비계위에 많은 資材를 놓고 作業하 계 되는 美匠工事, 타일工事, 石工事, 태라콧타工事, 콘크리트工事 等의 外 裝工事에 使用한다.

2. 外部 비계 面積은 다음 基準에 依하여 計算한다.

区分	쌍줄비계	졉비계, 외줄비계
	壁 中心線에서 90cm	壁 中心線에서 45cm
 	距離의 地面에서 建	距離의 地面에서 建
木造	物 높이까지의 外周	物높이까지의 外周面
	面積	積
鉄筋콘크리	壁 外面에서 90cm	壁 外面에서 45cm 距
트造 및 鉄	距離 地面에서 建物	雕의 地面에서 建物
骨造.	높이까지의 外周面積	높이까지의 外周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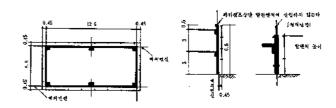
(例 1) 図1.1에 依해 鉄筋콘크리트造의 쌍줄비계 面積을 求해 보면.

질이 폭 높이 (14.3+7.3)2×12.6=544.32m²



(例 2) 図1.2에 依해 鉄筋콘크리트造의 겸비계 面積을 求해 보면,

질이 폭 높이 (13.4+6.4) 2 ×6.6=261.36m²



3. 外部비계 材料는 損料로서 計上하며, 使用 期間別 損率은 다음과 같다.

使用期間別	3 個月	6 個月	1個年	1個年以上
区分	(%)	(%)	(%)	(%)
긴 비 계 목	25	35	50	75~100
짧은비계목	10~12	15~17	20~25	30~ 50
발 판	25	35	50	75~100
P. S. P.철판	10	15	20	30

4.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가. 파이프비계 面積은 다음 基準에 依하여 計算한다.

区分	단 관 비 계	강관틀비계
鉄筋콘크리트	壁外面에서 100cm	壁 外面에서 100cm
造 및 鉄骨造	距離의 地面에서 建	距離의 地面에서
	物높이까지의 外周	建物높이 까지의外
	面積	周面積

나. 파이프비계 材料는 損料로서 計上하여 使用期間別 損率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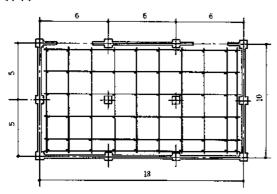
\\\\\\\\\\\\\\\\\\\\\\\\\\\\\\\\\\\\\\	elododadad 6	of all all 12	7 Al Al 13	-1
	강관미계기본들.	받침철물,	조임철물,	철 물
工期人	가세. 비계장선들	<u> 조절받침철물</u>	이 음 철물	(양카용)
3個月	6 %	9 %	12 %	100 %
6 "	12 "	15 ″	20 "	100 "
12 "	19 "	29 ″	38 *	100 ~
18 "	28 "	42 "	56 "	100 "
24 "	37 "	56 "	74 "	100 "
30 "	46 "	69 "	92 "	100 "
36 *	55 <i>"</i> .	83 ″	100 ″	100 ~
42 ~	64 "	96 "	100 ″	100 ″
48 "	73 "	100 ″	100 ″	100 "
54 "	84 "	100 ″	100 "	100 "
60 "	91 "	100 ″	100 "	100 ″
66 #	100 ″	100 ″	100 "	100 ″

- (1) 鋼材비계 耐久年限 5.5年을 基準으로 한 것이다.
- (2) 使用造作回数는 400回 基準이며 運搬保管에 対한 損率 은 計上된 것이다.
- (3) 一般的 파이프 비계 때기에 対한 基準이다.
- (4) 簡単한 工事 및 補修工事(塗装,清掃等)에는 그 工事의 性質에 따라 木材 및 鉄材 移動式비계를 比較 設計하여 経済的인 것을 計上한다.

1-1-5 内部비계

- 1. 内部비계의 비계 面積은 延面積의 90%로 하고 損料는 外部비계 3個月까지의 損料을 適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 2. 水平비계는 2가지 以上의 複合工事 또는 単一工事라 도 作業이 複雜한 境遇에 使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 3. 말비계는 層高 3.6m未満일때의 軽微한 内部工事에 使 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 (例 3) 図 1.3에 依하여 內部비계(水平비계, 말비계) 面積 을 求해 보면,

내부비계



1-1-6 비계다리

- 1. 비계다리 設置個所数는 建物別로 1棟의 建坪여 1,600m² 마다 1個所의 設置하는 것을 標準으로 한다.
- 2. 비계다리 材料는 損料로서 計上하며 使用期間別 損率은 다음과 같다.

使用期間別	3 個月	6 個月	1 個年	1個年 以上
区分	(%)	(%)	(%)	(%)
긴 비계목	25	35	50	75~100
짧은비계목	10~12	15~17	20~25	30~ 50
발 판	2 5	35	50	75~100
P. S. P. 발판	10	15	20	30

3. 비제다리 面橫은 비계 다리의 디딤판 延面積으로 한다.

4. 달비계

경미한 単位工事를 하기위한 페인트工事, 뿜칠工事, 清掃等에서 必要한 境遇에 使用함을 原則으로 하여 外部비계와 比較하여 経済的인 것을 使用한다.

(参考) 비계다리 가설 표준시방(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 준시방서 제 2 장 참조)

- 1, 나비 90cm以上, 물매 4/10를 標準으로하. , 높이 7 m以內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站)을 둔다.
- 2. 발판널은 내밀리자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수 있는 한 점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 3.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 막이를 30cm 내외의 자격으로 고정한다.
- 4. 쟤단의 챌(판)높이는 24cm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cm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1-1-7 建築物 保養

- 1. 保養面積은 保養이 必要한 実際의 施工 表面積으로 第出한다.
- 2. 保養은 施工部分의 硬化를 돕는 일과 破損이나 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実施하는 것으로서 工事에 따른 保養材料는 다음을 標準으로 한다.

工種別	材料
본크리트工事	
사 잘(署中)	물, 시이트
자 같(窒中)	시이트, 거작
콘크리트(署中)	澈水, 모래, 거적
콘크리트(塞中)	비닐덮개. 시이트, 거뉙, 모닥불, 蒸気, 電熱線
鉄骨工事	시멘트풀, 방청페인트
水 工 事	종이類, 포장, 거적, 판재류, 풀가루
石 工 鲱	종이類, 접착테이프, 판재류, 角材, 풀가루
	해초풀, 롭밥(바닥석재면)
테라조工事	판재류, 종이류, 돕밥
大 現石工事	종이류, 시이트, 거적, 판재류
벼돌빛블록工事	물, 거젹
防水工事	시이트, 거적, 펠트
타 일 工 事	거적, 판재류, 각재, 돌밥
美匠工事	종이류, 겨적, 판재류, 보온처리
유리 그 화	판재류, 각재, 풀가루
窓戸工事(木材)	판재류, 시멘트 공대
	비닐, 시벤트공대

石材面 保養에 있어서 壁面은 잔다듬까지, 바닥面은 정다듬까지는 保養을 考慮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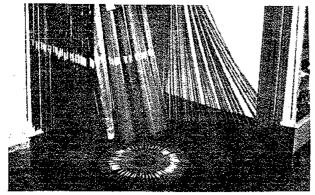
1981年度

"優秀建築資材展示会開館"

시리즈(Ⅱ)

금구공업사

/부산시 북구 주래동 57 번지 /TEL (051) 92-0900 /창호용레일



당사의 창호용 레 - 일제품은 KS 허가(제1693号) 를 획득한 우수한 제품으로 미닫이 창호용레일·자 동차용 프라스틱제품·합성수지압축제품·각종재생 수지등도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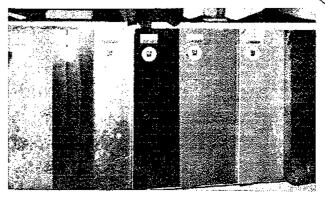
전국 청물점에서 성황리에 판매하고 있는 동제품의 특징은 녹이술지않고 위생적이며 외관이 아름답고 색상이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또 가운데 철심이 들어있어 견고하며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가벼우며 운반과 부착이 용이하다. 접촉면의 소음이 없다는 것과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인것도 이 제품의 특징가운데 하나다.

한비산업주식회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373 / TEL. 66-0910 / 우레보드-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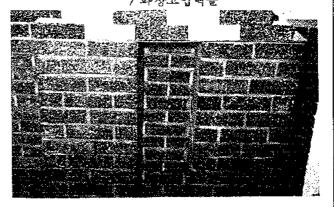
우레보드R은 90% 이상의 동립기포로 되여 있으며 표면에 방수지, 또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단열재보다 우수하며 완전자기소화성제품으로 공사중의 합선이나 담배불에도 안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0℃까지는 안전사용 가능하며 사용소재에 따라 130℃까지 사용가능하며 저온 사용온도는 -30℃ 이하 냉동단열에 적당하다. 또한 가공이 좋아 시공이



간편하며 자유자재로 톱, 칼등으로 재단가공이 용이하며 접착체 본드로 용이접착이 가능하며 우레탄보다 취급과 시공성이 간편하며 부스러지 지 않는다.

우양개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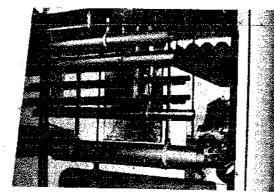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2-3 / TEL 722-3567 / 화장고압벽돌



우양개발의 특수제품으로는 고압벽돌을 내세울수 있다. 고압벽돌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적만으로 공사가 끝나며 몰탈, 페인트, 타일 시공등이 필요 없으며 아주 다양하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고압벽돌 특징의 하나이며 그리고 내수성, 내후성이 뛰어나 수명이 또한 길고 공사기간이 훨씬 단축되고 공사비가 타일시공의 약60%이며 완전방수가 보장되며 내장, 외장 겸용이 되는것 또한 이제품의 큰 특징이라 할수 있으며 고압벽돌 자체가 우수한 벽돌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영산업주식회사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7972 / TEL 778-0193 / SERO-BAND



시공이 매우 간변하며 공기가 놀랍게 단축되고 별도의 공구가 불필요 하다. 세가지 구성품 만으로 시공완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정한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여 언제 어느때나 간단한 수 작업만으로 재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물체에도 단일한 부품이 사용됨으로 부품 관리가 간편하고 고착물의 연결사용과 무거운 중량에도 잘 견딜수 있다. 제품의 포장용 강대로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며 계획생산과 적정재고 보유로 신속하고 정확한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철저한 방청처리와 정밀한 부품 구성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매우 전고하다.

주식회사 한양공영

/ 인천시 남구 주안동 3-21 / TEL (132) 83-0131 ~ 7 / 태양열온수기,태양열집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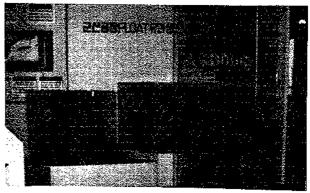


배양열온수기: 집열기와 온수기 탱크가 분리 되어 있어 집열기를 지붕에 간편하게 설치할수 있고 더우기 파이프 배관은 단열호스를 사용하 므로 보온과 파이프 시공을 동시에 간단하게 할 수있다. 또 차등온도 조절기에 의해 야간이나 날 씨가 흐린날은 자동적으로 펌픈가 정지된다.

태양열집열기: 탁월한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갖고 있으며 철분함유가 적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였으므로 태양광선의 투과율이 월등히 좋고 미관이 화려하며 전자동 온도조절장치에 의해서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며 한국적 기후에 가장 적합한 집열기이다.

한국유리공업(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통 1-154 /TEL 783-0311 /판유리, 복충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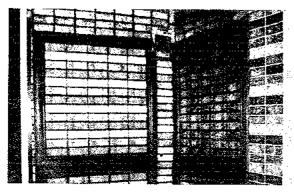


강력한 접착제 정밀한 용접으로 공기층과 왼전차단시키고 내부에 흡습제를 사용했으며 유리공간 사이의 공기층은 밝은 건조공기가 계속유지되어 어떤 기상조건에서도 유리면에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 열선흡수유리, 보통관유리, 반사유리등은 공기층을 사이에 두고 2겹으로 만들어져 1 매를 사용한 보통유리창보다 냉난방 설비비나 연료비가 절감되며 기존제품의 접착은 치오콜만을 사용했으나 특수 부칠접착기와 투수압축기를 사용 접착강도를 균일하게하고 네모서리를 「기」자 장식으로 연결 초음과 발진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였다.

서진유리 타일

/ 서울시 성통구 송정동 73-555 / TEL 446-7168 / 산데리아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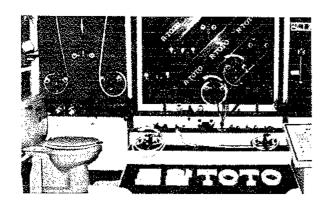
본 회사 제품으로는 산데리아 타일을 우수제 품으로 꼽을수 있는데 산데리아 타일이란 유리 표면에 특수조각을 이용하여 빛의 굴절에 의한 다이아몬드를 형성시켜 전면이 보석발을 이루어 환상적인 빛을 발산시켜 주고 있다. 시공방법은



일반타일파 같이 시멘트로 부차시키고 이음같이는 방수 빠-데로 마감처리한다. 야광및 산데리아 효과를 높여주며 색상이 다양하고 유리자체색같에 변색이 없으며 부착면이 홈으로 패여 있어 사공이 간편하고 100% 방수이다. 영하35℃이하에서도 동파가 전혀 없으며 강도가 높고 규격이 정밀한 내화단열재이다.

로얄ToTo금속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수표동27-1 (세한빌딩701호) / TEL 267-3885 / 역류지방형, 수정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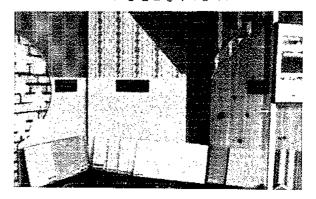


역류지방형: 역류를 완전히 방지한 위생적 구조이며 간단한 조작으로 확실한 작동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도 중요하고 현대감각에 알맞는 스마트한 디자인을 파미했다.

수전금구: 세련된 디자인과 외관을 지며 설치성과 더불어 장식면에도 아름다움이 있으며 KS 표시허가 공장으로 모든 제품이 규격화 되어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메이커인 일본ToTo 와의기업으로서 국내에선 가장오랜 전통을 가진제품이며 모든 제품은 반드시 17.5km²의 수압시험을 거쳐 출하되고 그주물의 우수성은 타 메이커의 추종을 불허하며 누수가 없다.

한국스레트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가 269-2 /TEL 261-8094 /불연단열내외장재류



석고보도: 두장의 강인한 보드용 원지사이에 석고가 안정된 결정 : 상태도 경화되어 있어 일반 주택 고충건물의 벽체, 천장재로사용

아스칼: 석면규산질, 석회질을 주성분으로 오토 그라보중에서 고온, 고압 증기 양생한 견고하고 미 려한 불연 내장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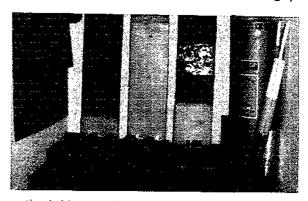
밤라이트: 주성분 석면과 시멘트로 무기혼합계를 특수배합하여 강력한 만톤프레스로 가압제조한 불 연 내·외장재로 만든 건물에 이상적임.

피시보드:시멘트와 펄프를 주원료로 가압한 불 연내장재로 가장 값싸고 시공과 가공이 용이합.

그밖에 스레트류로 대, 소골, 평스레트, 기와형 등이 있고 보온재류와 페인트류도 생산하고 있다.

대진루핑화학공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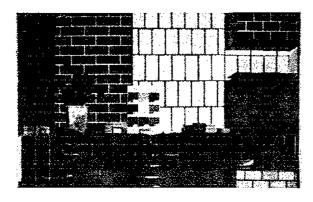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6 /TEL 713-2171 /아스팔트펠트, 루핑,아스팔트휠라



본 회사는 1963년 4월20일에 발족된 회사로서주 로 가공제품을 취급하고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아스 팔트펠트, 루핑, 아스팔트 휠라, 휠라보드, 기타 아 스팔트 가공품 등이 있다.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첫번째로 아스팔트 휠라는 특수 아스팔트 가공 제품으로서 1974년 3월에 최초로 국방부 조달본부 및 특수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이고 두번째로 휠라 보드는 종이제품으로서 특수 가공처리하여 특수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이다.

천광요업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 4 가 12-1 (오성빌딩 205) /TEL 261-3678 / 자기질 외장타임



타일 분야에서 그 품질의 우수성으로 널리 알려 진 천광요업의 외장타일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규격면에서 크고작은 불균형을 전혀 배계하고 균일한 규격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에 걸맞는 다양한 색상은 시공후의 미려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균열이나 팽창등 제품상의 이상이 전혀없고 특히 겨울철의 온도 급강하로 인 한 동파등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흡수율도 1%에 불과하며 시공상의 편이 함으로 타제품을 항상 앞서간다.

주식회사 대룡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89-2 /TEL 723-9817 /우레아품

최신 단열재 가운데 가장 작광을 받고있는 우래 아품은 이미 그 시공방법, 제품상의 우수성으로 여 러타제품을 압도하고 있다.

단열재로서의 역활 뿐만 아니라 방화, 방음, 방 습효과이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소 비자의 이해확대에 따라 단연 그 인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열전도율은 0.025 Kcal/mh°c이고 시공 방법은 분사 충전식으로 동사 특수차량이 출장해서 간단히 시공해 주고있다. 가격면에 있어서는 단열재중 가장 싸게 먹이고 있으며 전혀 썩지 않고 99%의 흡음율과 0%의 흡습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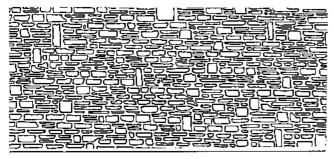
동서산업주식회사

/ 서울시 종료구 신문로 2 가 55번지 / TEL 723-1708 / 대형무늬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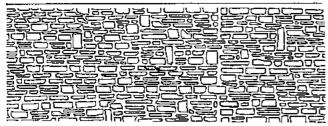


동서大型무늬타일의 특징은 이태리(UNI)독일 (DIN) 영국(B/S) 미국(ASTM)등 국제제품규격에 합격된 우수한 품질의 타일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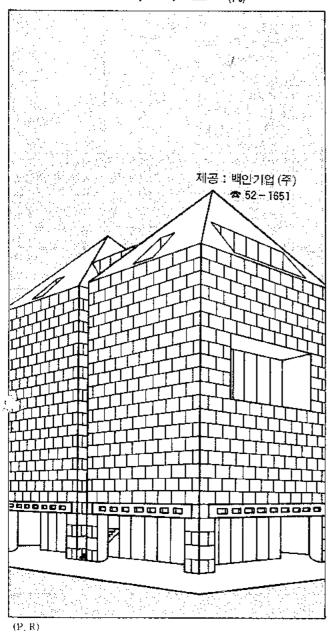
시공바면에서도 150 % 평당 136 배· 108 % 평당 260 매가 소요되 큰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기간도 15 % 가량이 단축된다. 또 수입품과 같은 품질이면서도 가격면에서 약60 %정도가 저렴하며 동사는 국내유일의 대형무늬타일 수출업체로서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국내 대부분의 아스트 건설업체들도 동사 재품을 애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최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태리 S·I·T·I 社의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



優秀建築資材



시 리즈 (10)



건축내 · 의장재 오공벽재

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지난76년부터 오공벽재 연구진과 서일본 벽재연구소의 합동으로 연구와 실험끝에 80년 4월 발 명특허(제7983호)를 획득한 자연섬유 벽면내·외장재 이다. 본 제품은 마감제로서 기본 본 타일, 무늬코트, 벽지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을 커버 할 수 있는 장점 을 지녔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내·외장재가 미국, 일본, 구라과 등 지에서 시공되고 있으나 오공벽재는 우리나라의 기후, 습도, 건축양식등에 알맞게 제조 되었다고 한다.

2. 제품의 구성요소

재 료 명	규 격	비 고
펄 프	100	30으로분쇄
운 모	철분물 포함	20으로분쇄
규 석	백색도95%이상	40으로분쇄
포 리 졸	아크릴 에말존	
씨・엠・씨	"	참 가 제
안 료	내 화 성	
기 타		20 여 종

3. 제품의 성질

- 1) 불연재 특수화학처리로 인한 내화성
- 2) 섭유질의 부드러운 요철형성으로 방음 및 보온효 과
- 3) 원재료외 특수 배합으로 찢어지거나 마모가 없고, 물기나 습기등에 강한 내수성,
- 4) 내 알카리성으로 변색이 없음.
- 5) 자연섬유질로 공해나 독성이 전혀 없음.
- 6) 사공후 시간이 흐를수록 강한 내구력을 가짐 (시 멘트의 성질과 유사)
- 7) 20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에 따라 실내 ・외 공간을 효과있게 꾸밀 수 있음.
- 8) 습도조절기능이 있음.

4. 시공방법

- 1) 먼저 시공코저하는 벽면에 못이나 철재물은 뽑아 버리거나 코팅액 또는 니스로 처리한다.
- 2) 벽면에 빗물이 스미는 곳이나 습기가 있는 곳은 먼저 그 부위를 코팅액으로 처리한다.
- 3) 벽면의 먼지, 기름, 습기등은 제거후 시공한다.
- 4) 반축 용기를 깨끗이 청소한다.
- 5) 재료의 반죽은 한포속의 재료를 나누어 반죽하지 말고 반죽 용기에 한꺼번에 넣어 반죽한다.
 (무게와 비중이 다른 색소들의 편중을 피하기 위합)
- 6) 응어리가 없도록 반죽한다.
- 7) 평당 물 4 리터와 오공액400그람의 비율로 고루섞 어 충분히 반죽한다.

- 8) 반축후 30분 경과 후 훍손 또는 스프레이로 시공 한다.
- 9) 시공 후 건조시까지 손을 대지말고 통풍이 잘되 도록 한다.

5. 사용용도

호텔, 여관, 아파트, 샤무실, 강당, 교회, 병원, 유흥업소, 고급주택, 상가, 기타각종건물.

6. 제품의 특성

- 1) 신축성이 있어 겨울철 강추위에 얼어터져거나 부 풀음, 박리현상이 전혀 없음.
- 2) 시공 후 벽면에 못을 박아도 벽면손상이 없음.
- 3) 시공 후 더러워졌을 때 비눗물로 닦을 수 있음.
- 4) 장기간 경과후 싫증이 나거나 더러워졌을 때 오 공벽제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타내장재 (페인 트, 박지, 시멘트등) 또는 오공벽제의 시공도 가 능함.

7. 가격

실수요자가격 (단위: 원)

		2 1 1 -	• • • • •	<u> </u>
품	명 '	단 위	물 품 대	시공·코팅비포함
정	맥	켱	5,600	7,000
2	हें-	평	6,100	7,500
황	실	평	7,100	8, 500
궁	전	평	6,600	8,000
상	ŧ	ऋ	8,600	10,000
야	성	평	10, 100	11,500
외경	낭재	평	10,100	12,500

8. 참고사항:국립공업시험원 시험성적서(제5387호) 에 의하면 내수, 부풀음, 변색, 박리현상시험에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

◎ 시공요령



◎ 시공시주의사항

- 1. 시공하기전에 벽면을 깨끗이 처리할 것.
- 2. 못이나 쇠붙이는 너스 혹은 페인트로 사전에 처리할 건
- 3. 벽면 숩기는 일단 건조시킨 뒤 완벽한 방수여부를 확 인후 시공할 것.
- 4. 코팅은 완전 건조후 시공할 것.

(P.R),

◎ 참고사항

- 1. 시공이나 시공완료후 公害나 毒性이 전혀 없으니 安 心하십시요.
- 2. 반죽후 24시간이 지나도 시공할 수 있읍니다.
- 3. 흙손의 솜씨만 간단히 익히면 가정에서 주부님들께서 도 얼마든지 시공할 수 있읍니다.

오공벽재의 비교표

구분	오공벽재	일 반 본 타 일	벽 지
가	시공비 포함	시광비 포함	시공비 포함
	평당 7,000원부터	평당 15,000원부터	정당 4,000원부터
격			(보통고급박지기준)
	1.초배공정이필요없	1. 마스킹,빠데,下	1. 초벌도배작업
	<u>음</u> .	地처리 작업	2.무늬맞춤, 절단작
	2.빠데작업이 필요	2.下逾,中逾,上逾斗	업
시	없음.	업	3.도배작업
	3.단 한번의 작업공	3.보수작업 등 상당	4.재료손실(약15 ~
	정으로 완료됨	한 기간이 필요함,	20% 정도)
	4.재료손실이 거의	4. 재료손실(약10 %	
	없음.	정도)	
	5. 기온이0°C 이하로	,	
	내려가지않는한모		
	는계절에 시공 <u>할</u>		
공	수 있음		
-	6.기호 및 분위기에		
	따라 여러가지 무		
	니로 시공 가능함		
	1.용도예따라색상이	1. 원자재또는화공약	1, 다양함
	다양함 (150가지)	품사용으로황색현	
색	2. 주문에의해색상선		
	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2. 색상선택이불가함	가 누렇게 됨.
상	3. 변색이 되지않음	3. 오래되면퇴색됨.	4. 때가 잘타고 세척
	4. 때가 안끼고 세척	4. 때가 약간끼나 세	불가함
	가능함.	식가능함 .	2
	1.耐火,耐水호과	1. 耐火, 耐水 효과가	1.耐火,耐水가 전혀
	(특허7983)	있으나습기가찬곳	
시	2. 방음, 보온이 잘됨	에서는떨어지는일	2.방음, 방온이 거
	3. 습도조절기능이었	이 있음.	의 안됨
공	-	2.표면이 견고한 요	3. 습도조절 기능이
	4.용도의 다양성(실	i	약간 있으나 오래
	내,거실,복도, 부		***
완	1	3. 습도조절 기능이	기 흉함,
	5,영구적이고 경제	거의 없음.	4. 방안정도로 극히
	적임.	4.요철의 견고성 색	사용범위가 없음.
显	6,재시공시 원벽면	상의 단조로움 등	
	파기없이 타 내장	l '	으로 비경제 적이
	재 시공가능함	5. 년1회정도는 보수	고 번거로움
卒	7. 이음새가전혀없는	l = '•	6.타 내장재 시공시
-	한장의섬유벽이된	6. 재시공시 원벽 띤	에는 벽지를 벗겨
	다. 여러가지 무늬	을 파기하여 시공	
	로 시공가능함	하므로경제성이적	• • - •
	8. 무공해	<u>.</u>	

전국건축허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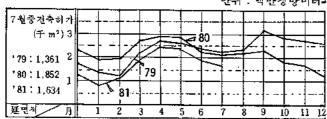
용도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u></u>	월별	7 월			1 - 7 월		
용도별		' 80	' 81	대비%	' 80	, 81	대비%
수거용	동 수	6, 165	3,881	63, 0	53, 431	31, 906	59.7
7/18	연변적	1, 081, 310	779, 653	72, 1	9, 717, 117	6, 172, 894	63.5
상업용	ኝ ተ	1, 374	1, 179	85, 8	10, 353	9, 017	87.1
8.82	연면적	445, 031	363, 364	81.4	3, 638, 296	3, 064, 563	84.2
공업용	동 수	218	256	117, 4	1, 432	1, 422	99, 3
0 8 2	연면적	243, 255	309, 339	127.2	1, 247, 628	1, 419, 659	113.8
문 교	동 수	262	178	67.9	1, 320	1, 331	100, 8
사회용	연면적	196, 687	119, 252	60.0	1, 106, 258	966, 654	87. 4
기타	ु कि	412	323	78.4	2, 821	2, 306	81, 7
- F	연면적	89, 301	62, 594	70, 1	731, 400	600, 494	82, I
7 1	동 수	8, 431	5, 817	69.0	69, 357	45, 982	66, 3
	연면적	2, 055, 584	1, 634, 202	79, 5	16, 440, 699	12, 225, 264	74. 4

건축허가전년대비도표

단위 : 백만평방미터4



구조별건축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월 벌	7 월			1-7 월		
구조별		[*] 80	' 81	대비%	, 80	'81	대비%
철 근	· 동 수	1,827	1, 524	83, 4	14, 463	11, 227	77.6
천골조	0 1	1, 240, 446	1, 139, 465	91. 9	9, 572, 623	8, 184, 664	85. 5
조적조 ·	동 수	6, 286	4,012	63, 8	52, 484	32,849	62.6
J 1	연면적	772, 410	471,033	61.0	6, 624, 309	3, 862, 136	58, 3
목 조	동 수	144	167	116.0	1, 402	1, 166	83, 2
	연면적	11, 640	12, 036	103. 4	99, 515	80, 764	81, 2
기 타	እ ተ	174	114	65. 5	1, 008	740	73.4
71 -4	연면적	31, 088	11,668	27. 5	144, 252	97,700	67.7
계	ዩ ተ	8, 431	5, 817	69.0	69, 357	45, 982	66, 3
	연면적	2, 055, 584	1, 634, 202	79.5	16, 440, 699	12, 225, 264	74. 4

월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 1						
	월별	, 	80	,	전년대비	
	로 코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
	1	5, 998	1, 846, 698	2, 364	843,447	45.7
	2	6, 344	1, 851, 785	3, 536	1, 040, 968	56.2
	3	13, 530	2, 883, 090	8, 123	1, 931, 949	67.0
	4	14, 129	2, 906, 362	9, 875	2, 481, 179	85.4
	5	11, 595	2, 803, 050	8, 401	2, 370, 273	84.6
	6	9, 330	2, 094, 130	7, 866	1, 923, 246	91.8
İ	7	8, 431	2, 055, 584	5, 817	1, 634, 202	79.5
Į	_계	69, 347	16, 440, 699	45, 982	12, 225, 264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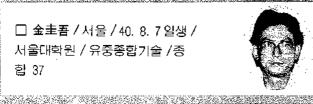
시도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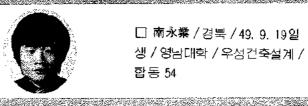
단위 : 평방미터

		월별		7 월		1 -	7 월	
시5	趋	연면적	,80	¹ 8 1	대비%	' 80	, 81	대비%
서		동 수	1, 069	974	91, 1	10, 983	7, 449	67.8
_	윧	연면적	391, 681	464,008	118.5	3, 978, 455	3, 289, 945	82,7
부		長 牛	647	329	50, 9	5,887	2, 856	48.5
—	산	연변적	190, 301	119, 794	62.9	1,665,743	1,004,702	60, 3
뎨	7	동 수	_	289	_	- (7월)	289	-
Ľ	. '	연면적	-	71, 592		- (· /)	71, 592	_
શ	천	동 수	_	245	_	- (")	245	-
Į.	વા	연변적	-	75, 159	_	-(")	75, 159	-
경	키	동 수	1,741	729	41. 9	13, 371	7, 385	55, 2
6	7	연면적	451, 984	226, 387	50, 1	3, 179, 558	2, 033, 644	64.0
강	원	동 수	340	378	111, 1	2, 560	2, 553	99.7
Ĺ	71	연면적	79, 806	70, 391	88, 2	664, 855	648, 121	97, 5
충	북	동수	409	348	85.1	2, 979	2, 639	88,6
Ľ	٦	연면적	63, 468	50, 634	79, 8	452, 154	409, 464	90.6
충	낱	동 수	811	456	56, 2	6, 667	4, 260	63.9
Ů	Ŧ	연면적	143, 889	95, 214	66, 2	1, 165, 175	861, 76 9	74,0
전	북	동 수	374	265	70.9	4,723	2, 357	49.9
	. <u> </u>	연면적	69, 231	51, 618	74.6	860, 976	364, 689	42. 4
전	남	동 수	697	528	75, 8	5, 660	4, 39 2	77.6
	ъ.	연면적	116, 673	80, 263	68. 8	856, 595	710, 713	83, 0
경	부	통 수	1, 464	568	38.8	8, 848	5, 712	64,6
Ľ	7	연면적	339, 747	144, 705	42, 6	2, 027, 463	1, 369, 195	67, 5
계	주	동 수	663	591	89. 1	5, 991	4, 537	75, 7
	Т	연변적	185, 415	167, 357	90, 3	1, 351, 435	1, 131, 509	83.7
*	ŝì	동 수	216	117	54.2	1,688	1, 258	74, 5
Ĺ	"	연면적	23, 389	17, 080	73, 0	238, 290	254, 762	106, 9
		동 수	8, 431	5, 817	69, 0	69, 357	45, 982	66.3
L		연면적	2, 055, 584	1, 634, 202	79, 5	16, 440, 699	12, 225, 264	74, 4

新入会員

□ 金圭吾 / 서울 / 40. 8. 7일생 / 서울대학원 / 유중종합기술 /종 합 37





□ 南永業 / 경복 / 49, 9, 19일 생 / 영남대학 / 우성건축설계 / 합동 54

《前号 新入会員중 유원재씨의 출신학교는 홍익대건축공학과임》

⋛昌動静

OPORTER SALES CONTRACTOR SALES CONTRACTOR OF THE SALES

🎎 📆 🧓 🔲 서울支部: 스 전화번 호변경 △ 박동희 777 *-*4485/△ 박원태 778 - 0429/△ 최종 수 778-7277/△김무웅/송립 건축 설계(전·서울건축사)/영등포구 영 등포동1가98-2

□釜山支部: △ 도상도회원 / 선명 종합건축/남구 광안동1007-6/83 -2581/종합 16/△ 긲철재회원 / 금 호건축사무소/부산진구부전1동266 -3/88 - 8822 / 단독74

□ 京畿支部:△한태희회원 / 삼성 신흥합동〈전·삼성건축설계〉/ 등 록번호ㆍ합동78호 / △ 강지원회원 / 삼성신흥합동(전 · 삼화건축설계 공사》/ 부천시원미동90 - 6 /등록 번호·합동78호 /

□ 慶北支部:△윤지군회원 / 영남 종합건축공사 / 중구공평동 90-2/ 46-4434/종합9호/△이원효회원/ 화신건축/남구봉덕동605-4/68-05 40/합동57호/△김한필회원/화신전 축 / 남구봉덕동605 - 4 / 68 - 0540 /합동57호/△유우룡회원 / 태양전 축설계사무소/남구봉덕동606 - 11/ 69-9343/단독71호/스이영기, 조

성현회원 / 동아건축연구소 / 경주 시 노동동9 - 1/합동74호 /

□ 慶南支部: △ 문인상, 김도준회 원/김해건축합동사무소/김해시부 원통787 / △ 허효웅, 조호제회원 / 합통건축설계사무소/김해시 서상 통 27-29 △신중광회원 / 협동건 축 제 2사무소 / 단독 9호 / △이태 욱회원 / 협동건축제 [사무소 / 거 창군거창읍하동273 / 단독20호 / △ 정규철회원 / 협동건축합천사무소/ 합천군합천읍합천동711-3/단독 21支/

□ 済州支部: △ 이세완 · 김한준 . 회원 / 서귀포합동건축설계 / 서귀 포시서귀동425 - 1/합동 3호 /

□ 서울支部:△ 원익회 회원/삼원합동건축/동대 문구신설동101 - 7/면허2 - 438/합 동119호 /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469 - 22 / 면 허 72/단독88호 /

□忠南支部:이기반회원/태안 종 합건축설계사무소 / 서산군태안읍 납문리586-2/면허 2-1123/종합 단독 4 호 /

"삼가명복을 빕니다."□ 서울支部:△성익환회원 8.1일 교통사고로별세 / 김동표회 원부인별세 8.4일 / 김병일회원모 친별세 8.9일/성하철회원조모 별 세 8.18/ 정석웅회원 모친 별세 / 9.11/

□ 京畿支部: △ 김순혁회원 /8.17 일 고혈압으로 별세

□慶北支部:△이병일회원 부친 별세 9.1 /

□ 慶南支部:△ 尹希俊/추대 회원 ·前본회 감사·경남지부장 역임 /9.9일 별세/경북 경주시 건천공 원묘지/

"오래사세요" 🗌 慶北支 部:△이종만회원 회갑 9.9/

"축하합니다" 🔲 본회자 🌣 🚟 무처 직원 / 남옥삼(총무 부경리)양 /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예식장(3층 복실)/이진원군 과 화촉 /이묵(총무부 서무)군/9 월 21일 오전11시 논산삼보예식장 /최경숙양과 화촉 /△윤여육회원 8월 5일 행복예식장/△ 김종만회원 장녀 8월17일/△송민구회원3남 8 월 19일 / △이문조회원 차녀 8월 28일 /